

이슬람권 선교정책 자료집

다가온 땅끝, 이웃한 무슬림을 바라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발간사

21세기는 지구촌의 세계화 속에서 “인구 이동, 이주”는 매우 보편화된 현상이 되었다. 인구 이동, 이주는 어느 나라의 특정한 지역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동의 속도도 역사상 가장 빠르게 모든 나라로 확장되어 있다. 이주의 문제는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이며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그래서 21세기는 글로벌 이주의 시대라고도 부르고 있다. 본국을 떠나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이주민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7명 중 1명은 이주민이라고 한다. 2018년 월드컵 대회에 우승 국가인 프랑스의 대표 선수 23명 중에서 21명이 이주민이라는 것을 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다. 한국 사회도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주민 유입이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법무부 홈페이지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1년 1월호에 의하면 1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인 2,014,433명이며, 외국인 유학생은 151,414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인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3.9%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인 26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이라는 의미를 말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외국인, 특히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이주 무슬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할 시점

에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여 선교하는 타 문화권에서의 무슬림 선교와 더불어서, 국내의 자문화권에서 땅 끝에서부터 한국을 찾아온 이주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킹과 글로컬(Glocal) 선교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강구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가 세계선교를 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는 세계선교를 지향하고 있는 유일한 반기독교적 종교라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잘못된 기독교를 고치기 위한 종교라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성경은 변질되었다고 하면서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슬람교는 평화의 종교라고 홍보하나, 알라(Allah) 외의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싸우라(꾸란 8:39)는 전쟁, 즉 지하드를 행함으로써,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교는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악한 영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사람인 무슬림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이웃’으로 많은 무슬림들을 이 시대에 한국으로 불러들여야 했다.

이렇게 다인종·다민족의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면서 한국 사회에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교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회 본부에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이슬람대책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위원회 산하에 총회의 기관 인준을 받은 이슬람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 4월 본부 선교국의 세계선교정책부에서 이슬람권 선교정책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2년여 동안 연구위원들과 이슬람연구원이 이슬람교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인식과 대응 입장을 정리하고, 이슬람권 선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감리교 개체교회의 이슬람권 선교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이슬람권 국

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 사례를 모은 결과를 정책 자료집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정책 자료집이 COVID-19 상황으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체교회가 이슬람권 선교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공감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현장 선교사들에게 이슬람권 선교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19)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세계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4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 총무 오일영 목사

차례

발간사 · 3

I.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 인식과 대응

1. 들어가는 말	9
2.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이슬람 이해	11
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	19
4.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에 대한 대응	34
5. 나가는 말	40

II.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 정책

1. 들어가는 말	42
2. 이슬람권 선교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	42
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 실태	47
4.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슬람권 국가 출신 이주민 현황	53
5. 이슬람권 선교의 정책 방향과 과제	59
6. 나가는 말	72

III. 개체 교회의 이슬람권 선교 참여 방안 모색

1. 들어가는 말	74
2. 이슬람권 선교의 시급성 인식 고취	79
3. 선교적 교회를 통한 오리지널 모델 참여 방안 제시	83

4. 이슬람권 선교 현장의 사역자와 협력체제 구축 방안	101
5. 나가는 말	103

IV. 이슬람권 선교의 현장 사례

A국	104
B국	116
C국	145
D국	161

I.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 인식과 대응

1. 들어가는 말

한국에 이슬람이 알려지게 된 데 대해서,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MF : Korean Muslim Federation)는 한국 이슬람교의 역사를 9세기 통일 신라 시대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파병된 터키군 무슬림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으며, 1976년 5월에 최초로 서울에 이슬람 중앙사원이 설립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1년 1월호에 의하면, 체류 외국인¹이 국내에 1월 말 현재 2,014,433명으로서, 이 가운데는 이슬람 협력기구(O.I.C)²에 가입한 외국인은 우즈베키스탄 64,825명, 인도네시아 36,318명, 카자흐스탄 29,379명, 방글라데시 16,673명, 파키스탄 12,780명, 키르기스스탄 5,652명 등으로 전체 약 20만 명이며, 불법 체류자 신분도 391,306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21년 1월 현재, 이슬람권 국가에서 입국한 무슬림 인구와 한국인으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을 의미함.

2) 이슬람 협력기구(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약칭 OIC)는 1969년 9월 25일에 창설된 이슬람교 국가들의 국제기구로 57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위키 백과)

로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신자를 모두 합하여 약 30만 명의 무슬림들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슬람의 교리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본질과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해야만 하는 시점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슬람은 코란을 중심으로 획일적인 종교체제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기존의 문화와 토속종교를 부분적으로 영입하여 혼합주의적 특징을 보이고 지역적으로 다양성을 보인다.”³⁾는 것이다. 특히 무슬림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더욱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선행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온건한 무슬림들이지만, 이슬람의 기본 가르침을 담은 그들의 경전인 꾸란⁴⁾을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자 하는 원리주의 이슬람 신봉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극단적인 테러로 무참하게 살인을 하고,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낳는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슬람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지나친 혐오나 배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도 “혐오는 범죄입니다. 혐오감의 거친 표출은 반기독교적입니다.”⁵⁾라고 주장한다. 출처

3) 전호진, 『이슬람 종교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서울: SFC 출판부, 2002) 79.

4) 김용선, 『코란(꾸란)』 (서울: 명문당, 2002) 표지.

“코란은 일반적으로 영어로 표기하는 타 문화권의 세계에서 통용되는 발음이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꾸란(Qur'an)이라고 발음한다.” 한국 이슬람교의 한글 번역본에 “꾸란”이라고 번역하므로 이를 사용한다.

5) 김동문, 『진실과 상식으로 이슬람 이슈 바로 하기』 (서울: 기독교문화연구원 경좌, 2016) 1.

가 불분명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악의적이고 무책임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왜곡, 또는 조작하여 SNS를 통해 퍼뜨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입장을 수용하면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현상적인 이슬람보다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본질적 측면에서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어떤 입장에서 이슬람을 인식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이슬람 이해

이슬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이 발생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슬람의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생애와 무슬림들에게 가장 권위를 갖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꾸란은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타 언어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에 의해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이 출판되어 한국인 무슬림들이 사용하고 있고, 외국어대 아랍어과 교수가 번역한 『코란(꾸란)』도 나와 있어서, 비록 번역본이지만 한국어로도 꾸란을 이해할 수는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측면의 이슬람 이해를 위한 마지막 순서로 꾸란의 내용과 의미들을 바탕으로 이슬람의 신앙과 행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슬람 발생 지역과 배경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 처음 6세기 동안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고, 정치적으로 서쪽은 지중해 연안 지역(대략 오늘날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이 로마 제국과 그 뒤를 이은 비잔티움 제국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동쪽은 3세기 초까지 스파르타에 속해 있었다. 이 두 제국 사이에 건조한 스텝(Steppe)지역과 사막이 끼어 있었는데, 바로 이 아라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랍사람들이었고 이들은 공통의 언어와 문화가 있었는데도 무함마드 이전까지는 한 번도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채 부족 간의 갈등과 전쟁으로 찢어져 있었다.

무함마드가 출생할 당시의 중동지역은 비잔티움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의 장기간 전쟁으로 서로 세력이 약화된 상태였고, 종교적으로는 교리 싸움으로 혼돈된 상태였다. 특히 반 삼위 일체론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던 아리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성모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호칭하고 그리스도의 본성을 신격과 인격으로 뚜렷하게 분리하고 두 본성이 서로 연합한다고 주장하던 네스토리우스도 정죄되었다. 또한 아라비아 반도에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합쳐져서 단 한 본성만을 가진다는 단성론자들과, 이단으로 정죄받고 이주해 온 기독교 이단들도 많았다. 그 중에 에비온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인정하고 다만 위대한 예언자로 믿으며 바울 서신을 배척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다. 또한 무함마드가 출생하기 이전에 많은 아라비아인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으나, 아라비아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정통신학자도 없었으며, 다만 여러 기독교 이단들과 소그룹들이 있었다.⁶⁾ 이러한 시대적 상황

6) 한국기독교 범교단 이슬람대책위원회, 『이슬람을 경계하라』 (서울: 대성인쇄, 2010) 76-81.

속에서 무함마드가 태어나고 성장해서 이슬람을 선포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2)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아라비아 반도의 상업 중심지요, 종교적 도시인 메카(Mecca)에는 360여 개의 종족이 각 종족마다 자기 종족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다. “알라(Allah)”라는 이름의 “달 신(Moon god)”을 믿는 가장 강력한 꾸라이시 종족에서 무함마드는 AD 570년에 유복자로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삼촌 밑에서 자란 무함마드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문맹⁷으로 성인이 되었으나, 25세에 대상(Caravan)을 경영하는 40세의 과부인 카디자(Khadija)와 결혼함으로써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무함마드는 AD 610년에 히라(Hira) 동굴에서, 마치 샤머니즘의 박수나 무당에게 신이 내리는 장면과 흡사한 체험⁸을 하고, 아랍어로 꾸란(꾸란 42:7)을 받기 시작했으며, “알라(Allah)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일신을 선포함으로써 우상의 도시인 메카에서 핍박을 받던 무함마드는,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인정하여 주고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호기심을 가졌던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은, 무함마드가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비슷하게 이용하지만, 내용이 너무 다르고 앞뒤가 안 맞는지라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렸고,⁹ 무함마드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메디나로 AD 622년에 피신하게 되었다.

메디나에서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갖추게 된 무함마드는, AD 624년

7) 최영길 역,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사우디아라비아: 파하드 국왕 성 꾸란 출판청, 2002(이슬람력 1422년)) 289. <꾸란 7:158, “~그 분의 무학자 선지자를 믿으라.”>

8) 이만석,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 (서울: 4HIM, 2014) 27.

9) 이만석, 61.

부터는 자신의 선지자 됨을 인정하지 않던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을 강력하게 핍박했으며, 꾸라이시 족장들과의 10년간의 평화 불가침 조약을 18개월 만에 파기하고, 1만 명에 달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핍박했던 꾸라이시족을 공격하여 메카를 점령했다. 메카를 점령한 무함마드는 카바 신전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알라만이 유일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아라비아 전역으로 이슬람을 확장했으며, AD 632년에 이제 열여덟 살이 된 그의 부인 아이샤의 병간호를 받다가, 아이샤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다.¹⁰

3) 이슬람의 경전, 꾸란

꾸란은 무함마드가 AD 610년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23년 동안 특별한 환상으로 받았다는 이슬람의 책이다. 꾸란의 본래 의미는 낭송(recitation), 혹은 읽기라는 말인데, “읽을 거리”, 또는 낭송할 “텍스트”를 가리킨다.¹¹ 꾸란은 114개의 장과 6,236개의 절로 단어 수는 약 8만여 개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편집된 것은 칼리프 오스만(AD 644-656년) 치세 중반경이며 그 당시의 텍스트가 그대로 현재까지 전해져 온다. 꾸란의 각 장의 길이는 3절에서 286절까지 다양한데, 제1장 개경장을 제외하고, 가장 긴 후기 계시가 꾸란의 전반부에 오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장은 꾸란의 후반부에 자리한다.

초기 꾸란 해설가들은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받은 계시를 메카 계시(86개 장)라고 부르고, 메디나 이주 후 받은 계시(28개 장)를 메디나 계시라고 불렀다. 꾸란에는 성경의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예언서들에서 나오는 내용이 약 60퍼센트, 신약에서 나오는 내용이 약 8퍼센트 정도가 들어있

10) 마크 가브리엘, 『예수와 무함마드』 이용중 역, (서울: 지식과사랑사, 2009) 93-94.

11) 공일주, 『코란의 이해』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2008) 3.

다.¹² 그렇지만 그 내용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기록된 것이 일부 있으나, 아주 다른 뜻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인물이나 주제가 혼동되어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기독교에서의 의미와는 결코 같지 않다. 발음과 표기가 같으나 의미가 다른 말이라는 동음이의어(同音異意語)라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유사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꾸란은 이슬람 세계에서 한 무슬림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지침서인 동시에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 된다.¹³ 꾸란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타우히드(tawhid)’ 즉 알라가 한 분이라는 신의 유일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모든 무슬림은 꾸란에 기록된 신의 진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이런 행위는 이슬람(한 분 알라에게 복종)과 쿠프르(불신)를 구별하게 해 준다. 그런 꾸란의 진리가 증거되는 사회는 AD 622년에서 AD 632년까지 무함마드와 그의 교우들이 만든 메디나에서의 공동체(움마)에 잘 나타나고 있다.¹⁴

꾸란은 모든 종교적 문제의 최종적인 준거로 간주되어진다. 즉 신앙의 기본교리, 윤리적 행동의 원리, 사회와 정치의 경제 활동의 안내서 역할을 한다. 꾸란은 이슬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책이다. 이슬람의 교리, 종교의식, 윤리법이 모두 이 꾸란에서 나온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꾸란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꾸란 번역본은 꾸란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랍어가 이슬람 종교의 언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꾸란 1장은 전 세계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랍어로 배워 아랍어로 암송하고 있다.

12) 박요한, 『꾸란 쪽 성경, 성경 쪽 꾸란』 (서울: 코람테오, 2011) 22.

13) 이희수, 『이슬람』 (서울: 정아출판사, 2011) 154.

14) 공일주, 『코란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8) 4.

4) 이슬람의 신앙과 의무

이슬람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명확하고 분명한 핵심적인 신앙과 행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으며, 알라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여섯 가지의 신앙과 이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서 실천해야 할 의무사항인 다섯 가지의 행위를 말한다. 이것을 알기 쉽게 육신오행(六信五行)¹⁵⁾이라고도 한다.

이슬람의 여섯 가지 신앙은, ① ‘알라’에 대한 믿음으로, 알라는 한 분임을 믿는다. 이것이 유일신 신앙이다.¹⁶⁾ 알라는 단일신이며, 창조주이고 심판자이며 전능자이며 영원하고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갖고 있지 않다.¹⁷⁾ ② 천사에 대한 믿음으로, 천사는 알라가 창조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 천사는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권위가 없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알라에게 청원할 권한도 없다. ③ 경전에 대한 믿음으로, 알라가 인류에게 104권의 경전을 주었는데, 모두 소실되고 4권의 경전만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즉 모세의 율법(Taurat), 다윗의 시편(Zabur), 예수의 복음서(Injil), 무함마드의 꾸란(Quran)으로서, 꾸란만이 최후의 온전한 진경이라고 믿는다. ④ 선지자에 대한 믿음으로, 특별히 6명의 선지자들에게만 알라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곧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이다. 그리고 무함마드가 최고, 최종의 선지자이자 메신저라고 믿는다. ⑤ 부활의 날과 심판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며,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그 무게가 달아서 그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나, 심판의 날까지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15) 한국기독교법교단 이슬람대책위원회, 『이슬람을 경계하라』 (서울: 대성인쇄, 2010) 69.

16)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대서출판사, 2012) 149.

17) 유해석,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116.

갖지 못한다. ⑥ 숙명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알라만이 인간의 행위와 운명에 대한 유일한 결정권을 가진다고 믿는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전적으로 그 책임이 알라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슬람의 여섯 가지 신앙의 결과로서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5대 행위가 무슬림들에게 신앙의 기초와 뼈대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다.¹⁸⁾ ① 마음과 입술로 신앙 고백하기(Shahadah: 샤하다)로서,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라고 아랍어로 외우는 것이다. 아랍어로는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룰라”이다. ② 하루 다섯 번,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기도하기(Salat: 썰라트)로서, 일출 직전 새벽, 정오, 늦은 오후, 일몰, 그리고 밤에 기도해야 한다. 이 하루의 다섯 번 기도는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지 않는 옳은 길로 가게 해달라는 내용의 개경장(꾸란 1장)을 최소한 17회 암송한다. ③ 일년에 한번 라마단(이슬람력 9월) 기간에 28일간 연속 금식하기(Sawm: 사움)로서, 흰색과 검은색을 구별할 수 있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한다. 무함마드가 첫 번째 계시를 받은 때가 바로 이 라마단 달, 즉 금식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④ 자기 수입의 일부분 즉 1/40(2.5%)을 기부하기(Zakat: 자카트)로서, 구제금은 무슬림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실천적인 선행으로서, 각 개인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다. ⑤ 일생에 최소한 한번 메카로 성지순례 가기(Hajj: 하지)로서, 이슬람력으로 12월 8일에서 12일에 행해지며, 성지순례를 할 만한 건강이나 여행할 만한 돈을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⑥ 이슬람 종파에 따라서, 지하드(Jihad)를 의무사항으로 행한다. 무슬림으로서 군인이 될 만한 신체와 온전한 정신을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18) 클라우트 외, 『이슬람교 바로 알기』 박용찬 외 역, (서울: 그리스도 예수 안에, 2016) 37.

의무사항으로서, 이슬람 세계관에 의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거나 알라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알라의 적으로 여기고 그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말한다.

5) 소결론

이슬람 종교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제까지 살펴보았는데, 과연 ‘이슬람은 종교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종교의 사전적 의미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이다. 그런데 이슬람은 법을 중시하는 종교로써 특정 의식과 법을 준수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슬람은 일종의 집단윤리와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극단적인 이슬람 신자들은, 종교란 알라에 대한 신앙과 무함마드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꾸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대 중반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 기독교계와 전 세계에 알려진 샘 솔로몬 박사는 이슬람은 종교라기보다 하나의 시스템, 즉 체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슬람’은 서양에서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종교’ 또는 단순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총체적인 시스템’이다. 종교적인 용어의 옷을 입은 사회 경제적, 사회 교육적, 입법적, 사법적, 그리고 군사적인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 정치적이고 사회 종교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구성원들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 비 무슬림들과의 관계까지 통제하는 규율들을 가지고 있다.”¹⁹

이슬람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종교는 한 사람의 전체적인

19) 샘 솔로몬, 『모스크』 도움 번역위원회 역, (서울: 도움, 2008) 22.

삶 속에서 작은 일부분을 차지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종교에 열심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적인 것이다.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고, 또 종교 활동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행해진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 종교로서의 ‘이슬람’의 의미는 비무슬림권 국가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큰 체계 속에서 개인의 삶이 아주 작은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슬람 세계관에 따르면 종교가 결국 전부이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규율에서부터 공동체의 큰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이 종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에 대한 인식

“감리교회(監理教會, Methodist Church)는 성서를 중심으로 한 이성, 전통, 체험을 기독교의 근간으로 이해하는 복음주의적이며 경건한 신학적 입장을 가진 개신교 교파로 개신교 공교회주의를 따른다.”라고 구글 검색에서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감리교회, 존 웨슬리 신학과 감리교 신앙과 제도를 따르는 개신교 교단으로 감리교 연합체인 세계감리교협의회 정식 소속 교단이다.”라고 위키 백과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을 바라보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은 1997년에 개정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사회 신경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 신경 서문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감리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사회 신경을 채택하고 이를 신앙의 실천적 목표로 삼아,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는데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안고 있는 새로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의 사회적 삶의 새로운 실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감리교인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생태적 환경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²⁰

그리고 11가지의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9항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는다. 또한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타 종교와 공동 노력한다.” 이 항목에서 “타 종교와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은 이슬람교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리회의 신앙고백 여덟 가지에서 일곱 번째는,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²¹라고 되어 있다. 이것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위해서는 이슬람교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교를 바

20)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2019년)』 (서울: 도서출판 kmc, 2020) 56.

21) 전명구, 54.

라보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검토하고 정리하여, 이슬람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자 한다.

1)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가?

이슬람(islam)이란 단어는 ‘아슬라마(aslama)’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복종하다’ 또는 ‘스스로 항복하다’는 의미이다. 이 어휘가 하나님의 권리와 연계되어 사용된다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이다.²² 이슬람은 종교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이슬람을 믿는 신자를 무슬림(Muslim)이라고 부른다.²³ 이슬람이란 단어는 복종, 항복이라는 뜻이고 무슬림은 항복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다. 복종하는 그 대상은 알라(Allah)다. “이슬람이 ‘평화’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아랍어 사전이나 이슬람 전문 사전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아랍어 사전에서 이슬람은 ‘복종 또는 항복’의 뜻이다.”²⁴

이슬람의 초기부터 사용되었던 무슬림들의 인사인 “앗쌀라무 알라이쿰”의 의미를 통해서도 이슬람은 평화라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단어이다. 아랍어에 정통한 공일주 박사는 유튜브에서 “앗쌀라무 알라이쿰”에 대한 무슬림 강연자의 네 가지 설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는 ‘당신은 나로부터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뜻이라고 하며, 너희들은 나에게서 어떤 해악과 증오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이라 한다.

“두번째는 무슬림들에게 앗쌀라무 알라이쿰은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

22) 자말루딘M.자라부즈, 『초보 무슬림을 위한 길잡이』 최영길 역, (서울: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대학교 동번역센터, 2013) 17.

23) 박요한, 『꾸란 속 성경, 성경 속 꾸란』 (서울: 코람데오, 2011) 22.

24) 공일주, “교황의 평화 메시지와 무슬림의 ‘앗쌀람’” 『재외동포신문』 (2021.3.15)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69>

란 뜻이 아니고, ‘모든 해악(불운, 질병, 악)에서 알라가 당신을 보호해주기를 빕니다’라는 기원의 뜻이었다. 쌀람의 어근인 <s, l, m>는 동사에서 ‘해로움이 없다, 안전하다’의 뜻을 갖는다. 질병에서, 사람들의 악에서, 그리고 마음의 병에서 지켜주길 빈다는 것이다. 세 번째 개념 앓쌀람은 알라의 여러 이름들 중 하나이므로 앓쌀라무 알라이쿰은 ‘알라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는 자(지켜주는 자)’라는 뜻이다. 네 번째 개념은 당신은 악과 손실과 결함을 피하고 당신에게서 완전함과 좋은 것을 내가 볼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슬람 문헌에 기록된 앓쌀라무 알라이쿰의 개념에서도 ‘평화’라는 의미는 없다.”²⁵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는 말하기를, 이 인사는 무슬림들 상호 간에만 하는 것이지,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인사는 아니라고 하며,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이 인사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한다.

그런데 이슬람 세계에서 평화는 인간이 알라에게 무조건 항복하며 순종하는 데서 온다고 말한다. 복종을 통한 평화의 추구는 계급과 인종, 피부색과 빈부를 초월한 모든 인류의 공통의 목표라고 말한다. 이는 나아가 형제애라는 인류의 평등의식을 고양시킨다. 이 땅을 창조하고 전지전능한 알라의 모든 명령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들이 행하는 모든 율법적 행위들은 그를 명한 알라의 뜻이고 그 알라의 뜻에 순종하면 알라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갖고, 그렇지 않으면 알라의 진노를 사게 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알라의 계시인 꾸란에 적힌 것을 행함이 알라를 기쁘게 하여 그로 인해 이 세상도 평화로워진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알라를 따르는 무슬림으로 채워져 이 지구가 알라의 법, 이슬람 법 아래 지배되어야 함이 알라의 뜻이며 진정한 평화를

25) 공일주, “교황의 평화 메시지와 무슬림의 ‘앓쌀람’ ” 「재외동포신문」 (2021.3.15) 3-4.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69>

향한 길이라고 무슬림들은 말한다.

오늘날 무슬림들이 종파적 갈등과 사상적 혼란 속에 살면서 이슬람 문화가 하강 곡선을 긋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 무슬림들은 꾸란과 하디스(무함마드의 말, 행동,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동의한 것)를 잘못 해석하여 극단적인 사상과 지하드를 하는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하드는 이슬람이 이기도록 무슬림들이 그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성전(거룩한 전쟁)이란 뜻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오늘날 극단적인 사상과 과격한 이념을 가진 무슬림, 폭력적인 지하드를 하는 무슬림, 기독교인을 ‘알라를 믿지 않는 자’ 또는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을 두는 자’로 규정하는 무슬림 등의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바르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온건한 이슬람을 지향하면서, 이슬람의 다섯 가지 행위를 통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단순하지는 않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도 종교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지금도 기독교인이 세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저지르는 죄를 보고 들을 때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비 기독교인에게 묻는다면 그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또 그의 답은 얼마나 정확하며 객관적일 수 있을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가? 이슬람은 단면으로만 볼 수 없는 여러 면이 존재하는 종교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여러 사실들이 있다. 평화주의 무슬림들이 분명히 다수로 존재하지만, 이 사실이 이슬람 자체를 평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슬람은 창시자 무함마드가 살아 있는 동안 결코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1,400년을 이어오는 그들의 역사 속에도

평화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종교이기 때문이다.”²⁶

2)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은 하나님의 계시인가?

꾸란은 전후모순(前後矛盾)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은 신·구약 성경이 변질된 것과는 달리, 꾸란은 오리지널 원형 그대로 보존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한다. 전혀 오류가 없다는 것이어서 꾸란 번역조차도 상당 기간 허용하지 않고 지금도 아랍어로 된 꾸란만을 이슬람의 경전으로 여긴다. “이슬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꾸란은 천상에 원본이 있으며,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완벽한 경전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꾸란으로 신구약 성서의 진위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⁷

그러나 꾸란에는 사실적인 오류들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계시도 많이 있다. 꾸란 28:6-9, 40:36에서는 성경의 모세를 의미하는 무싸와 하만이 동시대 인물로 등장²⁸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의 인물이 아닌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모세가 출애굽한 연대는 B.C. 1446년과 B.C. 1229년 두 가지의 설이 있고, 하만이 등장하는 에스더서는 바사의 왕 아하수어로 왕(B.C. 485-464년 재위)이 통치한 시기로서 동일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시대가 뒤죽박죽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없는 사건으로서, 메카의 카바 신전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 파괴되었던 것을 이브라힘과 이스마일, 즉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재건축하였다는 것이다.²⁹ 이 외에도

26) Howard Shin, 『평화의 탈을 쓴 혈전의 종교 : 이슬람』 Eunice Choi 역, (서울: 크리스천 언론인협회, 2016) 26.

27) 이만석, 『베일 벗긴 이슬람』 (서울: 4HIM, 2015) 108.

28) 박요한, 『꾸란 속 성경, 성경 속 이슬람』 (서울: 코람테오, 2011) 157-158.

29) 박요한, 142.

꾸란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이름과 사건들이 있으나 그 내용의 의미와 전개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고 결론도 다른 것들도 있다. 꾸란의 이브라힘이 무슬림이었고, 알라의 반려자였으며 우상을 파괴하였던 일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상을 파괴한 사건은 사사기의 기드온에서, 화형 처벌 사건은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다.³⁰⁾

꾸란은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 혼동을 초래하는 모순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은 진리이며 신구약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꾸란 3:3) 했다가, 성경은 변질된 것이라고(꾸란 5:13) 말을 바꾸고 있다. 또한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꾸란 2:256)고 계시하고 나중에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이라(꾸란 8:12, 9:5)고 하니 혼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들 때문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해지니 무함마드는 알라께서 “질문 금지령”을 내리셨다고 했다.³¹⁾ “믿는 자들이여, 분명한 것은 묻지 말라 했으니 그것이 오히려 해롭게 하느니라. 또한 꾸란이 계시되는 것을 묻는다면 이는 더욱 너희들에게 해악이라 ~.” (꾸란 5:101)

꾸란에는 알라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준 메시지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없다. 무슬림은 꾸란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라의 직접적인 메시지이며, 꾸란의 처음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두가 알라의 말씀이라고 믿는다.³²⁾ 꾸란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알라와 인간으로서 주인인 알라와 인간의 책임이다. 창조자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자유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 알라는 정말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인간의 책

30) 박요한, 116.

31) 이만석, 『베일 벗긴 이슬람』 (서울: 4HIM, 2015) 101.

32) 한스 쾰, 『이슬람』 손상현 역, (서울: 도서출판 「시와 진실」, 2012) 344.

임에 달려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모든 무슬림의 일상, 나아가 정치의 세계까지 규정하는 핵심 질문이다.

이상과 같은 꾸란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점들을 통해서 볼 때, 문맹자 무함마드가 구약성경과 유대교 및 기독교에 대한 그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했던 종교적 가르침을 당대 혹은 후대에 측근들이 임의로 기록하고 편집한 것이 곧 꾸란이라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가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神)인가에 대해서는, 먼저 무함마드가 태어났던 당시 아라비아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랍 부족들은 각 종족마다 각기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데, 메카에는 약 360개의 우상들을 모아 두었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검은 운석을 카아바 신전 한 쪽에 박아 놓고 그 신전을 돌면서 제사 의식을 치렀다고 한다. 이들 종족 중에는 달(moon) 신을 알라라는 이름으로 섬기는 종족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무함마드가 받았다는 꾸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서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나(무함마드)는 이 도시(메카)를 성역으로 하여 주신 주님만을 경배하라 명령받았으니 모든 것은 그 분의 권능 안에 있노라. 또한 나는 알라(Allah)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노라.”(꾸란 27:91, 최영길 역)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는, “이 구절은 히즈라 5년 경의 계시로 무함마드와 무슬림들이 메카의 다신교도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내린 계시”라고 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알라(Allah)는 영어 번역에는 “the Lord of city”라고 되어 있고 꾸란 106:3에도, “그들로 하여금 이 집(메카의 카아바 신전)의 주님(알라)을 섬기도록 하라(So, let them worship the Lord of this house)”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알라는 메카라는 도시에 있는 이교도들의 신(神)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함마드의 아버지 이름이 압둘라(Abdullah)였는데, 이는 압드(Abd 종, 노예)라는 단어와 알라(Allah)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알라의 종이라는 뜻이다. 무함마드의 부친이 알라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 종족이 무함마드 탄생 전에도 알라(Allah)라는 신을 섬겼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꾸란과 이슬람의 경전인 하디스(Hadith)의 여러 구절들과 다른 자료들에서도 이슬람의 알라(Allah)가 아라비아의 종족 신들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³³

이슬람의 알라(Allah)가 무함마드 당시의 종족 신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를 내세워 기독교의 하나님과 알라(Allah)가 같은 신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 하고 영어로는 “God”이라 하듯이, 아랍어로는 “알라(Allah)”라고 부르는 것이며, 언어는 달라도 뜻은 같다는 것이다. 둘째, 성경에서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을 “엘”, 혹은 “엘라”, “일라”라고 불렀는데, 그 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아랍어의 정관사 알(Al)을 붙이게 되면 “알엘라”, “알일라”가 되는데 이것이 변형되면서 “알라(Allah)”가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아랍어 성경에 보면 신의 명칭을 “알라(Allah)”라고 번역해 놓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노아의 홍수를 보내고 아브라함, 모세, 예수 등의 선지자를 보냈다고 하는 이슬람의 알라(Allah)라는 신(神)은 성경의 내용과 같으므로 같은 신이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아랍권에서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알라’라는 신(神) 명칭을 같이 사용하더라도 이는 동명이신(同名二神)일 뿐이다. 이슬람의 유일신

33) 이만석, 『베일 벗긴 이슬람』 (서울: 4HIM, 2015) 28.

이라는 알라, 즉 아랍어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은 같다고 하지만, 그 속성은 완전히 다른 것을 꾸란이 증언하고 있다. 꾸란은 알라는 셋이 아니라고(꾸란 5:73) 하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꾸란 5:75)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부인(꾸란 4:157, 4:158)한다. 꾸란에 나오는 이씨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고 하늘로 올리어 갔으나 성육신하지 않았고 ‘알라’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 이씨는 오직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더구나 이슬람 전승에서는 그 이씨가 재림하여 십자가를 부수고 돼지들을 잡아 죽이고 이 땅에 이슬람을 전한다고 하니 꾸란의 이씨는 무슬림이지 성경의 예수가 아니다. 그리고 알라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적으로 여기는 신(꾸란 5:51)으로 기록하고 있다.

4) 이슬람과 기독교는 뿌리가 같은 아브라함의 종교인가?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거짓 홍보의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종교를 이삭을 통해서 전수받은 것이 기독교인과 유대인이며, 이스마엘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설명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슬람의 신 알라(Allah)와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성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무함마드를 통해서 꾸란을 내려 보내, 이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교를 회복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무슬림들의 근거 없는 이 주장에 대해서,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슬람의 거짓 홍보를 대신해주고 있다.³⁴

34) 이만석,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서울: 4HIM, 2013) 37.

따라서 성경을 근거로 이슬람의 주장에 대한 거짓과 기만 전략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꾸란에는 아브라함(Abraham)을 아랍어로 이브라힘(Ibrahim)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브라힘의 아버지 이름은 아자르(Azar)이며(꾸란 6:74),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창 11:31-32)로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99세에 개명한 것이지만, 이브라힘은 청년 때부터 불리던 이름(꾸란 21:60)이고, 아브라함은 불 속에 던져지거나 메카에 간 일이 없지만, 이브라힘은 불 속에 던져진 것을 알라께서 건져주시고(꾸란 21:68-69) 메카에 가서 신전을 건축한 사람이라(꾸란 2:125-127)고 한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이스마일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하는데,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창 21:21)에서 애굽 여인과 살았고,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꾸란은 이브라힘의 족보에 이스마일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이브라힘과 이스마일과 이스학의 신인 알라(꾸란 2:133)”, “이브라힘과 이스학과 이스마일과 야으쿱(꾸란 2:136)”이라고 하는데, 체계적인 족보라면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의 아들인 느바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경에는 이삭이 젖을 떼던 때(창 21:8) 이스마엘이 17세쯤에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났다고 했으나, 무함마드 사후 200여 년이 지나 편집된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는 젖먹이 이스마일이 메카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의 거짓 주장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아랍인들의 종교로서 구상하고, 성경의 이스마엘을 이슬람의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 이전의 어떠한 문헌 근거에도 무함마드가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과 혈통 상으로 관계가 있다는 자료가 없으며, 또 이슬람에서 근거로 내세우는 하디스는 무함마드 사후 2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

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종교가 아니라, 360여 개의 신들이 있던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태어난 꾸라이시 종족이 섬기던 달(Moon)의 신, 즉 알라를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메카로 끌어들이어 창시한 종교인 것이다.³⁵ 무함마드가 아랍어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여, 오늘날에도 다른 언어로의 번역본은 이슬람의 경전이 아니고 아랍어로 된 꾸란만을 이슬람의 경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도 바로 아랍인들의 종교라는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인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무함마드가 에비온파³⁶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기에 무함마드를 배교자라고 불렀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일신론적 이단으로 이슬람을 이해했다.³⁷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을 오늘날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이슬람은 기독교의 이단 분파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단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한다면 이슬람은 결코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할 수 없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異端)’이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하이레스시스(hairesis)의 번역이다. 하이레스시스는 우리말 성경에서 대부분 이단으로도 번역되었지만, 전후 문맥에 따라 파, 당파, 편당으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는 이단이라는 용어가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기본적인 교리상의 잘못을 공공연하게 채용하거나 외부에서 교회에 거짓된 교리를 가져와 교회의 기초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를 칭했으며,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당을 고집하는 무리, 그리고 정통 유대교의 분파이거나 유대교에

35) 이만석, 47.

36) 에비온파(Ebionism)는 초기 기독교 사상의 하나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았지만, 그의 신성과 처녀 탄생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율법과 의식을 따를 필요성을 주장했다. (출처: 위키 백과)

37) 유해석,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다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222.

서 배척하는 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³⁸ 그리스의 고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고집’ 또는 ‘선택’을 의미하였는데, 통상적이고 정통적인 견해와 ‘다른 견해’를 선택하여 이를 고집하는 ‘당파’나 ‘종파’의 뜻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³⁹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발간한 『감리교회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는, 1. 이단이란 무엇인가?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다. 1) 이단(異端)은 사이비 종교(似而非 宗教), 사교(邪教), 유사종교(類似宗教)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이단은 특별히 ‘기독교 정통신학을 벗어난 잘못된 교리나 분파’를 말한다. 여기서 사이비 종교(似而非 宗教)는 ‘종교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가 아닌 것’을 뜻함으로써 가짜종교를 칭하며, 사교(邪教)라는 말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릇된 종교’를 뜻하며, 유사종교(類似宗教)는 ‘겉으로 같지만 내용은 거짓인 종교’를 말한다고 소개하고 있다.⁴⁰

기독교의 이단이라는 것은, 정통(Orthodox) 기독교의 개념에 근거하여 기독교 성서의 중요한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바른 전통과 바른 진리와는 다르고 잘못되게 전하는 분파의 거짓 교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비(似而非)라는 용어는 ‘유사한 것 같지만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기독교 성서의 가르침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거짓된 교리를 말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2004.8.27)의 규정에 따르면⁴¹, “이단이란 본질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로서, 성경과 역사적 정통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을 말한다. 사이비란 이단적 사상에 뿌리

38) 허호익, 『이단은 왜 이단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19, 19-20.

39) 허호익, 28.

40) 전용재, 『감리교회 입장에서 본 이단문제』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2014) 11-13.

41) 허호익, 『이단은 왜 이단인가』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89.

를 두고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한국 교계에서는 이단(異端)이란 한자어를 극단(極端)과 관련시켜 ‘끝이 다른 자’라는 뜻으로 해석하지만, 원래 이단의 단(端)자는 바르다, 곧다, 옳다는 뜻이므로 이단(異端)은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⁴² 인터넷 다음(daum) 한자 사전에도, 이단(異端)에서 한자의 단(端)은 ‘바를’ 단, ‘끝’ 단이라는 설명과 함께 ‘바르다, 바르게 하다. 끝, 실마리, 처음’의 뜻이 있다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알려진 바, 이단(異端)은 ‘시작은 같지만 끝에 가서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바르지 않은 거짓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하고 정리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단은 동일한 종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아니므로 불교나 유교처럼 타 종교를 지칭하는 이교(異敎)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⁴³

6)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슬람에 대한 주요 주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함마드는 당시 중동지역에서 보편화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아라비아 부족사회를 통합하는 사회 변혁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한 것이 곧 이슬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메디나로 이주한 것을 히즈라(hijra : 이주)라고 하며 이슬람력의 시작으로 이슬람의 원년(‘0’년)을 나타낸다. 메디나에서 무함마드는 여러 아라비아 부족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부족들을 포함한 공동체에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 종교적

42) 허호익, 28.

43) 허호익, 79.

지도자로서 만이 아니라 점점 더 군사적인 지도자를 자처함으로서, 아라비아 일대의 통치자로서의 지위까지를 획득함으로서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인지도를 증가시켰다.⁴⁴

또한 무함마드는 아랍인들을 위한 아랍어로 계시한 꾸란을 받았다고 했다. 꾸란 42:7은 “~ 아랍어로 꾸란을 계시하나니 이로하여 그대가 어머니의 도시(메카)의 주민들과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 했으며, 꾸란 43:3은 “하나님(알라)은 그것을 아랍어로 계시하였으니, 이로하여 너희(아랍인들)가 이해하고 배우도록 함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슬람의 권위를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다고 하면서, 꾸란 3:64은 “성서의 백성들이여, 우리들이나 너희들을 막론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오라하여 ~”로서,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알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꾸란 2:113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이 진실이 아닌 것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며 성경을 읽고 있도다”라고 말한다. 꾸란 2:75 “~ 그 말씀을 왜곡하도다”와 꾸란 5:13 “~ 그들은 말씀을 위조하고 ~”에 근거해서, 성경이 왜곡되고 위조되었다고 함으로서, 무함마드가 아랍어로 받았다는 꾸란만이 정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슬람이 곧 아랍 부족을 위해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키 백과사전에는, 종교(宗教)란 규정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나 문화적 체계(cultural system)를 말한다고 소개한다. AD 6세기에 출범한 이슬람은 1,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아라비아 반도에 국한된 기독교의 어떤 분파나 파당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민족과 국가(57개국 이슬람 협력기구 회원)들이 신봉하면서 대단

44) 크리스티네 쉬르마허, 『이슬람과 기독교 교의』 김대옥·전병희 역,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10) 37-38.

한 다양성을 지닌 방대한 무슬림 인구(16억 명)의 거대한 정신적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문화 체계가 되었다. 이슬람은 아라비아에 이미 있었던 애니미즘과 함께 유대교와 기독교와 기타 종교의 영향권에서 형성된 종교이다.⁴⁵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기독교나 유대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종교”임을 강조한다.⁴⁶

비이슬람 세계관에서 종교는 단지 삶의 일부이나 이슬람 세계관에서는 종교가 전부이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위생관리에 관한 규율에서부터 공동체의 큰 이슈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것이 종교의 가르침에서 비롯된다.⁴⁷ 이와 같이 세계관이 다른 종교라고 할지라도,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이 신봉하는 이슬람교를 타 종교로 바라보고,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타 종교와 공동 노력한다는 감리회의 사회신경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는다는 감리회의 신앙고백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4.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에 대한 대응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슬람이라는 타 종교에 대해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차원

45) 전호진, 『이슬람 종교인가? 이데올로기인가?』 (서울: SFC 출판부, 2002) 81.

46) 전호진, 80.

47) 샘 솔로몬, 『모스크』 도움 번역위원회 역, (서울: 도움, 2008) 21.

에서 이슬람을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에 대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선교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1) 이슬람연구원 설립과 이슬람대책위원회 신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더불어, 무슬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효과적인 선교 대책을 강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먼저 감리회 총회 기관으로서 이슬람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또한 이러한 전문 연구기관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감리교회에 전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로서 이슬람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모든 연회와 지방회, 개체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2015년 11월에 선교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이슬람연구원을 설립했으며, 2016년 5월에 제32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기관으로 인준을 했으며, “이슬람은 경계하되 무슬림은 사랑하라”는 슬로건을 걸고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2017년 7월에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의 하나로 “감리회 이슬람대책위원회(신설) 장정개정 청원”을 하여,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의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되어서 통과, 공포되었다.

감리회의 이슬람대책위원회는 각 연회 감독이 해당 연회에서 추천한 1명을 위원으로 편성하고, 감독회장이 위원장, 선교국 총무가 부위원장, 선교국 국내선교부장이 서기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 총회 기관 인준을 받은 이슬람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용(2019년 교리와 장

정 [2817] 2조)하며, 이슬람연구원의 원장과 본부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슬람대책위원회는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로서, 이슬람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교육 활동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국내 이주 무슬림과 한국인 무슬림들에 대한 선교 정책과 전도 방안을 수립하고, 각 연회 및 각 지방회, 개체교회의 국내 선교 활동과 연계 및 통합하여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는 직무를 부여했다.

2) 이슬람 연구원과 이슬람대책위원회의 활동 강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감리회 본부의 이슬람대책위원회와 총회 기관인 이슬람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해서, 이슬람에 대한 정확한 계몽 교육을 하여 교회와 성도가 이슬람의 실체를 바르게 인식한 가운데 무슬림을 구원의 대상으로 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첫째, 객관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한 이슬람 실체와 무슬림 선교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상호 관점에서 객관적인 분석과 역사적인 평가를 통한 연구를 하며, 국내 이슬람 기관의 포교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국내 무슬림 대상의 실태 조사, 이슬람권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한국을 이슬람화하기 위한 이슬람의 전략을 분석하고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선교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고 발전시킨다.

둘째, 조직적이고 실제적인 교육과 계몽 활동을 동반한 국내 무슬림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실체와 국내에 확산되는 이슬람의 실상에 대해서 감리회의 조직(연회, 지방 사경회, 자치 단체 기관 등)을 통해서, 연수 교육(정회원, 장로 및 권사, 선교사 지원자 등)이나 공개 세미나, 포럼, 특별 강좌, 신문, 홈페이지 활용 등으로 계몽하며, 교회 학교의 대상별 교육 교재와 무슬림 전도 책자,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 연구지 등의 출판 활동을 통

해서 교육하고, 다양한 조직과 방법으로 무슬림 전도 활동을 실천한다.

셋째, 타 교단, 선교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고 범교단 차원에서 국내의 이슬람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다. 타 교단과 전문 선교단체의 이슬람 연구기관이나 대책위원회와 교류하며 이슬람권 선교 및 무슬림 전도 교육 과정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범교단 차원에서 방송 및 언론 등 매스컴 활동을 통한 이슬람의 실체 계몽에 적극 동참하며,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이슬람 미화 정책과 이슬람 종교 편향의 정부 다문화 정책 및 지원 등에 대한 저지 활동을 한다.

3)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향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슬람권 선교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교 전략가의 두 가지의 조언을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먼저 한 가지는, 장로교 합동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3차 GMS 이슬람권 선교 전략회의 및 포럼의 결과물로 “이슬람 현장 보고서” 『우리의 이웃인가?』란 단행본을 출판했는데, 신현수 교수는 “한국 선교의 이슬람 전략적 접근”이라는 장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⁴⁸

첫째, 한국교회가 서구 교회와 동일시하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교회는 이 시대의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는 태생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이슬람권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서구와 미국의 영향으로

48) 신현수, “이슬람 선교에 대한 거시적 접근으로서의 ‘지역 선교학’에 대한 연구” 『이슬람 현장 보고서: 우리의 이웃인가?』 (서울: 지앤넷, 2017) 29-32.

부터 벗어나, 한국적인 신학적 사유를 통한 성경적 진리와 주장들을 정립해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이슬람의 심령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성경적 진리를 분명하게 정립하여, 한국교회의 선교적 행위가 성경에 근거한 순수한 복음적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서구 교회와의 동일시로부터 벗어나는 길일 것이다. 기독교가 역사적 굴절로 인하여 서양의 종교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거부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수난과 박해의 근대사적 경험을 이용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세계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고난과 순교의 시기를 아픔으로 간직한 채 교회 역사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역사는 박해와 수난을 당한 지역에 복음을 전할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접착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수난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서구 열강의 침략과 정치적 욕망 속에서 격랑을 겪었던 약소국의 아픔을 복음의 접착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한국교회가 한국의 문화, 교육, 경제 분야의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교육과 경제적인 분야에 뒤처진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접착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류 유행을 통한 문화적인 접근을 이슬람권 선교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의 세계적인 유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화적인 저변 확대를 낳는 분야이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문화적인 접착점이 필요한 지역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음식과 예술 분야, 특히 음악 분야는 지역적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

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에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하여 비복음적 요소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와 적용 범위, 그리고 한계를 인식하여 선용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2020년 총회 이슬람 아카데미에서 발제한 총신대학교 김성욱 교수의 “한국교회의 이슬람선교에 대한 바른 자세”⁴⁹⁾를 소개한다.

첫째로, 다문화 이주 시대에 이슬람 유입에 대한 분명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이다. 한국 사회가 단일인종문화에서 다문화 사회로, 단일인종의 국가에서 다인종 국가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무슬림에 대한 선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선교 역사에서 나타난 이슬람의 주장들에 대해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그 실체를 파악해서 선교의 걸림돌들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로, 이슬람 포비아에서 이슬람을 선교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이슬람을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슬람의 술수와 모략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로,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선교적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 한국교회의 이슬람 선교전략으로 전문인 선교(Tentmaker Mission),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 그리고 난민 선교가 강력하게 추천되고 있으며, 이주 무슬림에 대한 다문화 선교를 통해 다시 본국으로 귀국해서 복

49) 김성욱,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이슬람에 대한 교회의 과제” 『2020 총회 이슬람대책 아카데미』 (서울: 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 2020) 78-85.

음 전도자로 세우는 전략도 필요하다.

다섯째로, 이슬람 선교에 대한 선교 변증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혼합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하여 성경계시의 유일성을 변증하고, 기독교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성경 중심의 선교 변증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5. 나가는 말

이 시대의 이슬람권 선교는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방법과 길을 찾기에 참으로 힘든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과제라는 것이다. 수많은 희생과 노력 가운데서도 성과가 적었던 이슬람권 선교를, 이제는 서구적 선교를 극복하고, 성경적인 성육신의 선교를 추구하는 기회로 삼는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이슬람권 선교를 정치적인 우위, 경제적인 풍요, 문화적인 우수성 등을 통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벗어나, 약함과 낮아짐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 섬김으로 사역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슬림 선교를 위한 내면적인 중요한 이슈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슬림의 다양한 눈높이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수를 마음에 심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주 무슬림에게 전도할 사역자 자원군의 핵심은 지역 교회이며 지도해야 할 지도자가 담임목사임을 인식하고 개체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어느 선교사 모임에서 “이 시대 미전도 종족의 하나가 바로 담임목사”라는 발언은 더욱 더 선교에 대

한 담임목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복음전도 대상인 ‘이슬람 종교인’ 즉 무슬림은 매우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슬림이라는 “하나의 글로벌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의 어느 지역 국가에서나 이주 무슬림과 현지 개종 무슬림들에 의해 형성된 게토(ghetto)⁵⁰ 사례는 많지만, 기존 정주민과의 평화스러운 융합이나 현지 국가 발전에 동화된 사례는 없다⁵¹는 것을 감안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50) 게토(ghetto)는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또는 소수 종교집단이 거주하는 도시 안의 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daum 백과사전>

51) 허명호, “한국내 이주 무슬림 전도방안 연구” 『이슬람 현장 보고서 : 우리의 이웃인가?』 (서울: 지오투넷, 2017) 73.

II.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 정책

1. 들어가는 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 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먼저 21세기 세계선교 동향과 한국 선교의 이슈를 살펴보고, 한국 선교의 미래 시스템과 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감리교회의 해외 선교의 미래에 대한 감리교 선교학 교수의 의견을 되새겨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 실태를 분석한 후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이슬람권 선교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

1) 21세기 세계선교의 동향과 한국 선교의 이슈

오늘날 종교 간의 긴장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 후의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을 비롯한 IS 등장과 테러, 시리아 내전과 쿠르드 족과의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특히 힌두교의 과격파들이 기독교 회를 향하여 도발하고 있고, 이슬람 국가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 교회들을 주적으로 삼고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타 종교의 도발은

기독교 선교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선교적 대안은 무엇일까? 먼저 타 종교와 그 권역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동시에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방법의 성육신적 선교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KWMA 강승삼 사무총장이 2003년 5월에 회집된 국제 선교 전략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소개한 3가지 주요 이슈들을 통해서 세계선교의 큰 흐름과 동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는 온 세계의 이슈 8가지이다. 세계화, 예수의 유일성, 핍박받는 교회, 총체적인 선교 방법, 소외/억압받고 푸대접 받는 사람들, 난민문제, 위기에 처한 어린이 문제, 미전도 종족 등이다. 둘째는 온 교회의 이슈로서, 선교 협력과 파트너십, 교회 선교 및 전도의 활성화, 직장과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의 갱신, 미래 지도자 개발, 세계 복음화, 제자로 무장화, 멘토링, 훈련 등 전도/선교를 위한 기도 동원의 문제, 미전도 종족사회에 교회 개척시 상황화의 문제, 언어·건물·예배형태·주일과 기도의 형태 문제, 제3세계 교회의 성장의 요인과 저해의 요인 등이다. 셋째는, 온전한 복음의 이슈로서, 영성 문제의 분별, 전도와 교회성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술 개발, 어린이 선교의 중요성, 세계커뮤니케이션과 삶의 가치관의 극단적 변화로 인한 문제, 극단종교분파의 사회불안조성과 테러문제, 핍박의 이슈, 그리스도인과 민족적 정체성의 이슈, 지역/부족 감정으로 교회의 분열과 분파에 대한 화해와 변화에 대한 이슈이다.

한국교회는 온 세계의 이슈와 온 교회의 이슈, 그리고 온전한 복음의 이슈에 대해 잘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선교를 추진해야 한다.

2) 한국 선교의 미래 시스템과 콘텐츠

2015년 “기감의 이슬람 선교의 현재와 우리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모인 제2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슬람권 선교 전략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한국 선교의 미래 시스템과 콘텐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국 선교가 지향해야 할 미래 시스템의 큰 방향성은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요구되며, 저비용 고효율 선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협력 선교의 시스템 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협력시스템의 개발은, 교회와 선교단체·교단 선교부·현지 교회 간의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해야 하고,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선교자원의 분산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선교지 중심의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교지 특화를 하고, 본부는 필드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감리교회의 선교신학 개발과 상황화된 전략 개발 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부대와 지원부대(MK, 행정, 케어, 인프라 구축)가 구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선교 시스템 구축과 전략적인 선교 과제 해결을 위해서, 이론 및 연구, 훈련 파송, 선교 행정, 전략, 동원의 5대 우선 집중 분야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체제 구축으로 나누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했다. 여기서는 이슬람권 선교 정책을 개발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을 선택하여 발췌하고 이를 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선교 행정’ 면에서, 2030년까지 은퇴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8-10%가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KWMA 2019년 한국선교사지도자포럼에서 발표된 통계분석에 의하면 2020년에 은퇴선교사가 1,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은퇴선교사는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선교 행정 개념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원’ 면에서, 미래 동원은 총체적 동원 개념과 이론을 발전시켜서,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버선교사 제도를 구축하여,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를 발굴하고 단기선교사로 파송하여 팀선교 전략을 구현하

는 것이 필요하다.

‘훈련 파송’ 면에서 Informal, Nonformal, Formal, Infield, On the Job 등의 각각의 상황에서 적합하게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선교훈련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트레이너들을 발굴,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 전략’ 면에서 몇 가지 권역별로 한국형 선교 전략 모델들을 발굴하여 사례화하는 것과, 전략적인 권역별 사역을 위한 권역별 및 지역별로 다양한 전략회의 및 정기 포럼을 신설하여 전략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컬리제이션(globalization)¹⁾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²⁾의 총체적 선교지의 선교 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감리교회 해외 선교의 현재와 미래

2018년 9월 감리교회 세계선교협의회 정책세미나의 한국감리교회 해외선교의 현재와 미래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 장성배 교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해외 선교사의 접근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21세기 선교의 3대 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전도, 제자훈련, 목회를 위한 선교사에 의한 선교의 축과 NGO, 비즈니스에 의한 공적 조직을 통한 선교의 축, 그리고 현지의 Needs를 채우면서 사역하는 자비량 선교의 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기존의 선교사의 축에 의한 선교만으로는 시대

1) 글로컬리제이션(globalization)은 globalization(세계화)과 localization(지방화)의 합성어이다. 세계화가 국경 개념이 허물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라면 지방화는 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글로컬리제이션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말한다. (한경닷컴사전)

2) <정희수 감독 2017년 신년 대담>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이루어진다는 선교 표어를 통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선교를 타지로 보내는 과거의 패턴을, ‘세계에서 세계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성은 선교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하나의 응답과정이라고 생각한다.

<https://www.umnews.org/ko/news/interview-bishop-hee-soo-jung>

적 상황 변화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의 축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에서 선교훈련원의 커리큘럼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인준 과정에서의 요구사항의 변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가 1980년대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해외 선교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때부터 땅 끝을 대한민국으로 끌어들이셔서 “국내 땅끝 선교”를 진행하셨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노동력의 급격한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지구촌의 세계화로 인해서 이주민에 의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가함으로써 새로운 선교 환경과 대상이 국내에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인식전환과 선교전략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대로가 확장되어 인터넷, 한류, NGO, 비즈니스 등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한국이 되었다.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선교사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한류를 활용한 선교방안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는 지구촌은 세계관, 가치관, 삶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서 파생적인 변화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은 글로벌화, 인터넷, 제4차 산업혁명, 영성, 포스트 모던, 강력한 도시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며, 각 주제에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그 전체를 엮을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세계선교를 위한 이슈들과 한국 선교의 미래 시스템과 콘텐츠 모색에서 나타난 주제들, 그리고 감리교회의 해외 선교의 미래를 위한 21세기 선교의 축과 시대 변화의 핵심 동인들을 통해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의 개념에 입각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는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슬람권 선교 정책 개발에도 적용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 실태

1)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해외 선교사 파송 역사

한국 감리교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다.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면서 1902년 인천내리교회에서 홍승하 선교사를 하와이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와 목회를 위해 파송한 것이다. 홍승하 선교사는 이듬해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현)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미주는 물론 해외 한인교회의 시작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에는 만주와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 선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의 감리교회 해외 선교는 1961년 이화여대 후원으로 중부연회에서 전재옥 선교사를 비롯한 조성자, 김은자 평신도 선교사를 파키스탄에 파송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김성욱(1965년 사라왁), 김덕화(1965년 볼리비아), 이웅균(1967년 베트남), 이성주(1970년 일본 북해도), 임홍빈(1971년 브루나이), 김덕화(1972년 일본), 이재은(1972년 미국) 목사 등이 파송되어 초창기 감리교 해외선교의 초석을 놓은 개척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또한 1973년에는 ‘세계 오메가 선교회’가 창립되어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선교사 파송에도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그리고 감리교회의 해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였다. 특히 1984년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이후, 선교 2세기를 맞이한 감리교회의 주요 선교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인식하게 되면서, 선교사 파송과 개체교회의 해외 선

교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발을 맞춰 1989년 국외선교단체협의회(현, 세계선교협의회 전신)가 구성되었고, 이어 감리교회 본부 선교국 안에 국외선교부가 설치되어 국외선교사 선발, 훈련, 교육, 파송,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되었다. 1991년 제 1회 세계선교사 대회가 개최되었고, 1992년에는 총회에서 국외선교연회가 조직, 통과되어 유럽, 태평양 지방 등 9개 지방이 참여하여 이듬해 연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선교사 파송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0년 말에 이르러서는 두 자리 숫자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마다 평균 40-50가정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선교사 인준제도 개선으로 배우자도 훈련 및 인준 과정을 필한 후 정식 선교사 자격을 갖춘 부부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 2007년에는 입법의회를 통해 선교국 내 국외선교부서의 확대 개편안이 통과되어, 부총무와 해외선교기획부, 선교사관리부로 확장되었다. 2017년에는 선교사 후원복지부를 신설하고 2018년에는 해외선교기획부는 세계선교정책부로, 선교사관리부는 세계선교사역부로 개칭하여 모름지기 21세기 세계선교를 위한 조직을 확장하고 정책 개발과 선교사 토탈 케어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한국 감리교회의 해외 선교 특징은 하와이 선교로부터 시작해서 대한 제국 말기의 시대적 상황에서 교향을 떠난 국외로 간 이민자들에 대한 디아스포라 선교에 집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를 떠난 한인들에게 다가가 이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국외의 한인교회 설립으로 이어졌고, 해외 선교사 및 목회자의 파송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기 해외 선교 역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맞이하는 외국인에 향한 선교, 특히 땅끝에서 온 무슬림들을 향한 선교를 하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국가 파송 선교사 및 사역 실태

2021년 2월에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에서 조사 및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2020년 12월 현재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 인원은 168개국에 총 22,259명으로 외국 국적의 선교사도 1,435명을 파송했다고 발표했다.³⁾

(1)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송 선교사 현황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파송 선교사는 12개 지역 79개국 737가정 1,315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선교사 파송에 대한 몇 가지 분석을 살펴보면, 먼저 교역자 699명, 평신도 616명이며, 남성 선교사 648명 여성 선교사 667명으로 나타난다.

선교사 파송 10대 상위 국가별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 다행히 이슬람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도 다수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국가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라오스
인원(명)	183	134	79	78	75	68	62	44	43	34

또한 연회별 파송 선교사 현황은 다음과 같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연회	중부	서울	서울남	경기	남부	중앙	동부	충청	충북	삼남	호남특별	미주
인원(명)	115	62	57	53	37	35	29	29	17	13	4	6

3) 국민일보(2021.3.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0537&code=23111117&cp=nv>

다음은 이슬람권 국가에 파송한 선교사들의 소속교회를 주요 국가와 연회별로 살펴볼 때, 연회별 파송 선교사와 거의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회 국가(가정)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미주
말레이시아 (33)	2	2	13	4	2	1	1	4	2	1		
인도네시아 (25)	3	4	6	4	1	4		1		2		
방글라데시 (9)		1	5	2				1				
터키 (11)	2	2	1	3				3				
키르기스스탄 (9)	2	1	2	1	1	1			1			
카자흐스탄 (8)	1	1		3		2						1

다만 특정한 교회에서 이슬람권 선교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슬람권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는 중부연회 인천서지방의 내리교회가 말레이시아에 3가정, 인도네시아에 1가정, 방글라데시에 1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같은 지방의 인천공항교회는 말레이시아에 1가정, 인도네시아에 1가정, 방글라데시에 1가정, 파키스탄에도 1가정을 파송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일산서지방의 일산광림교회가 말레이시아에 1가정, 인도네시아에 1가정, 방글라데시에 1가정을 파송하고 있고, 수원권선동지방의 충만한 교회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터키에 각각 1가정을 파송하고 있으며, 원주서지방의 원주제일교회가 인도네시아에 2가정을 파송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슬람권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한 이러한 교회에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감리회 본부의 정책 제언을 위한 의견을 듣고 받

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감리교의 해외 파송 선교사가 양적인 면에서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과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 발굴을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과 함께 자비량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를 통합한 전문인 선교사의 발굴과 육성 등의 동원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 선교사역의 확대는 이슬람권 선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 이슬람권 국가 파송 선교사 및 사역 실태

먼저 전체 파송 선교사 중에서 이슬람권 국가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선 이슬람협력기구(O.I.C : Organisation of Islamic Cooperation)에 가입한 57개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이슬람권 국가 선교사로 고려했다. 그리고 이슬람협력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지만 이슬람교 인구 분포를 고려해서 인도, 러시아에 파송된 선교사의 일부를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도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인구가 많으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외하였음.)

구분	O.I.C 국가	인도, 러시아(추산)	합계
선교사	23개국/ 129가정/ 249명 (29가정은 독신)	4가정/ 8명	25개국/ 134가정/ 257명
비고			전체 선교사의 18.2 %

* 인도: 전체 13억5천만 명(이슬람교 13%, 1억7천만 명), 전체 선교사×13%

러시아: 전체 1억4천만명(이슬람교 10%, 1천4백만 명), 전체 선교사×10%

이슬람권 국가에 파송된 감리교 선교사는 24개국 127가정의 236명으

로서 감리교 전체 선교사의 약 18%가 된다.

다음은 2018년 세계선교사역부에서 감리교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 500명의 사역 형태는 다음과 같다.

사역형태	목회	일반 교육	제자 훈련	신학 교육	사회 봉사	비즈니스 선교	스포츠 선교	문화 사역
인원(명)	277	40	50	37	46	12	9	2
비율(%)	55	8	10	7	9	2	2	0

사역형태	MK 사역	의료사역	NGO사역	선교연구	일시귀국	안식년	철수은퇴	무응답
인원(명)	3	4	2	4	2	4	5	6
비율(%)	1	1	0	1	0	1	1	1

감리교 전체 선교사들의 사역 형태는 교회개척을 포함한 목회사역을 하는데 277명(55%)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자훈련, 사회봉사, 일반교육, 신학 교육 순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슬람권 국가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역 형태도 전체 파송 선교사의 분포와 유사하지만, 이슬람권 국가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역 형태와 사역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국가		A	B	C	D	E	F	G
선교사 가정		33	22	9	9	6	7	5
사역 형태	한인목회	5	2				1	1
	협력목회	8	2	3	6	1	2	
	신학교육		9	1				3
	일반교육	2	3	2	1	3	1	
	사회봉사	6	3	3			2	
	제자훈련		1		2	2	1	1
	기타		1					

구분 \ 국가		A	B	C	D	E	F	G
사역 대상	현지인	19	20	8	8	6	7	4
	한인	5	2	1				1
	이주민	9			1			

위의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역 형태의 목회도 한인 디아스포라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으며, 현지 교회와의 협력 사역으로 하고 있다. 국가별 사역의 특성에 따라 신학교육 사역에 치우친 국가도 있으며, 사회봉사 중심의 사역 형태를 취하는 국가도 있다. 기타 소수의 가정이 사역하는 나라에서는, 비즈니스 선교와 사회봉사, 일반교육의 사역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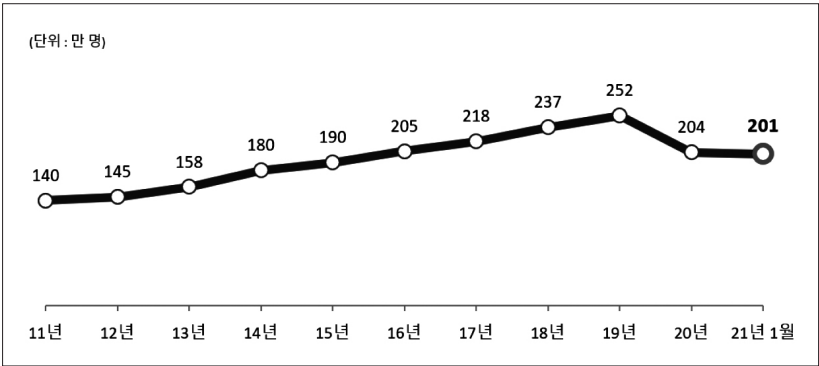
4.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슬람권 국가 출신 이주민 현황

1)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 변화

한국은 1988년 올림픽과 더불어 2002년 월드컵 이후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이 늘어났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함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해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체류하는 장기 거주자가 증가함으로서 한국 사회의 인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21년 1월호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COVID-19 상황으로 다소 감소한 상황이다. 90일 이상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등록한 외국인은 2021년 5월 말 현재 2,014,433 명으로 2019년 말 2,524,656명에 비

해 감소하였다.



체류 외국인 중에서 이슬람 협력기구(O.I.C)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우즈베키스탄 76,327명을 비롯해서 수만 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구분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인원(명)	880,897	210,907	179,841	143,964	64,825	49,940	41,118
구분	몽골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네팔	타이완	스리랑카
인원(명)	42,151	49,940	26,754	36,318	39,165	19,255	21,897
구분	캐나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키르기즈	영국
인원(명)	22,733	26,119	16,673	12,780	10,726	5,652	5,822

체류 외국인 중 등록 외국인 1,129,313명의 국내 거주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경기	서울	충남 ⁴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374,365	237,485	68,777	66,847	66,572	52,008	39,986	36,558

4) 세종특별자치시 4,988명 포함.

전남	전북	대구	제주	광주	울산	강원	대전
32,635	30,913	27,566	22,734	21,112	17,650	17,096	17,009

등록 외국인은 체류 자격(VISA)에 따라 그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취업을 위해 입국한 이주 근로자, 결혼 이민, 유학생, 일반 연수 인원보다 더 관심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D-1)	유 학 (D-2)	일반연수 (D-4)	취 재 (D-5)	종 교 (D-6)	상사주재 (D-7)	기업투자 (D-8)	무역경영 (D-9)
29	99,712	49,517	107	1,206	1,014	5,443	1,970
교 수 (E-1)	회화지도 (E-2)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예술홍행 (E-6)	특정활동 (E-7)	비전문취업 (E-9)
2,019	12,404	3,020	191	356	2,732	19,076	231,226
선원취업 (E-10)	방문동거 (F-1)	거 주 (F-2)	동 반 (F-3)	영 주 (F-5)	결혼이민 (F-6)	방문취업 (H-2)	기 타
16,987	102,422	43,301	19,600	161,451	132,260	144,917	78,353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민, 국제 유학생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자도 396,654명에 이르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제는 어느 지역의 어느 거리에서도 다양한 모습의 외국인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이제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사회로 변화되었음을 인식하고,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변화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할 때이다. 일반적으로 선교를 지역적으로 해외에서, 또 타 문화권의 사역으로 생각하는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이미 국내에 타 문화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들어와 있는 현실을 직시하

고, 이 상황에 맞는 선교 패러다임을 모색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2) 한국교회의 국내 이주민 선교 실태와 난민 현황

(1) 한국교회의 국내 이주민 선교 실태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1990년대 초 이주 근로자로 시작되어 결혼 이민 여성과 다문화 가정으로 확대되었다.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주민 선교의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⁵ 먼저,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전적인 통합 사역 즉 전도·사회봉사·인권·삶의 질 개선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전도, 세계선교, 인권 및 삶의 질 개선, 교회개척,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 선교를 하는 기관은 에큐메니칼 성격의 기관이 45%, 복음주의적 성격의 기관이 52%로서 비슷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주민 선교의 사역 형태는 교회 부설, 이주민 기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이주민 선교기관/센터, 교회와 선교 기관의 복합 형태, 이주민 교회, 자조모임/독립 외국인 교회, 기타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이주민 선교를 교회 부설 형태로 시작하여 선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민 선교의 대상은 이주민 근로자 선교, 결혼 이민 여성 선교, 이주민 가정 자녀 선교, 유학생 선교, 난민 선교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선교 사역을 포함할 수 있다.

5) 구성모 외, 『다문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15), 307-326

이주민 선교 기관의 소속 교단별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일부 교단에서는 국내 선교사 혹은 이주 사목의 지위를 인정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각 교단이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사역자를 양성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⁶

교단	예장 통합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기감	기장/기침	기성	백석/합신	기타
기관(%)	88 (32%)	59 (22%)	24 (9%)	17 (6%)	13 (5%)	9 (3%)	4 (1%)	32 (12%)

* 출처: 황홍렬 외 4인, 『이주민 선교 기초조사 보고서』, (서울: KD 한국교회 회망봉사단, 2013), 43. (구성모 외 『다문화 선교』 310.에서 재인용)

이주민 선교 기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수도권 즉 경기도와 서울에 51.5%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업상의 여러 여건과 교통의 편의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난민 신청자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월보 2021년 1월호에 의하면 1994년 이후 2021년 1월말까지 난민신청자는 71,232명이며, 심사 완료는 36,000명이며, 이 중 1,092명이 난민인정을 받았고, 2,376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총 3,468명이 난민 인정(보호)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난민신청사유는 종교(16,901명), 정치적 사유(12,854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7,250명), 인종(3,858명), 국적(388명), 기타(29,981명)로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세부적인 통계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6) 황홍렬 외 4인, 『이주민 선교 기초 조사 보고서』, (서울: KD 한국교회 회망봉사단, 2013), 43. (구성모 외 『다문화 선교』, 310에서 재인용)

표 #1] 연도별 난민신청 심사결과

(단위 : 건)

연도	구분	1차					이의신청			
		신청	심사종결				신청	심사종결		
			소계	심사결정	직권종료	자진철회		소계	심사결정	자진철회
총 계		71,232	57,090	40,588	11,252	5,250	30,219	25,631	24,731	900
'94- '13년		6,643	4,666	3,499	622	545	2,551	2,349	2,271	78
2014년		2,896	2,750	2,388	284	78	1,759	1,007	961	46
2015년		5,711	4,522	4,244	175	103	3,258	2,067	1,994	73
2016년		7,541	7,061	6,326	572	163	5,277	4,356	4,276	80
2017년		9,942	6,416	5,219	1,017	180	3,722	4,463	4,415	48
2018년		16,173	6,602	4,297	1,735	570	3,113	2,691	2,584	107
2019년		15,452	10,015	5,877	2,620	1,518	4,068	3,560	3,434	126
2020년		6,684	14,034	8,104	4,013	1,917	5,956	4,092	3,792	300
2021년 1월		190	1,024	634	214	176	515	1,046	1,004	42

※ 심사대기 : (1차) 14,142건 / (이의신청) 4,588건

표 #2] 난민신청 심사결과

(단위 : 건)

연도	구분	심사완료	난민인정(보호)					불인정
			소 계	인 정	인도적체류	인정률	보호율	
총 계		36,000	3,468	1,092	2,376	3.0%	9.6%	32,532
'94- '13년		3,169	558	381	177	12.0%	17.6%	2,611
2014년		1,574	627	94	533	6.0%	39.8%	947
2015년		2,755	303	105	198	3.8%	11.0%	2,452
2016년		5,665	350	98	252	1.7%	6.2%	5,315
2017년		5,874	437	121	316	2.1%	7.4%	5,437
2018년		3,960	652	144	508	3.6%	16.5%	3,308
2019년		5,073	310	79	231	1.6%	6.1%	4,763
2020년		6,379	224	69	155	1.1%	3.5%	6,155
'21년 1월		1,551	7	1	6	0.1%	0.5%	1,544

※ 인정취소 7건 및 철회 1건 포함(2009년 4건,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4년 1건)

표 #31 국적별 난민 신청자 현황

(단위: 명)

199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월	
총계	32,733	총계	16,173	총계	15,452	총계	6,684	총계	190
파키스탄	4,268	카자흐스탄	2,496	러시아	2,830	러시아	1,064	방글라데시	25
중국	3,640	러시아	1,916	카자흐스탄	2,236	이집트	718	중국	15
이집트	3,244	말레이시아	1,236	중국	2,000	카자흐스탄	603	파키스탄	13
나이지리아	1,831	중국	1,200	말레이시아	1,438	말레이시아	452	필리핀	12
카자흐스탄	1,810	인도	1,120	인도	959	인도	435	인도	10
방글라데시	1,456	파키스탄	1,120	파키스탄	790	방글라데시	420	나이지리아	10
시리아	1,323	이집트	870	방글라데시	491	중국	311	에티오피아	7
인도	1,278	방글라데시	608	베트남	381	파키스탄	303	네팔	7
네팔	1,216	예멘공화국	602	모로코	365	네팔	260	우즈베키스탄	6
러시아	1,068	필리핀	507	터키	320	모로코	173	가나	6
기타	11,599	기타	4,498	기타	3,642	기타	1,945	기타	79

난민 통계 현황에서 나타나는 의미 중 하나가 난민 신청자들의 국적이 거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라는 것이다. 터키, 파키스탄, 이집트, 카자흐스탄, 예멘 공화국,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그리고 인도, 러시아, 중국도 무슬림 인구 면에서 이슬람 국가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나 난민 인정자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

5. 이슬람권 선교의 정책 방향과 과제

이슬람권 선교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려 사항에서 검토된 것들을 토대로 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 실태와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슬람권 국가 출신 이주민 현황을 통해서 감리교회의 이슬람권 선교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무슬림 대상의 이슬람권 선교 정책 수립 및 시행

이슬람권 국가인 해외로 파송하여 사역하는 것만을 이슬람권 선교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주해온 무슬림이나 한국인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이슬람권 선교 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1) 국내 무슬림 선교의 필요성

이제까지 이슬람권 선교가 땅끝을 찾아가는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국내로 들어온 ‘땅끝’의 사람들을 향한 자문화권에서의 ‘땅끝 선교’를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주 무슬림 2세들이 군복무를 조만간 하게 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국내에서의 무슬림 선교를 위한 노력을 감리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있다. 국내 이주 무슬림에 대한 대처를 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감리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는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57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슬람의 영향력은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슬람 국가에서 온 무슬림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선교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무슬림들의 입국을 저지하자는 차원에서 이슬람 포비아를 부추기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나그네와 같은 그들을 포용하여 무슬림들에게 복음전도의 기회로 삼자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나친 배제나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실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 알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 무슬림은 이슬람의 교리와는 구별해서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기독교 이상으로 그들의 포교, 즉 이슬람 선교(다와)를 이 땅에서도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Joel Richardson은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4배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⁷⁾고 했으며, 영국의 어느 유능한 성경 연구자는 “만약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 세계 신생아의 절반이 무슬림 가정에서 나올 것이다.”⁸⁾라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서 무슬림들을 기독교인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그들이 한국의 무신론자나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 무슬림이 되도록 포교하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 취업과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 이민 등으로 한국 내에서 태어나는 태생적 무슬림, 즉 무슬림 2세대의 인구 증가는 한국의 이슬람화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흐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도 국내 이주민에 대한 선교전략과 함께 특히 국내 무슬림에 대한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2) 국내 무슬림 선교의 의미와 효과

국내에 증가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는 하나님께서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특권과 기회를 한국교회에 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수행해 온 이슬람권 국가에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서 수행해 온 선교 방식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타

7) 조엘 리차드슨, 『마지막 때와 이슬람』 조용식 역, (서울: 도서출판 순전한나드, 2016) 17. (Pawson, “The Challenge of Islam to Christians”, 11에서 재인용)

8) 조엘 리차드슨, 17.

문화권 이슬람권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선교사의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많으며, 현지 언어 능력 구사나 문화 적응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벽으로 인해서 사역의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에 이주한 무슬림에 대해서는 국내의 자문화권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 수 있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보다 더 쉽게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무슬림 선교는 21세기 해외선교의 새로운 이슈의 하나인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각 지역에서 실천한다는 글로컬(Glocal)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 이주 무슬림을 전도 및 선교하여 다시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의 현지 선교사와 네트워킹을 함으로써, 이슬람 국가에서의 어려운 선교사역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양육하고 지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구촌 전체의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소위 총체적인 선교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국내 무슬림 선교는 또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미래 한국 선교의 큰 방향성의 하나인 협력 시스템의 개발과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무슬림 선교는 조만간 증가하게 되는 은퇴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또한 실버 선교사 제도에 의한 평신도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를 보다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매우 확실한 선교 정책이 될 것이다.

2) 국외 선교사 관리규정의 “선교사의 정의와 구분”에 대한 개정

한국 위기관리재단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근본주의와 국수적 민족주의 등으로 선교사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가 30여 개국, 선교사의 추방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120개국이라고 한다. 또한 자국보호주의, 국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매우 까다로워진 비자법, 조세법 등으로 선교사의 거주와 체류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21세기는 이주의 시대로서 국가간 대륙간 많은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선교사역이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아니라 선교사역을 하기가 비교적 쉬운 지역에서 동일한 선교의 대상에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슬람권 선교에 있어서도 바로 이와 같이 한국에 찾아 온 무슬림들을 향해서 한국에서 선교한다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내 무슬림에 대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만 국내 이슬람 확산의 위기를 호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장정(2017년)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5. 국외선교사관리규정 제3조의 “선교사의 정의” 제4조 “선교사의 구분과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대 상황에 부응한 선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외 선교사 관리규정의 “선교사의 정의”에 대한 개정

현행 교리와 장정(2017년)의 국외선교사 관리규정 제2장 제3조의 선교사의 정의에는 아래와 같이, “**해외에서** 현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거나”로 되어있다.

제3조 (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 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 자격 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

리회 소속 교회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 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해외**에서 현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거나 현지인과 한인(교포)사역을 겸한 자로서 목회와 기관 사업 등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선교사를 오직 해외에서 라고 지역을 제한하고 있음으로서 글로벌 시대에 주창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는 총체적 선교를 결코 수행할 수 없다. 선교의 다각화와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 자발,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선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입국 거절, 추방 등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해외의 현장 선교사가 현지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살려 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정, 유학생, 일시방문자 등 외국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원하는 경우, 규정의 제한으로 인해 선교사의 신분으로 사역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그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선교대상만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제3조 (선교사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훈련과정을 필한 후 선교사 자격 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와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해외에서**(삭제) **외국인 또는 해외 한인을 대상으로**(개정) 목회와 기관 사업 등 각종 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선교사라 한다.

이렇게 “선교사의 정의”가 개정이 되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말해 한국에 이주해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특히 무슬림을 향해서도 선교사의 신분으로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한 신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2) 국외 선교사 관리규정의 “선교사의 구분과 자격”에 대한 개정

현행 교리와 장정(2017년)에는 선교사의 구분과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교사를 구분하고 그 자격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자격요건들은 생략하고 우선 선교사의 구분만 살펴보려고 한다.

제4조 (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모든 선교사는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선교사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서 세계선교에 사명감이 투철한 민법, 형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① 교역자 선교사(서리 파송자 포함), ② 평신도 선교사 ③ 협력선교사 ④ 명예 선교사 ⑤ 전문인 선교사 ⑥ 현지인 협동선교사 ⑦ 단기선교사 ⑧ 원로선교사 ⑨ 기타 : 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 자로서 본부 선교국의 특별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 인준 심사에서 통과된 자.

선교사의 직분, 사역 기간, 사역 대상 및 특별한 목적수행, 예우에 따라 구분하여 선교사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고, 다양하게 확대하여야 한다.

먼저 직분에 따른 구분에서 교역자 선교사와 평신도 선교사의 나이 조항을 실제적 은퇴와 연관하여 상향될 필요가 있다. 사역 기간에 따라 4년의 파송 기본임기를 준수하는 장기 선교사와 3년 이하의 단기선교사로 구분한다. 사역 대상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 현지인, 해외 한인, 국내 외국인 선교사로 구분하고 **국내 외국인 선교사를 신설**하도록 한다. 특별한 목적수행에 따른 구분으로 전문인, 현지인 협동, 순회 선교사로 하고, **순회 선교사를 신설**하도록 한다. 예우에 따른 구분에서 기존의 명예 선교사와 원로선교사를 유지한다. 국내 외국인 선교사 제도는 실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의 개발과 활용과도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

(3) 선교사의 정의, 선교사의 구분과 자격에 대한 개정 이유와 보완 대책

상기 제시한 바와 같이 선교사의 정의와 선교사의 구분과 자격에 대해 그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변화된 선교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선교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감리회 선교사 중에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에게 국내에서의 타문화 선교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의 비자발적 철수한 가정이 31가정에 이르고 있으며, 나라별로는 중국 26가정, 인도 3가정, 몽골 1가정, 파키스탄 1가정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중국 선교사들 중에서 신장성 우르무치 지역의 이슬람권 선교지에서는 전원이 철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들이 일정 기간은 안식년이나 휴가 등으로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내에서의 목회 사역이나 제3의 국가로의 선교지를 변경하여 재파송받는 등의 사역지 변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철수 인원의 국내에서의 사역의 길을 열어 줄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10년이상 장기간 동안 사역한 선교사들의 경우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선교적 경험과 지식을 본국에서 할 수 있는 선교사역에 기여하고 사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어야만 한다.

위에서 제기한 선교사의 정의와 선교사의 구분에 대한 개정은, 타교단의 선교사의 구분과 비교해 볼 때도 이미 타교단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결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겠다. 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하고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합동) 세계총회선교부(GMS)의 선교사의 구분에는 선교대상에 따라 현지 선교사, 해외 한인 선교사, 국내 외국인 선교사를 두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의 수행에 따라 전문인 선교사, 연구 선교사, 행정 선교사, 순회 선교사(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상담,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하는 선교사로 이사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비거주 선교사(특정 창의적 접근지역이나 특정 사역을 위하여 파송받은 전임사역자로서 특정지역에 정주하지 않으며 사역하는 선교사)로 구분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의 경우, 선교사역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타문화권 선교사, 에큐메니칼 선교사, 해외한인목회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자원 선교사, 행정 선교사, 본부 선교사, **순회 선교사**로 나눈다. 성결교단에서는 기타 분류로 원로선교사, 명예선교사, **순회 선교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순회 선교사 신설과 특히 사역 대상에 따른 외국인 선교사 제도의 신설은 다소 늦었지만 꼭 필요한 제도로써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 선교사 제도를 신설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건과 자격을 정해서, 아무나 쉽게 국내에서 선교사라는 미명하에 사역하고자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해외 선교지에서 10년 이상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사역하고, 후원교회가 후원 약정을 유지하고 국내 외국인 선교사로 사역하는 것을 승인하는 조건에서 선교국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순회 선교사도 20년 이상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사역하고 경륜과 지식을 인정받은 자로서,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사들의 영성 관리와 상담, 전략에 대한 조언을 하는 선교사로 선교국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서 사역하도록 한다.

3) 이슬람대책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이슬람연구원 활동 확대

교리와 장정(2017년)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7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⑦ 이슬람대책위원회〈신설〉 1.감리회의 이슬람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범교과 이슬람대책위원회와 협력하기 위하여 이슬람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41. 이슬람대책위원회 규정 제2조 ③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국 사회에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슬람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 이슬람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통해서 감리교회와 감리교인이 이슬람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 무슬림과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국인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정책과 전도방안을 강구하는 이슬람대책위원회를 감리회 본부에 설치한다

또한 2장 2조 ③에는 이슬람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용한다고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슬람대책위원회 산하에 총회기관인준을 받은 이슬람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활용하며, 이슬람연구원의 원장과 본부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그리고 이슬람연구원의 정관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조직으로 다음과 같이, “제23조(본부장) 5. 본부장은 행정 기획팀, 정보 수집팀, 연구 출판팀, 교육 훈련팀, 무슬림 사역팀으로 업무 영역을 나누어서 간사의 보좌를 받아 총괄한다.”라고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재정 여건의 제한으로 상근직인 이슬람연구원 본부장 1인에 의해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슬람연구원이 본래의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간사 보직이 가능한 최소한의 재정 지원을 이슬람대책위원회에서 감리회 본부 정책 지원금으로 제공하여, 이슬람연구원이 명실 공히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감리회의 대 이슬람 정책을 연구하고, 이슬람권 선교 정책 수립과 이슬람권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슬람연구원이 보다 더 전문연구기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선교국 산하의 해외 선교를 위한 담당자들의 근속 근무기간이 매우 짧고 행정 전문가로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영역의 연

구와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의 장기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자료집도 이슬람권 선교 정책 연구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조직해서 연구한 결과인데, 이슬람연구원의 조직 운영이 재정지원을 받아 정상화가 된다면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편성하지 않고도 이러한 정책 연구와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단계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과 선교사 재교육 방안 등 제언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의 발전은 장기간 동안 선교국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 선교사 지원자는 선교국 위탁 선교사 훈련기관의 훈련과 본부 집중 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선발하게 되어있다. 선교국 위탁 선교사 훈련기관의 프로그램도 해외 현지 적응 훈련까지 심도 깊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선교사 훈련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초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수련 선교사의 선교실습과 자원봉사 40시간의 활용, 그리고 선교사 재교육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 이슬람권 국가의 초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

교리와 장정(2017년)의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의 제 7조 ③항에는, “초임 선교사는 선교지에 부임한지 1년 이내인자를 말하며, 각 해당지역 선교사회는 초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두어 실시하고 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도록 하며, 초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은 별도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탁 선교사 훈련기관에서 타 종교 이해, 또는 기독교 선교와 타 종교, 타문화권에서의 전도 방법 등의 주제로 1-2시간 정도 배운 것으로 이슬람권 선교 사역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슬람 연구원에서 직접 참여하는 위탁 선교사 훈련기관의 “이슬람 이해와 무슬

럼 전도” 주제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학습을 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권 국가로 파송되는 선교사에 대해서는 초임 선교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현지 선교사회에서 배워야 할 것도 있지만, 수련 선교사 기간에 이슬람연구원에서 개발한 “이슬람 이해와 무슬림 전도”에 대한 8시간의 집중훈련을 필수 과정으로 이수하도록 선교국에서 제도화하여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2) 이슬람권 국가 파송의 수련 선교사의 선교실습과 자원봉사 시간 활용

교리와 장정(2017년)의 국외선교사 관리규정의 제 5조 ③항에는, “선교사로 선발된 이는 공식 파송시까지 ‘수련 선교사’로 호칭하고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1년간의 선교실습을 한 후 파송되며, 이 기간 동안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수련 선교사로 사역하는 기간에 이슬람권 국가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자원봉사 시간 중의 일부를 할애해서 이슬람사원 체험을 비롯한 이슬람연구원에서 개발한 선교 실습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슬람연구원에서 수련 선교사로 선교실습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한다.

(3) 안식년 기간 중 권역별 선교사 재교육 과정 신설 및 이수

선교사들은 선교사 선발 및 인준심사를 위해서 선교국 위탁선교사 훈련기관 훈련과 본부 집중훈련을 이수하고 해외 현지 적응훈련까지 마치고 파송을 받게 된다. 이렇게 파송된 후에 기본임기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함께 다양한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나누고, 또 현장에서 더 필요하다고 제기되는 교육소요에 대해서 권역별로 선교사 재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것은 4년, 또는 6년의 사역 기간이 끝난

후에 6개월, 또는 1년의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에 최소 1박 2일의 시간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권 국가 파송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이슬람연구원에서 선교사 재교육 과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선교사들이 이러한 선교사 재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교국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4)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저변 인구 확대와 동원을 위한 이슬람강좌 개설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의 확산과 무슬림 인구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슬람과 무슬림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이 같은 신이라고 믿고 있는 목회자들도 10% 이상이라는 2015년의 크리스천투데이 신문사의 설문지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는 사실 이슬람권 선교로 무슬림의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이슬람을 믿는 신자인 무슬림에게 어떻게 다가가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감리회 계통의 신학대학교에 이슬람 강좌를 개설하여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저변 인구를 확대하고 나아가 이슬람권 선교에 동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 이제는 무슬림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선교 학교, 또는 선교 대학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는 선교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를 위해 감리교회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앞장서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6. 나가는 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슬람권 선교 정책 수립을 위해서 관련된 제반 고려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감리교회의 이슬람권 선교 실태를 분석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대상의 이슬람권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한다. 이슬람권 국가인 해외로 파송하여 사역하는 것만을 이슬람권 선교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주해온 무슬림이나 한국인 무슬림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하는 것을 이슬람권 선교 정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문화권에서 보다 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을 활용하여, 해외선교의 새로운 이슈인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각 지역에서 실천한다는 글로컬 선교, 그리고 지구촌 전체의 치유와 회복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인 선교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국내 이슬람권 선교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국외 선교사 관리규정의 “선교사의 정의와 구분, 자격”에 대한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21세기 이주의 시대, 글로벌 시대에 주창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라는 총체적 선교를 위해서는 “해외에서” 현지인만을 위한 사역을 하는 자를 선교사라고 정의하는 것을 고쳐야 할 것이다. 지역 개념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자를 “국내 선교사”로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이를 선교국 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서 임명하고 관리해 나가면

될 것이다.

셋째로, 이슬람대책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인 이슬람연구원의 활동을 정상화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활용 분야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리회 본부의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이슬람대책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으로 이슬람 연구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재정 여건의 제한으로 상근적인 이슬람연구원 본부장 1인에 의해서 사역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슬람연구원이 본래의 조직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리회 본부의 정책 지원금이 제공되어 명실 공히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슬람권 국가로 파송되는 초임 선교사들의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슬람연구원에서 “이슬람 이해와 무슬림 전도”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슬람권 국가 파송의 수련 선교사가 이슬람연구원에서 선교 실습과 자원봉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것을 제언한다.

넷째로,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저변 인구 확대와 선교 동원을 위한 신학대학교의 이슬람 강좌 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의 확산과 무슬림 인구의 증가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슬람과 무슬림도 구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슬람을 믿는 신자인 무슬림에게 어떻게 다가가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감리회 계통의 신학대학교에 이슬람 강좌를 개설하여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저변 인구를 확대하고 나아가 이슬람권 선교에 동원할 수 있는 길을 감리회 본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개체 교회의 이슬람권 선교 참여 방안 모색

1. 들어가는 말

‘직면한 땅 끝’이 우리 주변에 불현듯 확 다가와 있음을 체감한다. 언제 이렇게 이웃해 살게 되었나 깨닫게도 된다. 타문화라는 용어 대신에 매우 동질적이지 않는, 낯선 이질적 상황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 ‘다양화 시대이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머리 속으로 이해해 보려해도 실생활 본능에서는 한번 멈칫하게 되는 안전의식이 작동될 수도 있다.

본 장에서는 우리 실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언론 보도 3가지를 제시하면서 시작하려 한다. 시사적이기 때문이다. 이슬람과 무슬림을 사회적, 정치적, 산업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의 기사들이다.

그 기사들을 보면 개체 교회에서 이슬람권 선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한 비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더욱이 기독교가 다른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와 이슬람교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기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경배하는지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핵심 가치에도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직면한 땅 끝, 이웃한 무슬림’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바라보고 만나야 할 것인지 숙고하길 바란다.

3개의 기사 제시 다음에는 실제 30여 년간 복음, 양육 및 국내 전도 여행 및 해외 이슬람권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를 소개하는 흐름으로 글을 이어가려 한다. 이는 성경적 오리지널 모델을 따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동질성 강화로 무장된 개척 교회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임재와 사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선교적 교회의 사례**가 이슬람권 선교를 하는 기존 교회와 새롭게 준비 및 계획하는 교회에게 **도전이 되길 희망**한다. 더불어 이 장 말미에 선교지 현장과의 지속적 연계를 위한 방안을 간단하고 짧게 언급했으며 나가는 말로 전체를 요약하는 흐름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1) 기사 1: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건축 중단 조치”

대구 북구청이 최근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 시키기로 16일 결정했다. 다만, 건축이 중단되더라도 건축주와 주민이 타협점을 찾도록 중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이날 북구 대현동 한 주택가 주민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접수한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지역구 구의원인 이정열 의원과 함께 북구청 1층 민원실에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구청 건축주택과를 찾아 애로사항을 전했다. 그동안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 행위로 각종 불편함을 감내해왔지만, 사원이 지어질 경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건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주민들은 향후 집값 하락 등 재산적 피해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북구청 관계자에게 전했다.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 건축을 중단시키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건축주 측에서 건축 중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였을 경우 북구청이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소송 이후 이슬람 사원 건축 규모 축소 등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구청 관계자는 “앞서 현장 점검을 맡은 설계자가 주변 주민과의 갈등이 없다고 구청에 전했고,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건축 허가를 내렸다”면서 “주민 민원과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건축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주민과 건축주 측이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¹

2) 기사 2: ‘예멘 난민’ 그 뒤 1년

1만 6,173명 중 484명. 지난해 전체 난민신청자 수 중 예멘인 숫자다. 0.03%가 한국사회에 만든 파급효과는 꽤 컸다. 무려 71만 4,875명이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당시에는 거리에 예멘인이 여러 명 모여 있기만 해도 기사가 됐다. 불안감과 공포는 커졌다.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난민 반대 집회도 열리기 시작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어서, 젊은 남성이라서, 무슬림이라서 ‘가짜 난민’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만큼 ‘난민’은 우리에게 낯선 질문이었다.

1년이 지났다. 이제 한국에서 예멘인은 그 수와 상관없이 ‘난민’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우리는 과연 이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한국인이 먼저다’, ‘일자리 뺏어가는 가짜 난민’이라며 달린 댓글들에 답을 내놓으려면 이 질문들이 먼저 필요했다. 많은 두려움이 무지에서 출발한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아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²

1)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dxno=2068476>, 「경북일보」 2021.02.16.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dxno=201607> 「미디어오늘」 2019.08.10.

3) 기사 3: 이주 노동자 집단 감염에 혐오 확산

최근 외국인 밀집시설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방역 사각지대로 꼽혀온 외국인 밀집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2일 경기에 동두천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84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근무시간 외 같은 나라 출신 동료들과 주로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양주 등에는 이들이 종종 모이는 장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진천의 닭 가공공장에서 밤새 외국인 근로자 10명과 내국인 1명이 전날 오후 11시 30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국적 50대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튿날인 1일 배우자 등 가족인 50대 러시아인 2명이 추가 확진됐다.

역학조사 결과 신규 확진자들은 지난달 발생한 ①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플라스틱 제조업체 확진자 관련, ② 양주시 광적면 섬유업체 관련, ③ 포천시 섬유업체 관련, ④ 인천시 서구 무역업체 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 기존 집단 감염 지역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노동자 다가오면 피해야” 갖가지 혐오 발언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이어

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요즘 방역 지침 더 안 지키는 듯하다. 시리아인들도 가족 모임, 이슬람 종교모임 등을 단체로 해서 집단 감염 일으키더니. 남의 나라에 살면서 지침 안 지킬 거면 돌아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라 조금 안심되기도 한다. 우선 외국인이 근처에 오면 무조건 도망가려고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전부 이동금지 명령 조치 내리고 썩다 전수조사 해야 할 듯싶다” “명절이나 휴일에 경춘선 타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나들이 많이 간다” 등 근거없는 비난이나 감정적 발언도 쏟아지고 있다.

“비닐하우스 같은 그들의 거주 공간 살펴봐야”

하지만 이 같은 비난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와 분노만을 표출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시국에 외국을 자유롭게 오간 것도 아니고, 이번에 단체로 감염된 것도 공장 환경의 영향이 크다 하는데 왜 그러냐”며 “외국인이 설에 어딜 가겠나. 반대로 공장 내 내국인이 외부에서 바이러스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라고 너무 부정적 시선으로 보면 안 될 듯하다”라고 덧붙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집단 감염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폐쇄적 공동체를 갖고 있어서 그들 내부적으로는 확산이 쉽게 이뤄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내국인과의 교류는 많지 않아 쉽게 확산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도 지난해부터 불법 체류자도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는 체류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한 바 있다”라며 “오히려 비닐하우스나 좁은 방
에서 다닥다닥 밀집돼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의
생활 환경을 역학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³

2. 이슬람권 선교의 시급성 인식 고취⁴

1) 국내 이슬람을 바라보는 시선

위 세 가지 사례를 보게 되듯 통일신라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슬람⁵은 꽤 오랜 기간의 접근을 통해 한국사회로 스며들어 왔음이 확인⁶
된다. ① **사회적 측면**— 주택가에 세워지는 이슬람 사원은 ‘생활밀착형 터
잡기’, ‘진지구축’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또한 ② **정치적 측면**— 변화하는
세계 속 전쟁 발발 및 정치적 불안 속에서 발생한 난민들의 유입은 국내의
‘난민법 개정’이라는 문제로 계속해서 대두될 것이다. 더불어 ③ **산업적
측면**— 한국 산업경제계 일부를 담당하는 ‘이주 노동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
의 이슈화는 그들이 담당하는 역할과 함께 한국 사회 구성체 통합에 또 다

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214380004796> 「한국일보」 2021.03.03

4) “한국을 2020년까지 이슬람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2005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중동 이슬람 지
도자 선교대회’에서 구체적 포교 전략으로 확립되었다”고 전 이집트 선교사 출신, 김진홍 목사(이슬람
원장, 현 수표교교회 담임목사)가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 연구」라는 제호의 저널 창간호(2016년) 권두언
에서 말했다. 현재 감리교 산하기관인 이슬람연구원은 2015년 12월 창립됐다. 그 기관 저널인 「이슬람
연구」는 2016년 창간호 발행 이후로 매해 발행, 총 6권(2021)이 발행됐다. 더욱이 김도훈 선교사(전 중동선
교회 총무)는 한국교회와 이슬람의 논문에서 한국교회는 이슬람을 모른다는 꽤 도발적인 제목으로 글을
시작했다. 김도훈, “한국교회와 이슬람”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 연구 2017 통권2호」 서울: 이슬
람 연구원, 2017. 55-85.

5) 이와 관련해 이정순,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 서울: 대서, 2012, 참고.

6) 이동주, “이슬람의 한국고지 점령전략과 이회수 교수의”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논문에 관한 小考”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 연구 2016 창간호」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슬람 연구원, 2016. 58-84.
참고.

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상기한 ①, ② 측면은 한국 사회 바깥에서 안으로의 진입과 관련되며 ③ 측면은 안에서의 역할 분담과 점유와 연결된다. 이동주 박사는 한국내 무슬림들의 정치적 고지점령 전략: 사법계로 진출, 경제계 고지 점령 시도, 사회문화적 고지점령 전략, 교육적 고지점령 전략⁷⁾을 이미 말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및 제자들의 선교대상은 3부류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어린 양, 둘째는 사마리아인, 셋째는 이방인이다. 선교대상의 우선순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것을 본 장 초입에 언급하는 이유는 이슬람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다. 위의 ‘시대 단상’ 3가지 기사를 보듯 국내 이슬람은 혐오와 존재 인정, 수용이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팽팽하게 갈려져 있다. 이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변화하는 현실에서 대응할 방향이 잡힌다.

‘타 종교’로 볼 것인지? 혹은 ‘이웃 종교’로 다가갈 것인지 하는 문제. 이에 따라 힘을 사용해 방어하던가. ‘타 종교’로 인식되는 경우 물리적 거리가 있다면 관심 분야를 조사 연구하는 적극성을 떨 수도 있다.

이미 일상생활 근거리에서 ‘이웃한 종교’로 파악되기에 갈등 분쟁의 격화 이전에 대화의 공통분모를 찾아 교제를 나누며, 그 밀착도를 높이는 방향을 찾아 봐야한다.

물론 이슬람을 바라볼 때는 3가지 요소를 기억해, 구분할 것을 주문한다. 아랍, 중동, 이슬람에 대한 이해⁸⁾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아랍에서 율튼 종교, 정치, 문화이며 생활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이슬람이 이슬람 내에서도 지역과 민족 및 이슬람 신비주의, 전통 관습의 민속 이슬람,

7) 이동주, 59-63.

8) 장훈태, 『최근 이슬람의 상황과 선교의 이슈』 서울: 대서, 2011, 186. 최성권, 『중동의 재조명: 역사』 서울:한울아카데미, 2012, 15-33.

정치적 이슬람주의 등으로 **다양함을 인식**해야 한다. 단순 접근의 확증적 편향에서 거리를 두자는 것이다.

이슬람에 대한 필자의 시선은 유럽의 이주민 정책 실패 선언⁹⁾을 ‘반면교사’와 ‘타산지석’으로 삼은 ‘화이부동’임을 밝힌다. 대한민국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변화하는 한국 사회

세계 이슬람의 빠른 확산세와 함께, 한국 사회는 여러 다양한 내·외 부적 요인으로 인해 그 모습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2020년 사회 조사 결과’¹⁰⁾ 통계가 보여주고 있듯 외국인과 결혼해도 상관없다는 사람이 71.0%로 나타났다. 이런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높은 수치,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경제인구를 대체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시작된 **해외 이주 노동자 유입**, 문화영화 예술 등 보편적으로 공감 가능한 콘텐츠의 해외 송출로 인한 대한민국 이미지 개선과 선망, 호감도 증가는 실제 해외 장기 여행자 및 유학생 증가의 체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외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며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등 ‘**글로벌 문화 시대**’를 통과하는 축이 되고 있다. 이것은 광고수익과 영향력 창출의 틈새시장에 뛰어든 ‘종합편성채널’의 콘텐츠

9) 유해석, “유럽의 이슬람 인구 성장이 한국교회에 주는 교훈” 『2020 총회 이슬람 아카데미』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슬람 대책위원회, 총회 교육전도국, 2020, 34.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에 “다문화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자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1년 2월 10일에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고 선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1년 2월 5일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선언.

10)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주기로 매년 5개 부문에 대해 조사한다. (착수해)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홍수해) 기본,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2020년 사회조사 결과는 2020.11.18 배포 됐으며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개발과 관련해 타문화 탐방, 해외 로케이션 증가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공중과 포맷까지 가세해 더욱 더 극대화됐던 2019년말 상황이었다. 해외여행 및 음식 투어, 이를 혼합해 한국 현지 및 해외 현장에서 동시에 운용함으로 해외 문화에 대한 지식 정보 등이 쌍방향으로 넘쳐나고 있는 형편이었다.

추가로 간과할 수 없는 축은 대한민국 청년들, 특히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새로운 90년대생, ‘Z세대의 등장’¹¹⁾이다. 이는 기존의 단일민족 전통을 뛰어넘어 사고방식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드러낸다. 또한 ‘공정한’ 한국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식구조 변화 추이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내·외적 변화요인을 바닥에 깔고 이슬람권 선교 개념의 재인식 및 그 사역 범위 등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3) 코로나19 감염병이 가져온 기독교 이미지 변화

더욱이 현 코로나 19시대의 글로벌 상황을 임존 목사는 ‘디언스(Di. Un.S)’ - 사회적 거리두기(Distance), 비대면 접촉(Un-tact), 소모임 권유(Small meeting)-라 명명하며 문명의 세계사적 패러다임 전환에 동참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K-방역 대책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초기 대응실패와 견주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국가적 위상 변화와 달리 한국 기독교의 대 사회적 신뢰도 및 영향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는 ① 대외적 이슬람권 선교의 시급성 인식 고취와 더불어 ② 대내적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금심 회복과 개신교의 對한국

11) 이런 청년들의 실제 현실, 흔히 3포 시대의 그들의 고충을 듣고 이해, 공감하는 주세력은 현장에 있었던 비정통을 따르던 견해를 가진 ‘이단’이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연결된 ‘신천지’의 포교 실체가 이슈화 된 것을 기억해 보라.

사회 이미지 제고가 하나로 묶여 있음을 시사한다. 해결실마리는 교회갱신에 있다.

3. 선교적 교회를 통한 오리지널 모델 참여 방안 제시

코로나19와 관련한 백신 접종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21년 올해 말에는 어느 정도 자연 면역이 가능하다는 예측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해법 방안의 하나로 감리회 산하 9개 선교훈련원 및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 연세대 신학계열 평생교육원 등과 이슬람연구원 공동주관의 ‘이슬람 이해 프로그램 강좌 개설(지저스 인카운터 영상 트립¹² 포함)’을 제안한다. ‘이슬람 관심 분야 연구 모임’ 발족 운영으로까지 목표를 둘 수 있다. 이는 국내 무슬림 현황 추이 파악 및 이해, 접근과 연결된 저변확대다.

또한 선교사 인준 과정 중 인준 이전에 해마다 선교사 후보 대상의 해외 타문화 현지 탐방이 있다. 편의상 단순히 인준에 따른 각 문화권 혼합의 절차적 탐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부 선교국 주최, 이슬람연구원 주관의 이슬람권 파송예정 선교사의 사전 현지 탐방조사(2022년 이후 가능성 여부 타진해 실행)를 통한 현장 이해 및 복음의 타문화 삶 속에서의 기반 구축 모색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및 소그룹 차원의 탐방도 인정해주는 점도 고려할 때가 됐다. 이슬람권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다녀오기도 했다.

12) 국내 및 해외든 예수님과과의 만남인 우리의 삶이라는 의미로 기존의 ‘비전 트립’을 확대한 용어.

상기 프로그램 모두 ‘이슬람 전문 연구강사 확보’로까지 확장해 보는 일이다. 코로나19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나 은퇴 선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새로운 배치도 고려할 때를 맞이했다.

상기 프로그램에서 더욱 강조해야 할 주제는 ‘세계관 이해’와 ‘문명교류사’이다.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의 관계 비교연구 이해다. 문화접변과 문화충돌 가운데 역사 속 복음의 대응을 살피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성과 선교’, ‘21세기 교회론’은 필수다. 전자는 원리 탐구이고 후자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및 상황 변화 속 길 찾기이다. 이 두 범주를 연결하는 고리는 ‘예루살렘’이다. 중동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곳엔 유대교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 다윗이 여부스족을 물리친 곳이며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수도로 정한 곳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셨고 성령이 강림한 곳, 이슬람의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으로 알려진 유일신 3대 종교의 성지¹³이기 때문이다. 양보와 타협이 요원한 ‘예루살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의 왕 ‘멜기세덱’(나의 왕은 공의롭다)이 아브람을 떡과 포도주를 갖고 축복한 곳. 이 공의가 깃든 예루살렘은 평화의 본질을 벗어난 3대 종교 각자의 ‘살롬’으로 갈등과 분쟁을 드러내는 실제적 장소이다. 시온의 대로를 따라 십자가의 길이 있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¹⁴

필자는 위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선교적 교회¹⁵의 적합한 실례를 찾던 중 이슬람권 선교를 하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 이를 소개하는 것이 이 분

13) 박양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비교종교연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07. 25-33. 참고

14) 빌 4:4, 6, 13 참고.

15)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용어로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를 말하고 있는데 정향범 선교사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정향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현대 무슬림 이해- 현대 이슬람 역사를 중심으로-”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 연구 2021 통권 06호』 75-76.

야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동시에 ‘모험적 화이부동’¹⁶ 성격의 ‘K-Evangelist’¹⁷의 새 모습’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환기(喚起, 換氣)도 있다.

안에 들어와 있는 외부의 이슬람을 경계하는 측면과 더불어 내부의 명목상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의 형상화’(갈 4:19)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변화 디언스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류를 다시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각 개체교회의 ‘목회자의 영성’과 ‘목회 주사역 방향’이 핵심 과제이다. 목회자 혼자만의 사고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하늘의 뜻을 살피는 시대가 되었다.

이 땅에 하늘의 뜻은 평신도 각자의 특별 은사를 통해서도 적용 확장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간적 계획으로 선교가 성공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¹⁸ 선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한다.

박을 보기 전에 안의 문제, 사역을 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정립해 가면서 변모하는 현재 변화형 교회’¹⁹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듯 그 하나님의 나라 정립은 말씀이 역동하는 전도 및 선교 현장²⁰에서 다듬어지고 있음

16) 和而不同, 비기독교 세계에 대한 태도 및 자세.

17) 이는 ‘任存’ 목사의 주장으로 한국 사회 유불선과 유대교 및 최근 더 이슬람화되는 이슬람을 동시에 바라보는 관점, 온정주의와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신앙을 구분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한국적 복음 전도자’를 말한다.

18) 사도행전 16:7 참조. 성령, 예수의 영을 따를 때 유럽교회, 빌립보교회가 개척됐다.

19) 엄영선, “전 세계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다 시즌 3」 서울: 새로운 길, 2017. 182-200. 이후 출판한 교회 엄영선 목사 관련 내용은 이 책 중심과 인터뷰의 재구성이다.

20) 송곳은 끝부터 들어간다. 우리의 실제적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하는 본부의 전략과 더불어 현장 교회에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술과 대결에 있다. (엡 6:10-12 참고)

을 지금도 체험하는 교회²¹이다. 이 예는 ‘제자 양육’이 현장 속으로 제대로 파고들어 평신도의 해방과 자유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자 양육 이후 현장이 없으면 개체 교회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 그리고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 갈등이 나타난다”고 엄영선 목사는 전해 주었다. 어떤 열정이 생겨 올바르게 사용해야 함에도 부작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으니 이를 적용할 곳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을 쓰면서 특히 이슬람 전공 박사로서 국내 목회자로 자리를 옮긴 박성수 목사의 논문²²도 주목하며 진행한다. ‘영성의 구심력과 선교의 원심력이라는 성령의 임재와 사역의 그 균형’ 때문이다.

박성수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2012년 이태원 이슬람중앙성원의 주마(금요일) 예배와 “이슬람으로 하나되는 세계” 등 온라인 웹사이트 등을 통한 4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내국인 무슬림들의 개종 동기 중 70%가 지적 동기라는 결과²³를 얻었다. 69%는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²⁴는 것이다. 이슬람으로 개종 이전의 종교가 개신교 천주교 포함 73%의 응답자는 교회를 떠난 주된 원인이 기독교의 교리의 복잡성과 모호성, 그리고 개신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손꼽았다²⁵고 전했다. 9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연구조사 결과를 통한 추이 비교 분석이 요구되는 때이다. 한국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협력 연합사업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21)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수원권선동지방 충만한 교회(담임목사 엄영선).

22) 박성수, “한국 이슬람의 현실과 교회의 대안” 「2020 총회 이슬람 아카데미」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총회 교육전도국, 2020, 152-186. 박성수, “토착 무슬림의 개종 사례 연구 - 왜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 이슬람 사원으로 가는가?”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 연구 2018 통권 3호」 서울: 이슬람연구원, 2018, 96-129.

23) 박성수, 173.

24) 박성수, 167.

25) 박성수, 172.

상기한 배경하에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대외적 이슬람권 선교 참여 방안과 함께 기독교 본류에 대한 국내 기독교인들의 자기 정체성 재정립, 자부심 회복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해가 절실한 시점이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져 주님의 길을 갔듯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1) 현장에서 술선수범하라. 동역자를 만난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하신다. 마가복음은 학도병이 되어 전투에 참여하는 복음의 군사처럼 현장성이 깃들어 있는 복음서로써 곧, 바로, 즉시 등으로 생사를 넘나드는 긴급한 분위기가 스며있다. 지금 시대의 시급성을 말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코로나19 디언스 상황에는 현장 찾기가 만만치 않다. 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차단됐기에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각 가정의 문은 닫히고 온라인 시장은 확장됐다. 방역의 마스크는 복면으로 바뀐 듯하다.

길거리 전도가 멈춘지 1년이다. 심방도 하기 어렵고, 5인이상 만남 금지가 생활 속에 퍼져 있어 관계의 밀착성이 확산되기보다는 한정된 깊어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 목회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어떻게 하나? 현장의 실제 고민이다.

고인이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로버트 콜먼이 쓴 『주님의 전도계획』 추천사에 밝혔듯 성경 속에서 주님의 전도 전략을 살펴봐야²⁶ 한다. 그러니 앉아서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현장, 거리로 나가서 생각하는 것이 요구된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비책이나 땅에서 솟아난

26) 로버트 콜먼, 『주님의 전도계획』 홍성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7.

방법을 혹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이다. 실체이며 실제적이라는 말이다. **일상에서 일하는 가운데 다듬어지는 ‘그리스도 신앙’**이다.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현장 속 ‘계시’이고 삶 속 ‘부활’이며 일상 속 ‘만남’이다.** 그러니 **현장에서 다시 소생할 수 밖에 없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의 바람은 생활 속에서 운행하심을 기억하고 믿는 일이다.

예수님은 먼저 가라고 말하기 전에 “나를 따라 오라”고 하셨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살피본다. 충만한 교회는 도시 상가에서 시작됐다. 도시 교회의 개척은 녹록지 않았다. 필자 역시 선교 현장에서 돌아와 개척한지 4년 차다 보니 연고 없는 곳에서 개척을 시작해본 이들은 알 것이다. 교회 개척은 우선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이다.

충만한 교회 엄영선 목사는 안면도에서 1989년 목회를 시작했다. 이후 천안 목회지를 거쳐 1994년 9월 수원에서 교회 개척을 했으니, 27년차 수원에서의 목회생활이다.

“목회 코칭을 받아 본 적이 없으니 뭐 어떻게 해요… 우선 성경을 보고 그 방식을 따라 해볼 밖에요.” 더욱이 어느 날 개척 교회를 하려면 전도를 해야 한다는 아는 목사님의 권유로 그 목사님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길거리 전도였다. 필자 역시 개척 초기, 같은 지방 이웃 교회의 여선교회에서 5-6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3개월 동안 함께 해준 덕분에 교인이 생겨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전도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부담인 덕목이다. 교회란 본래적으

로 ‘선교를 위한 선교적 교회’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도는 자신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법을 교육받으면서 동시에 현장 거리로의 실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런 국내의 동일 집단 속에서 전도 경험이 없이 어찌 국내 타문화 사람들이나 해외 타문화권에서 전도를 할수 있겠는가.

로버트 콜먼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특히 그는 ‘초점이 되는 원리’를 말했다. “예수님의 방법은 계속적인 설교 이상의 것이었으며 실물 교육이었다. 주님은 먼저 생활에서 시범을 보이심으로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역에 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도를 말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더 좋은 일이다. 사람들은 설명이 아니라 시범을 기다리고 있다.”²⁷

“미적미적했지요. 쑥스럽고 창피했어요. 처음엔 얼굴 화끈거리고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거리에서의 외침은 코로나19 시대에 본격적으로 사라졌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소리가 없는데 어디에서 하늘을 양망할 마음이 생길까? 주의 성전을 사모할 열심이 나타날까?

어찌다 코로나19 시대 교회는 그래도 생존하고 있습니다의 ‘온 에어, 방송중’이다. 공기를 타기보다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하는데, 이게 다일까? 뜨거움, 찬양의 열기, 통성의 기도, 함성, 흥건한 땀으로 적셔진 양모의

27) 로버트 콜먼, 89.

찬미가 식었다.

“그런데요, 1년 정도 새벽기도 마치고 수원역으로 직행해 복음을 전하다 보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 담대함이었다는 것이다. 혼자는 힘이 든다. 먼저 길을 갔던 자가 손 내밀 때 잡고 한발을 떼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것은 현장에서 체감된다.

“성령의 안내를 받으니 욕도 동시에 먹던데요.” 고난도 함께 받는 영광을 거리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뭐 이런 내용이다. 필자의 경우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에게 붙들려 “무슨 사람이 하나님이나”고? 자신은 “과학 선생”인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한다며 “이씨(예수의 이슬람식 표현)는 아바타 아니냐”고 버스 뒷자리에서 필자를 향하여 열을 올렸던 사내도 있었다. 동네 아이들은 이슬람이 되라고 3-4명 몰려다니며 필자를 놀린 적도 몇 번 있었다.

“1년을 넘게 그렇게 하다보니 청년들이 모여 들었지요.” 좁은 상가 교회가 사람들이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야외 주방에서 한술밥 먹는 동질감이 생겨났고 예배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동질감. 아 이 생생한 밀착력. 눈빛으로도 조금 알게 되는 매력의 정서. 집단 기억, 어떤 사건을 함께 극복해간 체험은 그 조직을 끈끈하게 만든다. 이런 정서를 오늘날의 이슬람 관련 공개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만들어 낼까? 동질의 유대감 형성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케미가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을 팀으로 엮어내는 일이 요구된다.

2) 국내 무슬림 만남 시도

이 대목에서 충만한 교회처럼 국내 전도의 경험이 있다면 국내 무슬림 전도에 관해 펼쳐 보이는 것으로, 업그레이드해 볼 순서일 듯싶다. 그래서 이슬람권 현지에서 사역했다가 귀국한 이들의 경험을 들어봐야 한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갖게 되는 장애 요인들이 있지요.” 이란 선교사 출신 이만석 선교사가 이를 몇 개로 압축했음을 세네갈 선교사 출신의 이슬람연구원 본부장인 김형원 목사는 전해준다.²⁸

두려움을 첫째로 꼽았다. 이런 정서를 갖게 된 것은 방송에서 보여주는 잔인한 장면, 테러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선교사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씀으로 응했다. 둘째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부족함**을 말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목으로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사항이다. 셋째로 **이슬람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관련해 충만한 교회의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원역에서 어느 날 외치고 있었을 때 엄 목사의 배를 치고 가는 자에 응대할 겨를도 없이. “네가 누군데 나를 말하냐” 배아픔의 고통을 생각할 순간도 주지 않고 내부의 음성이 들려온 것이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엄 목사에게는 이것이 다메섹의 바울에게 밀어닥쳤던 은혜와 같은 것이었다.

그냥 그렇게 모태신앙의 목사가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 머릿속은 전구의 불이 켜진 듯했고 가슴은 풍선이 매달린 것 같은 감당하기 어

28) 김형원, “이슬람의 세계화 전략과 무슬림 전도”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 연구 2017 통권2호」 서울: 이슬람연구원, 2017. 114-116.

려운 기쁨이었음을 책에 적고 있다. 비가 내리던 그날 그의 목회 인생은 그 전과 그 이후로 달라졌다. 필자 역시 선교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내부의 음성들을 들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그 선교현장에서 시간을 인내 할수 있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한동안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그래서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슬림을 전도하는 태도²⁹를 알아보자. 무슬림을 이슬람 체제가 아닌 개인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이슬람과 무슬림에도 좋고 나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슬림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의 거짓은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길을 잃은 무슬림을 경멸 대신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다. 적진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노종해 선교사의 말레이시아 30년 현장 경험의 얘기³⁰를 참고해 보기도 한다. 도전을 주고 있다. **무슬림을 사랑하는 이유로** 첫째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동일한 시민으로 살기에 그렇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웃사랑이다. 하나님은 무슬림을 포함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질 속 현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풀어야 할 과제³¹이다.

29) 김형원, “이슬람의 세계화 전략과 무슬림 전도”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 연구 2017 통권2호』 서울: 이슬람연구원, 2017, 23-24. 조르주 후스니, 『이슬람 끝어안기』 신동철 역, 서울: 쿤란출판사, 2015, 57-61 재인용.

30) 노종해, “이슬람권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 무슬림에 대한 복음 증언의 실제 -” 『무슬림 선교를 위한 이슬람연구 2017 통권2호』 서울: 이슬람연구원, 2017, 6-8

31) 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으로 노종해, 『무슬림 이웃과 복음을 나눕니다』 서울: KMC 이슬람연구원, 2017. 참고.

3)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일하자.

뭐라 말할 수 없는 것이 가슴에 꽂 찬 엄 묵시는 신바람이 났다. 목회가 달라졌다. 동시에 자신처럼 모태신앙이나 전통적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난 태생적 교인들이 있음을 생각하니 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어떻게 전해야 하지? 그 생각으로 꽂 찼었다는 것. “그러니 어떻게요. 강단에선 사자처럼 복음을 선포했고 내려와서는 양치기처럼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했지요.” 교인들이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기도만 한다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자, 수원 역으로 나가자.” 주님이 함께하신다. 그 속에 먼저 가 계신 주님을 만나자.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다.

4) 다른 마을로도 가자

복음이 흘러가야 했으니 1999년 여름, 성령은 국내 전도 여행의 막을 열어주었다. 수원을 떠나 시골의 작은 교회를 빌려 그곳을 중심으로 그 마을에 직접 들어가는 사역을 진행했다. 그 교회는 임시 가버나움 선교센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그 교회 목회자는 작은 마을이라 뻔히 잘 알았기에 외지 전도대원들은 가가호호 방문했다.

지금의 시골이야 물론 그 20년 전과는 다르겠지만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인 만큼의 반응만큼이나 복음 전도하는 교인들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어 되네…” 난생처음 복음을 접한 분도 있었고 예전에 복음을 들었다가 멈춰 있는 이들이 있었는데 호의적인 반응으로 다가옴에 교인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혼자 하면 가능했을까? 아니다.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는 성경 말씀대로 한 것일 뿐이라고 충만한 교회는 전해준다. 수요일 배 때 그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전도 여행의 핵심이었다는 것. 이런 집단 기

역의 동질성은 다음 행보를 하는 디딤돌이 되었다.

“주님의 방법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생생한 경험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³² 설명보다 실행해 보이고 함께 하는 일. 위임받은 목회자와 동행하는 교인들의 관계는 견고해지는 것이다.

5) 국내 무슬림 공동체

이런 동일 민족의 한국 역사와 문화 사이에서의 종교는 거대 충돌 없이 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기독교 등으로 한국 사회를 이어가는데 이슬람은 과연 그럴까 하는³³ 경계의 시선이 연구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국내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의 37.9%가 이슬람의 지하드(聖戰)는 필요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³⁴ 이슬람 공동체 움마(Ummah)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 자료집 앞쪽에 통계로 기술돼 있는 국내 이주 노동자들, 향후 더 이슈화될 난민 문제들과 함께 한국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에 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농촌 마을에는 그때와는 다른 외국 사람들이 시집 장가를 들어 공동체 일원으로 들어와 있다. 누군가의 며느리, 사위,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로. 어느 사장님의 노동자로, 근로자로 말이다. 국내 복음의 텃밭이 다른 양들과 염소로 유지되고 확산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코슬림(코리언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은 필수다.

32) 로버트 콜먼, 91.

33) 박성수, 96-97. ‘유동식’과 ‘김종익’ 및 제임스 그레이슨의 의견을 짧게 다뤘다.

34) 허은열, 『국내 무슬림 공동체』 서울: 대서, 2012.

이슬람권 선교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교회는 상기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중에 국내 이슬람 공동체(우마)를 방문해 보게 될 것이다. 이태원과 안산 등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³⁵

은혜는 순간. 계속 유지하려면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는 훈련이 필요함을 충만한 교회는 알았다. 현장에서의 그 열정적 보고의 시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단계로 성령은 이끌고 있었다.

“전도 여행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히 12:28)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일상으로 복귀하면 옛 생활, 걸사람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그 교회 역시 체험했을 터이니 “2004년 3월에 제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반과 사역자반 과정으로 계속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한 목회여행이 앎과 이해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목자와 양들이 보다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한술밥에 진국이 올려진 것이다. 말씀의 잔치가 차려진 것.

6) 양육 속에서 남은 자들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듯이 열정이 들어감에도 그 열매는 쉽게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이다. 지식의 전달로는 안되는 것을 알았다. 생각이 변하지 않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시작해 앎으로 감에도 제자훈련을 서로 진행해갈수록 어떤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들”³⁶이 일어남을 체험한다.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고 흔들렸다는 것이다. 옆드려 기

35)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복음 전도의 첫 출발을 “들여간 것”으로 말하고 있다.(살전 2:1) 복음 전도는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일이다. 선교적 메시지를 갖고서(살전 1:9-10).

36)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참고).

도할 밖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야 하는데 바람에 휩쓸려 빠져버린 베드로를 경험한 것. 다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구에게 가오리까?”³⁷ 같은 베드로인데 다른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식은 설명을 통해 이해되기에 앞서 함께 거함으로 얻어져야함을 인격으로³⁸ 특별히 제자훈련이후 ‘비전’으로 전해져야 함을 알기엔 시간이 필요했다. 사역반까지 마친 사람의 수련회가 2017년 4월, 56명이었다.

7) 이슬람권 선교 실크로드를 따라

평신도와의 제자훈련은 말씀의 이끄심이었음을 경험했다. 그들과 더불어 진리와 자유로 가는 길이 된 것이다. 성령은 이슬람권 선교로 충만한 교회를 인도하셨다. 성도들의 잠자던 은사들이 교회를 풍성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이 300여 명의 교우들 머리 위 각자 내리는 형국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하니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된 것이다.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갈 때였다. “성경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성경적 원리, 그 오리지널 모델이 충만한 교회를 덮었다. 성령의 임재와 사역, 하나님의 선교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³⁹

37) 요 6:68.

38) 로버트 콜먼. 46.

39) 마 28:19-20.

현재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터키 및 캄보디아로 선교사를 파송한 충만한 교회. 코로나19 이전까지 해마다 전반기 5월 단기선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든 것은 자비량. 결정되면 10주간의 선교훈련이 진행된다. 외부 강사 3명도 참여하는 것이다.

거리에서의 복음전도, 국내 전도 여행, 그리고 제자양육을 통한 동질성 강화, 비전이 명확하니 이슬람 문화권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 은사공동체로 다듬어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중이다.

8)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이루어진다.⁴⁰⁾

‘임존’이 선교지에서 파송교회와 주고받은 선교편지에 사용하면서 지금도 쓰는 말로 한국 모국교회에서 중보를 해주어야 선교 현장이 더 살아난다는 의미란다. 이처럼 본부의 전략⁴¹⁾과 기도가 선교지를 안전하고 힘있게 만드는 원리임을 성경은 알려주는 것이다.

충만한 교회가 단기 해외선교를 나갈 때 중요한 역할은 교회에서의 ‘키맨’이었다. 이들은 현장에 있는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단기 선교 참여자가 60명이면 기도하는 사람도 60명 이상이었다. 올 때까지 매일 저녁 교회에 모여 기도하니 말이다.

기도를 통해 현장의 막힌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충만한 교회의 현장에서의 구호는 ‘막히면 예배하라’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체험을 현장에서 하는 것이다.

충만한 교회 교인 300여 명 중 청장년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수원역에서 함께 전도하는 청년들이 장년이 되고 교회에 남아 기독교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교회부설 어린이집도 한몫하고 있다. 평신도 선교사 30명을

40) 출 17:8-12.

41)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잠 24:6)

목표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충만한 교회. 코로나19 시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 기대하게 된다.

9) 다시, 하나님의 선교

‘충만한 교회’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그 교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허락한 꿈⁴²을 다시 꾸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존 스토틀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 지금도 말이다. “간절한 호소를 묵살했던 일. 양심의 가책으로 듣고 때로는 지적인 탐색으로도 들어야 한다. 문밖에서 두드리고 계심을 듣고 그 다음엔 열어야 한다. 여는 것은 분명한 행동인데 개인적인 것이다. 일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순간에 될 수 없다.”⁴³ 시급하니 우리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시, 결단하자.

10) K-Evangelist(한국적 복음 전도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 16:33)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믿고 가져와 제안한다. 우리의 복음은 고대 근동, 중동 땅 예루살렘의 성령강림으로부터 기원한 교회로부터 전달받았다. 한국인이라는 정서를 동시에 갖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향하신 ‘그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완전한 자로 세워지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목표”⁴⁴를 갖고 전신갑주를 입고 국내 무슬림과 이슬람권 선교지를 바라보자. 모험적 ‘화이부동’의 마음으로.

42) 창 28:15-19. 주님의 베개를 베고 자는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 미세한 소리를.

43) 존 스토틀, 『기독교의 기본 진리』 황을호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8, 202-205.

44) 살전 5:16, 골 1:28. 벵후 1:4-7.

11) 이슬람 이해 프로그램 – 이웃에 살고있는 무슬림 알기(안)

이미 한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2,014,433명(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21년 1월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슬람 협력기구 가입 외국인은 약 20만명. 불법 체류자들도 391,306명에 이르기엔 그리스도인 주변은 마음만 먹으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은 마련돼 있다. 그렇다면 접촉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이 문제가 대두된다.

사교성과 친화력 여부가 무슬림 접촉의 일반적 관건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 말했듯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음은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줄 것이다.

개체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슬람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독립된 유관 기관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슬람 이해와 더불어 전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십 년간 중동 및 이슬람권에서 사역한 전문가들이 기획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본부 산하 이슬람 연구원에 두는 것 또한 만사지탄을 조금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 우리 곁으로 다가온 미전도 종족, 그 특별한 이웃에 대해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8주에 걸쳐 각1회에 2강씩,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총 15강의 프로그램이다. 내용별로 보게 되면 이론과 실재를 균형 있게 구분했다.

1강에 현 한국사회 구성체의 변화 가운데 이슬람적 요인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를 배치하여 변화하는 한국내 기독교 위상 점검을 모색하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정신을 재무장하는 시간을 선행시켰다.

지금 여기 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는 것이 우선이다. 제4차 혁명 시대와 한국 사회 이해이다.

2강은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관점, 그 접근 방식을 정립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무슬림들의 삶과 신앙, 이에 대한 미전도 종족인지, 아니면 이미 다가와 옆에 있는 이웃으로 수용한 울타리 바깥의 양인지. 그들을 대하는 자세를 다듬어 본다.

3강은 민속 이슬람과 정치 이슬람주의를 분리 아닌 구분해 파악해 접근한다. 미신적 요인을 가미한 다양한 민속 이슬람과 샤리아에 기초한 제도권 정치를 이끌고 있는 일부 나라의 이슬람주의를 이해해 본다. 근본주의, 원리주의 등 용어 습득과 더불어 이슬람 종파와 각 정파를 탐구한다.

4강은 기독교와 이슬람에 차이점과 공통점. 그 접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역사와 교리 등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슬람은 무시 못할 현실이기에 타 종교로 인식, 다가가 보는 것이다.

5강은 이미 신라 말과 고려 초기때부터 페르시아계 무슬림으로부터의 접촉이 있었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지난 역사를 점검해 현시대의 한국 무슬림들을 이해해 볼 것이다.

회차	강의	구분	내용	비고
1회	개강	여는 예배 및 오리엔테이션	한국사회 구성체의 변화 속 무슬림	제4차 혁명과 한국사회 이해
월 일	1강	영성과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회복	복음과 상황
2회	2강	무슬림의 삶과 신앙, 그 시선	미전도 종족, 새로운 이웃	관점 이해
월 일	3강	민속 이슬람과 이슬람주의	민속과 정치, 종파 알아보기	정파 이해
3회	4강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간 차이 및 공통점	공존 혹은 대립
월 일	5강	한국 이슬람의 역사	한국 이슬람 과거 이해	역사 인식
4회	6강	국내 무슬림 실태	옴마와 에클레시아	도전
월 일	7강	국내 이주민 사역	새로운 에클레시아 실험	모험
5회	8강	국내 무슬림 지역 현장 접촉 1	일상 속 무슬림	현장
월 일	9강	안산 등	옴마	워크숍1

회차	강의	구 분	내 용	비 고
6회	10강	국내 무슬림 현장 접촉 2	일상 속 무슬림	현장
월 일	11강	이태원 등	모스크	워크숍2
7회	12강	복음과 무슬림 1	증거하는 삶 1	전도 이해
월 일	13강	복음과 무슬림 2	증거하는 삶 2	전도 이해
8회	14강	이슬람의 생활문화	접촉점 모색	일상 이해
월 일	15강	선교하는 하나님	무슬림에 부는 거룩한 바람	미시오 데이

6강과 7강은 국내 무슬림 공동체(옴마) 실태 이해와 도전적인 사역을 하는 전문가의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5-6회 8강에서 11강까지는 현장 워크숍으로 진행되는데 안산과 이태원 등 현장을 방문, 전도하는 사역자와 더불어 접근해 볼 것이다.

이를 기초로 12강, 13강은 복음과 무슬림. 그 전도 방법에 대한 이해를 살펴본다. 마지막 8주차, 14강, 15강은 이슬람의 생활문화, 그들의 일상을 다시금 갈무리하면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실례로 우리의 소망을 품어 본다.

4. 이슬람권 선교 현장의 사역자와 협력체제 구축 방안

선교국과 파송 개체 교회 및 현장의 소리를 갈무리하는 팀워크 수립이 필요하다. 기도 편지는 현장의 최신 소식이 들어있다. 더욱이 일부 기도 편지는 선교신학에 가까운 창의적 아이디어가 게재되기도 할 것이다. 이런 현장의 소리, 생생함을 본부와 개체 교회에서 갈무리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출될 것이다.

지역별 사역별 주제별 키워드로 뽑아내는 안목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1) 현장의 소식(기도편지) 수집 및 분석

기존의 기도 편지를 보관하기보다는 분석하는 팀을 만들어라. 이는 선교사 후보생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수련 선교사 1년 과정을 선교국과 이슬람 연구원에서 동시에 재배치하는 것을 연구 고려해야 한다. 연회별 대상자를 3-4개 권역별로 묶어 월 1회 정례모임을 갖게 하라.

2) 파송 교회 현황 파악 및 네트워킹

선교국에서 분기에 1회 이상, 파송 교회들의 회합을 주관하라. 그때에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라.

3) 기도가 강한 교회와 중보기도회로 연결

기도 및 기도회가 특화된 교회에 중보기도 제목을 전달함으로 연결해 타문화 현장 선교와 영적 교류를 하도록 맺어줘야 한다. 선교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물질 후원이다.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기도하자. 기도와 후원과 사람, 성령의 고리로 연결돼야 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합심해 기도해야 한다.

4) 후원하는 곳으로 기도가 흐르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이 역류하여, 기도하다 보니 물질적 후원으로 흐르게 됨도 볼 수 있다. 물질 토대의 안정감은 기본이다. 이것이 잘되도록 후원자를 연결해 줘야 한다.

5) 선교사를 특화시켜라

전문가로 특화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 연구, 교회 개척, 문화 사역, 다음 세대 양육 등의 전문 자격증 제도가 있다면 취득할 수 있도록 힘써보자. 또한 서적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해야 한다. 이런 연구 서적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잡아하는데 실제적이다. 창의성은 이런 전통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

5. 나가는 말

짧은 3개의 언론 보도 기사를 통해 ‘직면한 땅 끝, 이웃한 무슬림’의 시대적 단상을 알아보았다. 사회적, 정치적, 산업적 측면으로의 접근이었다. 또한 가장 도전적이고 유용했을 이슬람권 선교적 교회의 실제 상황을 간접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확인해 보았다.

하여 우리는, 이제 다시금 성경적 오리지널 모델을 통해 우리의 신앙적 삶을 재점검해야 한다.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 거룩한 결단의 기도를 하며 한 걸음을 떼자.

IV. 이슬람권 선교의 현장 사례

A국

가 선교사

1. 선교지 상황

1) 국가 개관

A국은 중앙 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쳐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으로는 중국, 남쪽으로는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다. 인구는 1,800만 명이며 130여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이지만 종교는 70% 이상이 이슬람교이며 러시아 정교회를 제외하고 개신교는 2%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족, 종교 화합 정책이 국가 목표이므로 이슬람 정부 아래에서도 교회로 등록하면 등록된 교회 안에서는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다. 단 교회 설립자 50명이 서류에 사인해야 교회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설립자들은 모든 서류에 교회 명과 설립자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개종한 현지인들은 교회 설립자가 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다.

2) 사역지역

(1) 일반현황

• 인구

A국의 북쪽에 위치한 선교지 빠블로다르는 산업 도시이면서 교육 도시이다. 인구는 37만명이고 타 지역에 비해 러시아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선교사가 사역지로 파송되어온 1993년에는 러시아인이 75%정도 되었었는데 2020년에는 50%미만이고 지금은 카자흐인들이 50% 이상이다. 그 이유는 빠블로다르가 러시아와 국경을 두고 있어서 러시아인들과 독일인들이 고국으로 많이 돌아갔고 시골에 있는 현지인들이 도시화 현상으로 도시로 몰리면서 인구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 소득과 교육

빠블로다르는 산업 도시로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알루미늄 공장, 크롬 공장이 있으며 70여개 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공장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석탄 광산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원유가 생산되는 서부 지역이나 대도시 누르술탄과 알마티에 비하면 개인 소득이 낮은 편이다.

교육 기관은 45개의 초, 중, 고와 교육전문대학교, 간호 전문대학교, 공업 전문대 등등 여러 전문대학들이 있고 대학교는 빠블로다르 국립대학교, 국립 사범대학교, 이네우 사립대를 비롯해 여러 대학교의 분교가 있다.

초, 중, 고에서는 러시아 교육 방식을 따라오다가 A국이 독립한 이후 서서히 카자흐스탄 교육 체계를 갖추고 현지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바꾸고 있다. 초, 중, 고 전체 과정을 11년제에서 12년제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의료 체계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부실한 의료 체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의료진의 실력이나 체계가 열악해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도 가정에서 치료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특이한 폐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2) 선교현황

빠블로다르 주에는 8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슬람을 비롯해 모든 종교에 법이 균등하게 적용이 된다. 이슬람 정부 아래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종교법은 모든 종교에 평등하게 적용되지만 그것이 개신교 선교에 상당한 불이익을 준다.

종교 단체 설립에는 50명의 설립자가 사인을 하고 등록을 해야 허가가 나는데 문제는 개척 초기 개신교 단체에서 설립자 50인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카자흐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인이기 때문에 이슬람 모스크를 등록하는 데에는 아주 작은 시골이라 할지라도 50명을 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아주 작은 시골도 계속해서 이슬람 사원은 신축되고 봉헌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 교회는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정 모임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가정 모임은 테러리스트를 양산한다는 명분하에 철저히 감시하며 모임을 규제해서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가 등록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등록된 교회의 지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모임이 비록 작아도 주 정부에 신고하고 등록되기 전까지 정부의 감시 하에 예배를 드려 나가는 것이다.

(3) 개신교 선교 역사

A국은 2021년이 KMC 선교 30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이다. 1991년에 이인기 선교사가 남쪽 알마티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 이후 1993년에 김성수 선교사가 북쪽으로 파송을 받아서 감리교회가 카자흐스탄에서 시작되었다. 2020년인 지금도 남쪽은 알마티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북쪽은 빠블로다르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해 나가고 있다

2. 선교사 소개

1) 사역 기간

1993년 7월 13일-2020년 현재

1993년 7월 7일에 알마티로 입국을 해서 7월 13일에 선교지인 빠블로다르에 도착했다.

2) 가족 사항

1993년에 선교사 파송 당시에 부부 선교사, 생후 7개월 반 된 아들과 선교지로 파송되었고 1997년 둘째 아들을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얻었다. 27년이 지난 지금은 큰 아들은 현지에서 러시아식으로 유치원 교육부터, 초등교육, 중, 고등교육을 받았고 대학교에서는 영어 교육학을 전공, 대학원에서는 러시아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2020년 2월 18일에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다시 현지로 돌아왔다.

이미 문화를 알고 무슬림 친구들이 수두룩하고 러시아어를 비롯해 영어, 카자흐어까지도 할 수 있는 감리교회의 귀한 자산인 선교사가 된

것이다.

3) 은사, 경력

본인에게 은사는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은사가 있는데 어린이 축구 교실도 해봤지만 특히 태권도를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현재는 빠블로다르 주 태권도 협회 회장으로 시무하고 있고 ○○○ 태권도 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다.

4) 기타

재정은 자립한 현지 태권도 학교를 통해서 95%의 재정을 채워 나가고 있다. 나머지 5%의 재정은 선교비로 충당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문제 없이 이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현재 사역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다. 협력 선교사로 아들 김영로 선교사 부부가 시무하고 있다.

3. 선교 사역

1) 사역 목표

선교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사역의 목표이다. 이슬람 지역에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헌과 함께 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목표를 스포츠 선교와 교육, 구제 선교에 두고 있다.

2) 사역 추진 중점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는데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지인과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협력 하는가 이다. 그래서 선교 초기부터 마약과 흡연, 음주가 만연한 카자흐스탄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는 스포츠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 하에 태권도 학교를 개교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3) 실천 프로그램

(1) 교회 개척 사역

가. 빠블로다르 소망교회 개척

1993년 7월 13일에 빠블로다르에 도착하여 선교사 집에서 고려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 그후 27번 학교 교실을 임대하여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교사 연수원으로 이전하여 사역을 계속 진행하였고 통계청으로 예배처소를 옮겨서 교회를 건축할 때까지 예배를 드렸다.

1996년에 정부로부터 3600평방미터의 땅을 임대 받아서 교회 건축을 시작하여 1997년에 완공을 했다. 1998년 10월 10일에 무슬림 땅에서 감격적인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초기에는 고려인들만이 예배에 참석을 해서 고려인 교회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는 러시아인, 카자흐인 등 6개 민족이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나. 악수 소망교회 개척

2007년에는 인근 도시 악수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5년동안 훈련시킨 굴나라 집사를 파송하여 악수 소망교회를 섬기게 하였다. 악수교회 성도는 카자흐 원주민과 러시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누르술탄 소망교회 개척

2019년 5월5일에 수도 누르술탄에 신학교를 졸업한 루스툼 전도사부부를 파송하여 빠블로다르 소망교회에서 이사 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했다. 누르술탄 성도의 구성은 빠블로다르 소망교회에서 이사 간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100%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2) ○○○ 태권도 학교 사역

1993년 클럽으로 시작된 태권도를 교회 옆 부지에 태권도 체육관 2동(1230평방미터)을 건축하여 ○○○태권도 학교라 명칭하고, 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 정식 스포츠 학교로 등록하여 400명의 학생이 운동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700명 정도로 학생 수를 늘리려고 한다.

꾸준히 제자를 키워서 현재 12명의 사범을 소유하고 있는 규모 있는 학교로 성장하였다.

(3) 한글학교 사역

1993년부터 시작한 한글학교는 꾸준히 매년 120여 명의 현지인 학생들이 한국어와 K-POP을 배우고 있다. 6명의 교사가 대부분이 무슬림인 학생들에게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

(4) 석탄 구제 사역

의류와 식료품 구제 사역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중단 되었었는데 2019년부터 한국의 연탄 은행과 연결이 되어 적게나마 석탄 구제를 하게 되었다. 빠블로다르 주에 배정되는 양은 석탄 70톤 정도로 많지는 않아 가

장 추운 지역이라 더 많이 배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4. 사역 평가

1) 사역의 열매

(1) 교회 사역의 열매

사역지 빠블로다르가 카자흐스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저 -47도까지 떨어지는 시베리아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추운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마음 또한 차갑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 하지만 빠블로다르 소망교회를 건축하고 꾸준히 제자를 키운 결과 성도들과 제자들을 얻어서 악수 소망교회, 누르술탄 소망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하고 있다.

남쪽 알마티와 수도 누르술탄에는 한인들이 있는데 빠블로다르에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선교사 가족 외에는 한인이 한명도 없고 고려인들만 소수로 살고 있다. 따라서 고려인들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카자흐 원주민인 무슬림 개종자들과 러시아인 등등 6개 민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2) 태권도 사역의 열매

현재 4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족과 연령층에서 배우고 있는데 성인 국가대표와 청소년 국가대표, 장애인 국가대표, 농아인 국가대표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있다.

주요대회 결과로는 아시아 선수권대회 우승 및 3위, 세계 대회 출전, 농아인 올림픽 5위, 아시안 게임 3위, 장애인 세계 선수권 3위, 4위와 국제 대회 다수 수상이 있다. 주 정부 산하 올림픽 후원학교와 체육 고등학교에

서 태권도 육성 프로그램으로 우리 태권도 학교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주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선수들의 대회 출전비를 후원하고 있다. 국제 대회 및 국내 주요 대회에 참석하는 선수들에게 철저한 관리하에 출전비로 연 1억원 이상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태권도 체육관 건물과 교회가 바로 옆에 있어서 태권도 학교를 통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에는 교회 옆에 있다고 체육관에 들어오지 않던 무슬림들도 태권도 체육관은 물론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꺼리지 않는다. 전 카자흐스탄 태권도인들도 김성수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를 알고 있고 매년 1월 초에 중요대회를 개최하는데 러시아와 전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태권도 학교는 자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회의 부족한 재정적인 부분도 채워주고 있다.

(3) 한글학교 사역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배우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으로의 유학이나 한국에서 직장을 얻고 싶어서 배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물론 한류의 영향이 한글학교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K-POP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과 언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의 비율이 50/50 정도이다.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 경북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직장을 얻어서 나간 학생들도 있다. 현재는 학교가 재외 동포 재단에 등록되어 재외동포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제자가 성장하여 현지 교사가 된 교사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4) 석탄 구제 사역

2019년에 한국의 연탄 은행으로부터 배정을 받아 석탄 70톤으로 구제를 했는데, 이 사역을 하는 알마티의 선교사가 추운 지역으로 더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준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곳은 8개월 가량이 난방하는 기간으로 남쪽보다 난방비가 몇 배 더 들어가는 지역이다. 각 지역으로 적은 양의 석탄을 보내기는 하지만 각 지역 책임자(군수나 면장 정도)를 통해 구제를 하므로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지역에 태권도 학교를 개설할 기반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석탄 구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효과도 기대해 본다.

각 지역들은 도시와는 달리 거의 카자흐 원주민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개종한 성도를 훈련시켜 파송을 한다면 구제 사역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2) 문제점, 또는 장애 사항 극복, 실패 교훈 등

(1) 교회 사역에 있어서 빠블로다르는 다른 주와는 달리 종교 담당국에서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고 도와 주는 입장으로 법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있다.

매년 종교 단체 대항 체육대회도 하며 친목을 다질 뿐만 아니라 종교국 주최 세미나, 모임 등등을 통해 친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선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을 때에 최대한으로 선교에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태권도 학교 사역에서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운동을 하다가 16-17세가 되면 대학 진학과 진로의 문제로 운동을 그만 두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

나 시급한 현실이다. 세미 프로 구단을 만들어서 최소 생활비라도 지급하며 운동을 시키면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세미 프로 선수들을 보며 꿈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운동하는 효과도 가져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다.

매년 좋은 청소년 선수들이 태권도를 그만 두게 되는데 최소 5명의 선수들에게라도 월 30만 원 정도 지급하며 운동을 시킨다면 수년내에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매월 3,000달러의 재정이 확보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3) 한글학교 사역은 학교 수업과 한글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데 학생들로서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곳의 학교들은 숙제를 워낙 많이 내주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한국어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주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 나가는데 유일하게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주말에 공부를 꾸준히 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9월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하지만 학기 중간으로 갈수록 일반 학교 수업의 부담감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수업 내용과 활동 내용들을 보충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5. 결언(제언)

타 선교사에게 권면 추천하는 사역 노하우 포함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느낀 것은 반드시 지역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은 그것을 태권도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선교지에서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오면 CIS 지역으로 나가려고 준비하는 지망생들에게 준비 기간동안 장소를 제공해 주고 철저히 준비해서 선교 초기부터 재정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싶다.

우리 교회에는 자취와 30명 정도가 공동 합숙할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를 준비하고 태권도 유단자가 되게 도와 주어서 파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 본인은 직접 단 심사를 보고 결과를 국기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언어와 태권도를 배우고 사역지로 갈 경우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도움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태권도를 하게 되면 지역의 고위 관리 자녀들이 찾아 오게 되고 경찰 관계자의 자녀들이 많이 찾아온다.

따라서 선교사의 신변 안전과 선교의 방패막이가 되어 준다는 것이다.

1. 선교지 상황

1) 국가 개관

B국은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열대우림 기후를 나타내고 있다. 이억 육천 만 명의 인구를 갖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서, 300여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B국은 대통령제의 국가로서 지방자치제가 발달되어 있다. B국은 자체적인 공용어가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각 지역의 종족어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종족언어는 742개로 추정되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족언어는 8,0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J종족어이다.

B국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이슬람교, 개신교, 카톨릭교, 힌두교, 불교, 유교 중 하나를 가져야 하고, 사회의 많은 영역들이 종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인구가 8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개신교(6%), 카톨릭(3%), 힌두교(2%), 불교(1%), 유교(1%) 등 이다. 이렇게 대다수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B국 사회 전반이 이슬람교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B국의 이슬람교는 중동의 이슬람교와는 달리 풍속이슬람이라 불리며 민속신앙인 애니미즘과 결합된 성격을 갖는다.

2) 사역 지역

저희는 M지역을 거점으로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가정도서관, 무슬림 마을 부녀회, 무슬림 전도와 양육, 이슬람학교 성품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 활성화 사업, 교도소 영적 독서나눔과 양육, 대학생사업, 한국 전래 동화 연구팀 설립 및 운영, 시립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 프로그램 시행,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서의 번역과 출판, 의료 건강, 장학금, 중보기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치원과 작은도서관 설립을 컨설팅하는 교육연구 소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A지역(현지 교육단체와 협력하여 유치원, 방과후학교, 작은도서관 사업), B지역(현지 교육단체와 협력하여 방과후학교 사업), L지역(현지 교회와 협력하여 유치원 사업), P지역(서양 선교사와 협력하여 작은도서관 사업), BK(현지 교육단체와 협력하여 유치원, 작은도서관 사업) 등, 저희의 사업 지역은 B국 전역에 걸쳐 있다.

첫째, M지역은 약 300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 60여 개의 대학교가 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구는 7% 정도이지만, 이전부터 서양의 많은 선교 단체들이 활동을 하였고,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는 선교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저희의 거점 사업 지역이다.

둘째, A지역은 B국 동부지역에 위치하여 섬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전체 40만 명 정도의 인구 중,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는 지역이었지만, 이슬람교의 무슬림 이동정책으로 인해 무슬림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기독교인구가 45%정도이다. 특히 이 지역은 20년 전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수 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많은 교회들이 불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무슬림과 기독교인의 긴장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영적 침체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도 하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섬기고 있는 현지교육선교단체와 협력사업하고 있다.

셋째, B지역은 B국 초대 대통령의 고향으로서, 현지 무슬림들은 이 대통령의 묘지를 이슬람교의 성지 중 하나로서 숭배하고 있기도 하다. 이 지역 가운데 시골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 교육선교단체와 협력사업하

고 있다.

넷째, L지역은 인구가 100만 명 정도의 지역으로서 도시와 정글이 함께 있는 곳이다. 이 곳은 90%의 무슬림과 3.7%의 기독교인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강성 이슬람교의 성격을 지닌다. 이 지역 가운데 J섬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J섬 사람들이 세운 시골지역의 현지 교회가 세운 유치원과 협력사역하고 있다.

다섯째, P지역은 인구 35만 명의 도시로서, 얼마전 지진과 쓰나미로 만 명 이상이 희생당한 곳이다. 도시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고, 기독교인구는 13% 정도이다. 특히 이 지역은 두 종교간의 합의로 인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 도시 내부의 특정 지역에 교회가 밀집되어 있다. 땅의 액상화 현상으로 마을 전체가 함몰된 접경지역에서 거주하는 서양선교사와 협력사역하고 있다.

여섯째, BK지역은 J섬 서부의 시골지역으로서 교육적 혜택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중국계 B국 불교인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편부모나 부모가 없이 조부모와 함께 자라는 어린이들이 많다. 현지교회와 현지 법인과 협력사역하고 있다.

2. 선교사 소개

1) 사역 기간

저희는 B국에서 2009년 7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

2) 가족 사항

나 선교사 부부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아들은 현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딸은 현지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다. B국에 가족이 함께 2009년 입국하여 현재 2020년까지 살고 있다.

3) 은사 및 경력(본인/ 배우자의 특별한 경험과 달란트)

남편 선교사는 모태신앙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경험하면서 방언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음악과 찬양에 달란트가 있고, 조직적,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기획 및 행정에 관한 은사도 있다. 그리고 현지어로 책을 번역하였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다. 한국에서 청소년과 청년사역 4년, 그리고 5년 동안 부목사로서 목회 전반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현지 국립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박사를 취득하면서 교육선교적 관점으로 논문과 아티클들을 작성하고 이것을 교육선교사역 현장에 적용하였다.

배우자 선교사도 기획 및 행정에 뛰어나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 사역으로 이어나가는 인사이트와 실행력이 강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는 은사가 있으며 방언과 방언통변, 예언,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다. 학부에서 유아교육 전공, 대학원에서 기독교학 그리고 신학(기독교교육)을 전공하고, 현지 국립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위한 논문을 쓰며, 교육공학 분야에서 교육선교적 관점으로 독서교육을 통한 성품개발 프로그램을 현지 학교에서 실시하였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교 현장에 적용하였다. 선교지에 나오기 전에 유치원 임용고시 학원 강사, 교단 교육국에서 교회학교 교재, 여름성경학교 교재 등을 집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국내 100인 강사에 선정

되어 부모교육, 기독교인 경제교육, 교회교육 부분에서 강사 활동,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교육위원으로,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모니터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상담과 관련하여서 가족폭력상담 자격증, 성폭력상담 자격증(이하 여성부), 부부상담 자격증, 죽음과 상실상담 자격증(이하 치유상담협회 자격증), 상담사 2급 자격증(복지부로부터 직업번호 취득), CPE(감리교 신학대학교 부설 목회임상센터, 이대목동병원) 등을 소지하고 있다.

4) 기타(후원, 재정, 협력 선교사 유무)

재정후원은 파송교회, 후원교회,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매년 현지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에 비해, 후원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더불어 사역의 확장과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며 교육비 지출이 커지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월급을 주며 동역하는 현지 사역자는 없지만, 현지 교육선교단체, 현지 교회, 국제 선교단체 선교사, 한인 선교사와 협력하고, 재능기부 자원봉사자와 비정기적으로 현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여 사역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한인교회선교단체에서 파송 받은 한인 선교사와 협력하고 있으나, 파송 3년차이기에 아직 언어와 문화를 익히며 배우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3. 선교 사역

1) 사역 목표와 방향

저희의 무슬림 사역은 대표적으로 ‘관계사역’, ‘무슬림 마을사역’, ‘이슬람 학교사역’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마을의 학습센터

의 기능을 하는 ‘작은도서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는 이러한 형태의 사역을 LAM(Library As Mission)이라는 새로운 무슬림 선교모델을 만들고 전략적으로 시행하였다.

저희의 무슬림사역의 사례를 기술하기 전에 저희의 전반적인 사역의 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적 세계관, 성품독서교육을 통한 무슬림들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폐쇄적인 이슬람적 세계관을 개방시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고, 성품교육을 통해 변화된 성품을 가진 그 무슬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그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고넬료 이야기, 행 10:1-8). 무슬림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기존의 이슬람 세계관에 근거해서 복음과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세계관 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위와 같은 사역을 통해 무슬림들과 형성된 깊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무슬림들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성경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양육한다. 셋째, 복음을 받아들인 MBB(Muslim Background Beliver)가 양육을 받아 친족과 이웃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무슬림 마을에 예수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넷째, 현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을 깨워 선교를 지향하는 건강한 현지 교회와 교육선교단체로 성장시킨다. 다섯째, 현지인, 한인 교민과 한인 선교사 사회에 중보기도 모임을 만들어 선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섯째, 세계선교를 위해 타교단과 타선교단체와 연합하고, 지원하고, 협력한다. 일곱째, 현지인 또는 후임 선교사에게 선교사역 이양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추진한다.

2) 사역의 전략 및 실행

(1) 관계 전략 및 실행

기독교 외국인이 아무런 연고 없이 무슬림 마을에 곧바로 직접 들어

가서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첫째, 무슬림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무슬림의 초대를 받아 무슬림 마을을 방문하였다. 둘째, 그 마을을 자주 방문하여 이웃 무슬림들과 친밀하게 지내며 관계성을 넓혀 갔다. 셋째, 위와 같은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무슬림 마을에 선교적 거점인 작은도서관을 세웠다. 여기에는 저희의 특수 사례가 있다. 저희는 무슬림 사역을 위해 ‘교육’이라는 매체를 통해 사역을 하기 원했고, 이를 위해 현지 국립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세우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였다. 하지만 무슬림 사역을 오랫동안 한 저희의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 없이 좋은 관계성이 형성되면 작은도서관은 설립될 수 있다고 본다. 넷째, 작은도서관이 설립된 후, 그 마을 무슬림 공동체에 의해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위해 무슬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을 찾아갔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함께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적으로 무슬림 주민들을 만나거나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이슬람 명절 기간에는 마을의 거의 모든 무슬림 가정을 방문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 공적(公的)으로는 마을의 경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거나 마을 회의 참석, 마을 부녀자회 임원활동, 마을 영유아 건강검진 등에서의 봉사 등으로 함께 하였다. 그 동안 무슬림 사역을 한 결과 느끼는 것은 이러한 무슬림들과의 ‘좋은 관계’가 그들의 입에서 친구와 형제로 불리어졌을 때 비로소 무슬림들이 기독교 외국인을 수용했다고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일대일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였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2) LAM 전략 및 실행 : 제도권과 비제도권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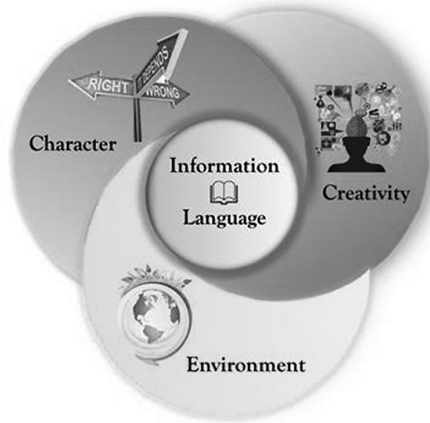
저희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육’을 매체로 하여 관계를 맺고 그리고 복음 전도와 양육을 하였다. 무슬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

나는 기독교인들을 속(俗)되다고 생각하여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직장과 사회에서는 그 경계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무슬림들의 개인적, 종교적 삶의 영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배타성과 차별성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무슬림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무슬림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세워 그것에서 파생된 학생, 학부모, 친척, 마을 부녀회, 지역 학교, 관공서와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무슬림의 일상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통로는 바로 마을 학습센터의 기능을 갖는 작은도서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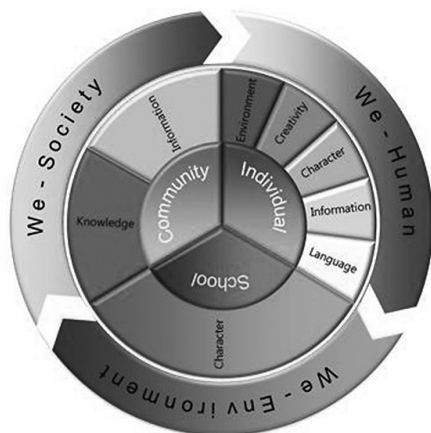
저희는 2012년에 비제도권 교육 시스템인 작은도서관을 선택함으로써 LAM 전략을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제도권 학교의 요청에 따라 사역이 확장되었다. 사역 초인 2012년 제도권 교육, 즉 정부의 허가과 통제 아래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보다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전 연령의 무슬림들을 교육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현지화된 ‘작은도서관’ 시스템을 만들어 교육선교에 도입하였다. 이 작은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교육 내용을 갖고 있다. 첫째, ‘언어 교육’, 둘째,

‘정보 교육’, 셋째, ‘창조성 교육’, 넷째, ‘환경 교육’, 다섯째, ‘성품 교육’. 이것을 도식으로 이해하면 옆에 그림과 같다.

이 LAM을 통한 무슬림 교육 선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영역을 갖는다. 첫째,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한 ‘Individual’ 영역에서의 위에 설명된 다섯 분야의 교육. 둘째, 작은 도서관이 위치한 무슬림 마을 주민들을 위한 ‘Community’ 영역에서의 두 분야에서의 교육, 즉 마을신문을 통한 NIE(Newspaper In Education)와 이동도서관. 셋째, 작은도서관 주변의 이슬람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School’ 영역에서의 성경적 세계관, 성품독서교육 영역이다. 나중에는 이것이 확장되어 학교도서관 활성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독서태도를 진단하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독서능력과 태도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 집단보다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교육선교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한류의 열풍 속에서 한국과 B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슬람 학교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첫째와 둘째 영역은 작은도서관이라는 비제도권 교육사역이고, 셋째 영역은 학교라고 하는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시행하였다. LAM을 통한 교육선교 사역은 단순히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마을과 소통하고 지역 학교들까지 섬기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교육정책 전략 및 실행

B국 교육문화부는 2010년부터 ‘18가지 성품교육’ 정책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2017년에는 ‘성품강화교육’ 정책이 발표된 만큼 교육현장에서는 성품교육이 교육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장의 필요를 파악하여, B국 교육 정책에 부합하는 성품교육 프로그램을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개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정부의 학교문해운동(School Literacy Movement)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성품교육 프로그램과 융합하여 성품독서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저희의 교육선교 프로그램은 현지 교육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여, 이슬람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현지 교육관계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게 되었다.

(4) 복음전도 전략 및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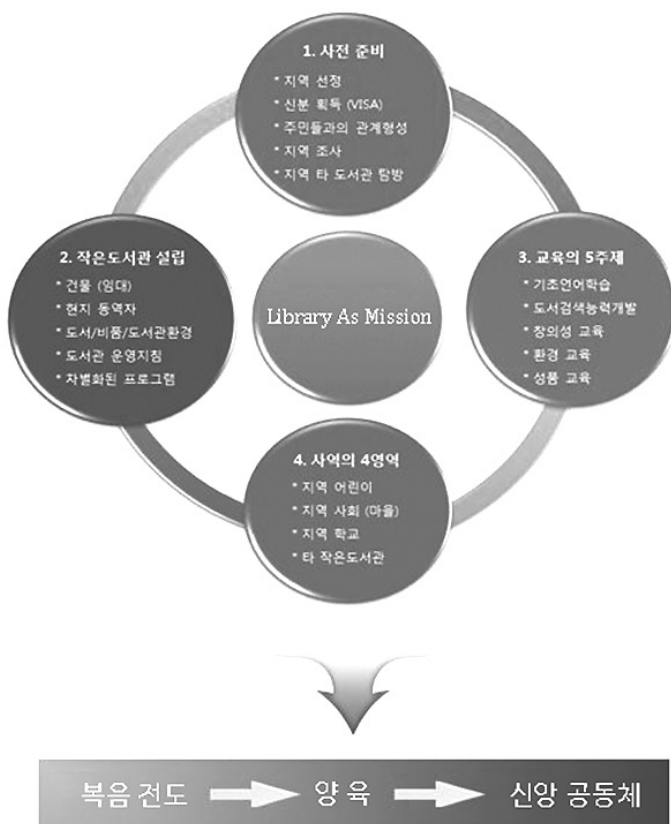
무슬림 사역은 교육 사역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의 최종 목적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자발적인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슬림들을 위한 교육 사역을 통해 무슬림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성을 맺은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복음 전도는 몇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첫째, 자체적으로 제작한 마을 신문을 통해서 복음을 소개하고 전한다. 둘째, 기독교 명절인 부활절과 예수승천절, 그리고 성탄절에 지역의 가난한 가정 등을 방문하며 생활품과 선물을 전하며 그 날의 의미를 설명하며 복음을 전한다. 셋째, 이러한 기독교명절에 작은도서관에서 교육 행사를 개최하여 참석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넷째,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진 무슬림들에게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다. 다섯째,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동물 ‘희생제’ 명절이 있다. 이 기간에 무슬림 가정들을 방문하여 성경적 희생제의 의미를 나누며 복음을 전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수의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였다. 현재는 이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양육하고 있다.

(5) 양육 전략 및 실행

선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MBB를 위한 양육 교재는 말씀을 개인 삶에 적용하는 3Any, 4T, 기존 제자훈련 교재와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제작한 One Story Project, MBB를 위한 성경 이야기 등이 있다. 이 교재들을 참고하면서 ‘예수보혈기도문’이라는 기도책을 기반으로 하여 기도중심의 양육 형태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한 이유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습관이 되어 있고, 기도가 그들에겐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기에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양육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을 존중하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예수 보혈 기도문’을 B국 언어로 번역, 출판하여 이것을 통해 MBB를 양육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무슬림 선교사역을 위한 LAM 모델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도표로 만들 수 있다.



3) 무슬림 사역 기지로서의 작은도서관 사역 세부 실행

무슬림 선교사역을 시작할 때 접하는 어려운 점은 ‘어떻게 무슬림들에게 접근할까’이다. 무슬림들에게 선교사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가운데 무슬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져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결국에는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의 주체인 선교사가 경건한 삶을 살며 무슬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다음은 본 선교사가 진행하

였던 작은도서관을 통한 무슬림 사역의 진행 과정이다.

(1) 사전 준비

무슬림 사역을 위한 작은도서관 설립에 있어서 준비 단계에서는 지역 선정, 지역 조사, 사역에 합당한 비자 획득,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성 형성, 동일지역 타 도서관 탐방 등을 수행하였다. 한국과는 달리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무슬림 지역사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선교사나 목사로서 노출된 신분으로서는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수 없다. 그래서 선교사의 보안을 염두에 두어 예상하고 있는 무슬림 지역의 주민들이 그 선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지도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다. 그리고 현지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선교사가 세우려고 하는 작은도서관이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계획되거나 시행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저희는 적어도 9개월 정도 그 지역을 조사했고, 지역 관공서에서 통계자료를 얻어 그 지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면밀하게 연구하며 기도하였다.

무슬림 시골마을은 혈연과 지연, 그리고 이슬람교로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타 종교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가서 생활하기 힘들다. 더구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들어가서 정착하기 힘들다. 저희의 경우, 무슬림 교육사역을 위해 현지 국립대학교에 교육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입학하여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사역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 여기에서 자격이라 함은, 박사 논문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여러 가지 교육적 실험을 한다고 무슬림 지역주민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명분은 무슬림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은 그 곳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을 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의 공동체의 한 가운데 외국인에 의해 세워진 작은도서관은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는 관심과 관찰의 대상이고, 선교사의 모든 말과 행동은 그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선교사가 그 지역 무슬림 주민들과 어떻게 관계성을 만들어 가며, 결국에는 그들의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작은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외국인을 깊이 받아들여 주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 저희가 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에서 경조사가 열리면 2-3일 전부터 마을 부녀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면 나○○ 선교사도 그들과 함께 음식을 만든다. 둘째, 매주 열리는 마을부녀회 정기 모임에 참여한다. 나○○ 선교사는 이 모임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 셋째, 비록 종교가 다르지만 무슬림들의 종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무슬림 공동체는 모든 지역사회의 행사를 이슬람식으로 진행을 한다. 선교사는 비록 종교가 다르지만 무슬림들의 종교를 적대시하면 안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넷째, 마을 주민들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들보다 더 나은 교육혜택을 받고 더 잘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이 더 겸손하게 현지 시골 주민들을 마음을 다해 섬겼을 때, 그들은 더욱 쉽게 마음을 연다.

(2) 작은도서관 설립

현지에서 설립되는 작은도서관은 한국의 작은도서관의 규모로 해서

는 안된다. 외국인이 외국자본을 가져다가 무슬림 마을에 한국 규모의 작은도서관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라. 그들은 반드시 그 선교사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가급적이면 그 지역 사회의 상황에 어울리게 만들어야 한다. 저희는 그 지역의 주택을 임대하여 내부를 간단하게 수리하여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다.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슬림 사역의 특성상,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어도, 그들의 종교적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그 마을에서 추방되거나, 심하면 그 건물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저희는 5년간 임대하였다.

저희는 MBB 출신인 현지 목회자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컴퓨터에 능한 일반 대학생인 현지 사역자를 구하였다. 이 현지 사역자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무슬림들이었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무슬림 마을에 세워진 작은도서관에서 오랜시간 사역하는 긴장감과 두려움을 쉽게 극복하였다.

작은도서관을 위해 약 1,500여 권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였다. 도서 구입은 주로 할인 기간에 서점과 온라인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한국에서 모은 어린이용 영어도서를 비치하였다. 영어도서는 B국 언어로 번역하여 각 페이지마다 부착하였다. B국의 시골지역은 책을 읽는 문화가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여,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퍼즐이나 블록 등 교육자재를 약 50여 점 비치하여 독서흥미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였다. 이 지역 무슬림 어린이들이 처음 접하는 도서관이어서 사용규칙과 운영지침을 만들어 부착하여 이용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하였다. 작은도서관 이용자는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었다.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매일 2회 정기적으로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가졌고, 지역 학교의 요청으로 유치원과 중학교를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용자는 매일 10-100명 정도이고,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에는 약 40-60명 정도가 참가하였다.

(3) 작은도서관을 통한 다섯 가지 교육의 주제

저희가 세운 작은도서관은 다른 현지 작은도서관들과는 달리 다섯 가지 교육의 주제를 기초로하여 운영되었다.

첫째, 기초언어학습. B국에서는 공용어인 B국 언어 외에, 일상생활에서는 종족어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B국 언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다수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치원에서 B국 언어를 배운다. 시골지역일수록 초등학생들 가운데 B국 언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이러한 보충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둘째, 도서검색능력향상. 교과서 이외에 책을 접해 본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싶은 주제에 따른 책을 정하여 검색하는 훈련이다. 이를 위해 본 작은도서관은 듀이십진법에 따른 도서분류법에 근거하여 각 주제별로 색깔과 기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학생들 스스로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셋째, 창의성 교육. 이슬람식 교육은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이 많기 때문에 무슬림 학생들을 위하여 창의성 향상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블록과 가베 등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을 시행하였다.

넷째, 환경 교육. B국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매년 23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세계보건공해동맹(Global Alliance on Health and Pollution)의 발표와 같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오염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작은 것 하나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인식의 전환 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하였다.

다섯째, 성품교육. B국은 수 백 년 동안 식민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형성된 사고방식과 기독교와는 다른 이슬람교의 죄인식 등으로 인해 성품교육의 중요성이 요청된다. 그리고 선교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서의 성품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의 주제이다. I 국 교육정책에 따른 성품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 관점으로 성품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였다.

(4) 작은도서관의 네 가지 사역 영역

저희가 무슬림 마을에 세운 작은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영역에서 시행하였다.

첫째, 지역 학생들이다. 지역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위에 언급한 다섯 가지 교육 주제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였다.

둘째, 지역 사회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사회를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으로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지역 영유아 및 임산부를 위한 건강검진이 열리는데 이곳에서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시행한다. 또한 마을 신문을 제작하여 지역의 행사나 중요한 사건 등을 신고, 더불어 기독교를 소개하고 알리는 코너를 신기도 한다. 마을 부녀회에서 이 신문을 통해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시행하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의 결혼식, 장례식, 할례식 등에 작은도서관 이름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성탄절, 부활절, 이돌 피트리(Idul Fitri) 명절에는 지역의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 구제사역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방문인데, 작은도서관에서 특별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들과 상담을 하거나 여러 주제로 대화를 한다. 이 시간은 이들과 친밀한 관

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 이슬람 학교에서 위탁교육이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학교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품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작은도서관에서 시행되기도 하고, 학교로 찾아가서 시행하기도 한다. 현재 11개의 이슬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저희에게 위탁교육을 요청해서 시행되고 있다.

저희는 3시간짜리 ‘성경적 세계관 성품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각 이슬람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매월 1-4회 정도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한 B국 교육정책에 따른 성품교육 주제를 선정하고, 이 주제에 따른 책을 선정하고 독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저희는 현지에서 교육 전문가로서 자격을 구비하고 인정을 받고, 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게 되면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현지 학교들이 많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위해 교사교육과 학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학교에 한해서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서 한국의 전통문화나 전래동화를 이용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행사 소개-기도(이슬람식-현지교사 진행)-노래 배우기-주제 설명-동화 상영(PPT 또는 연극, 공)-공동 기도문(기독교적 접근으로 위험 소지가 많기에 학교가 아닌 신뢰 관계가 쌓여진 작은도서관에서 실행)-퀴즈대회(동화 내용)-One Story Program(동화내용을 재구성하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동화내용에 따른 말씀 암송-특별프로그램 시행-마무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이 실행 되기 전 2-3회 교사교육 시간에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한 후 교사시연을 한 후 시행된다. 2019년에는 한국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현지 이슬람 학교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연극팀을 만들어 성품독서교육프로그램 시간에 공연을 하였다. 이에 반응이 좋아, 지역 다른 학교와 대학교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였고, 정식적으로 연극팀을 만들어 사역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넷째, 작은도서관 연합모임과 시립도서관 협력사역이다. 저희는 70-8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현지인 작은도서관 연합 정기모임에 참여하고, 저희 작은도서관에서 연합모임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현지 운영자들에게 작은도서관 운영사례를 발표하기도 하고, 현지 작은도서관들에게는 도서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시립도서관 담당자의 요청으로 성품독서교육프로그램을 시립도서관에서 실행하였다.

4. 사역 평가

1) 선교적 의미와 결실

저희의 무슬림 교육선교사역은 다음과 같은 선교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타세계관이나 종교관에 대해 폐쇄적인 성향을 갖는 무슬림들에게 외국 기독교인에 의해 선한 영향력을 받음으로 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열린 세계관으로 바뀌고,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둘째, 저희의 LAM 모델과 전략을 통한 무슬림 교육선교 방법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인간 성품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성경에서 경건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행 10:1-8), 인간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만든다고 믿는다. 셋째, ‘성경적 세계관 성품독서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경 암송 시간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삶 자체가 신앙인 무슬림들에게 논리적 설명이나 설득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 암송의 시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입술에서 고백되고, 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이기에,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무슬림들에게 임하는 시간이요, 선교사는 기도로 성령의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넷째, 친밀한 관계를 가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

여 현재 MBB 양육을 하고 있다. 다섯째, 민속이슬람 특징상 시골 무슬림들은 여전히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작은도서관 이용자인 마을 유지 외손자의 급성 천식이 저희의 맛사지와 기도로 나은 이 후 무슬림들이 무당에게 가지 않고 저희에게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 와서 대화와 상담을 하였다. 직접·간접적으로 기독교인의 기도의 능력을 무슬림들이 체험하였다. 여섯째, 외국인임에도 B국 마을 행정조직에 기초가 되는 마을부녀회와 임원활동, 영유아 건강예방프로그램, 마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작은도서관 설립과 거주 때문이었다. 저희는 마을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양한 이슬람 종교의식과 행사에 참여하며 무슬림에 대해 더 깊이 몸으로 배우고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며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되었다. 저희의 무슬림 선교가 위와 같이 선교적 의미, 가치와 결실을 나타내었다고 생각되지만 모든 결과는 성령의 평가에 맡긴다.

2) 문제점, 극복 사례와 개선 사항

(1) 무슬림 선교를 위한 플랫폼 사역과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무슬림 사역에 있어서 ‘작은도서관’이라는 시설을 무슬림 마을에 선교 플랫폼으로서 세웠을 때에 장점이 있지만, 작은도서관과 학교 교실 안에서 실행되는 공식적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과 대면할 때,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기독교인화시키는 것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다.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는 일반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경계를 갖고 있고, 기독교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낼 경우, 작은도서관이 폐쇄되거나 마을을 강제적으로 떠날 수도 있다.

저희가 무슬림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세웠을 초기에는 많은 무슬림 학생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였다. 하지만 우연히 저희의 종교가 기독교인

것을 안 후에는 지역의 이슬람교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작은도서관 출입을 금하였고, 마을 학생들 중에는 오줌이 섞인 모래를 던지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독교인에 의해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니 주의를 하라고 경계심을 심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첫째,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강한 돌파력임을 믿고, 작은도서관 내부의 작은 방 하나를 기도실로 만들어 매일 그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 둘째로 무슬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무슬림 마을을 섬겼다. 마을 행사가 열리면 거의 모든 행사는 참석을 하였고, 나○○ 선교사는 2-3일 전부터 마을의 무슬림 부녀자들과 함께 하루종일 음식을 만들고, 그곳에서도 가장 신분과 지위가 낮은 사람이 하는 설거지와 장작을 피워서 밥 짓는 일을 도맡아 하였다. 그들의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슬람교 행사에 참여하였고, 무슬림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자녀 교육과 양육, 그리고 병 치료와 건강 상담 등등 그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희는 무슬림들의 친구, 형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셋째, 저희가 현지 국립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박사학위(Ph.D)를 취득하면서 교육 전문가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자, 자녀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던 이슬람교 종교지도자들조차 자녀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저희 가정에서 실시하는 성품독서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2) 작은도서관 임대 문제

2012년에 무슬림 마을에서 2010년에 작은도서관을 위해 임대한 주택 임대 계약이 2017년 9월에 끝난 후, 건물 주인의 개인적 상황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많은 주민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은 매우 안타

까워했고, 몇몇 무슬림 주민들은 스스로 작은도서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건물을 알아보는 등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무슬림 마을에서의 작은도서관은 공식적으로는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 무슬림들의 요청으로 저희 가정에서 가정도서관 형태로 성품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도서관 이용자 학생들과 가정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가정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선교사 가정을 무슬림들에게 개방해야 하는 보안상의 위험이 있으나, 이미 도서관 이용자 학생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스스로 약 6Km 거리를 오토바이와 도보로 저희 가정을 방문하는 횟수가 2016년도부터 빈번하게 늘어났다. 그 이유는 2016년에 도서관 어린이 위원단을 결성하여 매주 토요일 리더쉽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1년에 두 번 1박 2일 리더쉽 캠프를 작은도서관과 저희 가정에서 열면서 자유롭게 무슬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저희 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안전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긍정적 방향으로 새로운 사역이 확장되었지만, LAM 모델과 전략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지역사회 속에서의 작은도서관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은 무슬림 플랫폼 사역의 새로운 모델과 전략의 지지 역할을 실행하는 곳이고, 이것을 벤치마킹하려는 많은 선교사들의 요청과 더불어, 이 전략이 현지인에게 교육되고 훈련되고 적용되기까지 시범 형태로 존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태국에 있는 한인 선교사에게 LAM과 성품독서교육프로그램을 나누었고, 한인 선교사에 의해 저희 작은도서관을 벤치마킹한 작은도서관이 B국에 7개가 있고, 서양 선교사와 협력하여 작은도서관이 2020년에 P지역에 세워질 계획이다. 저희의 생각으로는 LAM 모델과 전략과 사역 사례를 무슬림 선교사역을 하는 현지 지도자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나누고, 무슬림 선교를 위해 현지인들과 선교사들을

교육 및 훈련시키는 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또 하나의 소명이라 생각된다.

(3) 현지 사역자와 재정적 어려움

2012년 9월부터 함께 사역하였던 현지사역자가 2016년 11월 출산으로 사역을 그만두게 되어 2019년 6월 한인 선교사가 협력하기까지 저희 부부 홀로 이 사역을 감당하였다. 매월 현지 사역자에게 월급을 주는 형태로 사역을 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있으나, 현지인 사역자는 무슬림 사역에 있어서 외국인 선교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다. 2017년 9월 계약 만료가 되어 작은도서관을 닫은 후, 그 동안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민했던 작은도서관 운영비, 현지 사역자 월급과 작은도서관 재임대 비용 등에 대하여 기도하며 사역 방향을 전환하였다. LAM 모델과 전략 가운데 있는 현지 이슬람학교 위탁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으로 전환하였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현지학교 교장의 요청이 있었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전에는 세 개의 학교만 대상으로 사역하던 것을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이 사역은 저희 부부가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슬람학교 안으로 들어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제도권 학교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까지 되었다.

한인 협력선교사와는 공동의 사역일 경우 2019년 9월부터 사역비를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저희의 사역은 무슬림 사역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교회사역을 하고 있기에 사역비와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사역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떻게 협력선교사를 찾고 어떤 구조로써 협력할지 그리고 선교적 마인드를 공유할런 지가 저희가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이다.

(4) 복음 전도와 양육

제도권 학교에서의 LAM 모델과 전략을 통한 사역이 활성화 되면서 인력과 시간상의 문제로 복음 전도와 양육 측면이 약화되었다. 무슬림 마을에서 MBB 양육은 일대일로 진행되기에 최소 일주일에 15시간이 필요하다. 매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일대일 복음 전도와 양육을 전담할 J종족어가 가능한 현지사역자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무슬림 마을에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한다는 것은 다른 무슬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그들의 언어로 더 깊이 양육할 수 있는 현지양육자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LAM 사역을 함께 현지사역자와 성품독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을 갖춘 현지사역자를 양성하는 것도 저희의 당면 과제이다.

(5) 연합과 협력(중보 기도모임, 성경읽기 소셜네트워크, 사역 포럼)

무슬림을 직접적으로 사역하는 경우, 보안에 민감해야 하는 긴장감이 있고,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사역과 신학교사역에 비해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슬림사역 선교사 간의 협력과 지원, 그리고 멤버 케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영적 협력과 돌봄을 위해 저희는 B국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는 다른 단체 소속의 한인선교사의 초대로 2012년 9월부터 기도모임에 참여한 이후,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이 모임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에 저희의 거주지역에 여성 선교사 화요중보기도모임이 시작되었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9년 8월에 선교사 자녀학교 한인어머니들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한 목요기도모임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저희와 협력하는 한인선교사와 매주 성경나눔과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현장 선교사로서 현장에서의 사역과 더불어, 여러 선교 포럼에서 사

역을 정리하여 발표를 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며 선교학적 소양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왔다. B국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타교단, 타선교단체 한인 선교사와 연합하여 네차례에 걸쳐 포럼을 진행하였다. B국가 내에서 무슬림선교라는 공동의 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한인선교사들이 연합하여 자체적으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여함으로써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디지털화 과제

201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혁신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저희 역시 교육선교라는 범주 속에서 아날로그 형태를 넘어서는 디지털 형태의 전환을 고민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저희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2년 경에는 이곳 현지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저희는 2019년부터 현지 학교 교사교육과 학부모교육을 소셜네트웍을 활용하여 실행하고 있다.

저희 가정에서 열고 있는 성품독서교육 프로그램 시간에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독후활동 프로그램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디지털게임을 그룹별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대부분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무슬림 마을부녀회와 이슬람 중학교에서 스마트폰의 유해성과 건전한 활용법에 대해 교육을 하였다. 일반교육계에서 이러한 교육의 디지털화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육선교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디지털화 형태의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전문가의 교육선교콘텐츠 앱개발이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와 미래 교육선교 현장의 필요를 미리 준비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선교사, 교육공학자, 앱 엔지니어링, 컴퓨터 전문가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B국은 면적이 넓고 수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기에 교육선교와 선교사 간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 원거리 교육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용되어야 한다. B국은 점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확대하고 있기에(2019년 12월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의 시립도서관에 디지털도서관이 런칭되었다), B국의 국립 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도서관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디어 센터의 기능을 갖춘 작은도서관 선교모델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결론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갖고 있는 B국에서는 많은 선교 사역들이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슬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LAM 모델 역시 이러한 다양한 선교방법 중의 하나이다. 저희는 LAM 모델을 통한 전략으로 무슬림사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무슬림 지역이든 다른 지역이든, 현장 선교사는 선교에 대한 선교신학적 관점을 갖고 사역에 임하면서도, 변화하는 사역현장과 그에 따른 현장의 요청 앞에서 열린 마음과 비평적, 개방적 사고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배워온 신학과 선교학의 토대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 속에서 끊임없는 선교신학화(missiologizing) 작업을 해야 한

다는 점이다. 이 선교신학화는 신학과 선교학이 현장과 더불어 다양한 학문과 통합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된 선교신학적 관점을 통해 선교전략을 현장에 적용하고 또 다시 재평가하는 작업이다. 선교사는 본인이 작성한 선교 현장 보고서를 토대로 선교전략 재평가 작업을 스스로 해야 하고, 더 발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교 보고서를 작성한 후 현장 선교사 경험을 갖춘 선교학 전문가와 단체를 통하여 피트백과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평가 과정을 통하여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 연륜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지고, 이러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통해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태도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무슬림 사역에 대한 준비없이 시작한 저희 같은 선교사에게도 성경말씀을 통해 무슬림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시고, 이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무슬림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주님, 저희는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무슬림사역으로 인도하셨으니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듣겠사오니, 저희에게 말씀하옵소서”. 시편 14편 2절과 시편 53편 2절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말씀처럼 하나님 그 분 만을 구하고 그 분의 뜻을 찾는 기도와 무슬림 사역 연구 속에서 LAM모델과 전략 그리고 사역의 방향과 윤곽이 서서히 만들어졌다.

셋째, 무슬림 사역에 있어서 선교사들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팀사역이 아닌, 단독으로 무슬림사역을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슬림 사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이 과정에서 무슬림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들과의 만남, 교제, 기도회,

정보 교류, 포럼과 세미나 개최, 타선교사의 무슬림 사역현장 탐방 등은 매우 중요하다. 무슬림 사역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스스로 돌아보았다. 저희는 단독으로 개척하며 사역을 시작하였지만, 가능하면 선임 아래에서 안정된 구조와 협력 지원 시스템을 갖춘 팀사역이 위험도를 줄일 수 있고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저희는 늘 학습하는 자세로 무슬림 선교전략과 선교학에 대한 서적을 읽고, 지도와 정부 통계자료를 가지고 현장 리서치와 서베이를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자체적인 영적 도해를 그리며 기도와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은혜(엡 1:17)를 힘입어 그 지역에 적합한 선교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다. 저희가 만든 LAM 모델과 전략이 각 새로운 지역과 학교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추가적인 전략 수정, 검토 및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는 지혜를 얻어 그 지역과 사역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섯째, 그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선교 전략은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배경, 재능, 은사, 성향, 기질과 더불어 연약함을 사용하시기에, 선교사의 자기 성찰과 자기 직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발견하여 자신의 욕구나 타인의 권유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저희의 경우 무슬림 사역을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 사무엘하 7장 14절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고난과 환란의 시간 속에서 저희는 저희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죄성을 보게 되고,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현상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서 더 집중하였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선교사역에 있

어서 선교사의 재능이나 은사보다는 선교사의 본질적인 내면의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다루어지고, 성화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사는 일반적으로 현지인이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저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며 오래 참으심으로 선교사인 저희를 선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영적 생명력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힘을 통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선교사가 이미 디자인한 사역과 전략을 갖고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 사역할 수도 있지만, 마을의 조직과 제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현장에 적합한 무슬림 사역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일곱째, 선교사는 무슬림들에게 삶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권위는 겸손한 섬김과 진솔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영적 권위는 가장 중요한 선교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저희가 소개한 LAM 모델과 전략이 무슬림사역을 위한 하나의 선교 방법이 될지라도, 지역의 특성과 선교사와 현지 동역자의 배경, 성향, 기질, 은사에 따라 각 지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상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선교지 상황

1914년까지 벵갈 지역은 전 인도를 통털어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지적인 발전의 증추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인도가 분할되기 전, 지형적으로 현재의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한 나라로 존재했을 당시 콜카따(Calcutta)는 전 인도 대륙의 수도였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 기간 동안 진행된 역사의 어떤 측면에 대하여 기록하더라도 벵갈 지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인도 콜카따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인종이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방글라데시도 과거 동인도회사나 영국 정부가 콜카따에서 행했던 모든 측면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제국의 확장에 따라 다양한 선교조직들이 점차적으로 북인도의 다양한 사역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벵갈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북인도선교는 벵갈 지역 선교의 확장인 것이다.

1) 영국 점령기(1757-1947)

인도에서 분할되기 전의 벵갈 지역 개신교 선교는 “위대한 선교의 시대”의 인물 중의 하나인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가 이 지역에 도착한 1793년부터 시작된다. 1793년부터 1833년까지 그가 인도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근대인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인도선교(Indian Mission) 지지자 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인도 지역에

서 환영 받았으며 그들의 복음화를 위한 노력은 수많은 동인도회사의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재생산에 대한 필요를 채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선교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들은 선교지 지역민들이 가진 반발심과 적의를 악으로 여기며 결국에는 정치적 통제의 권위도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1833년 캐리의 죽음 이후 선교사들의 관심은 세라푸르에서 풀까따로 이동하였으며 벵갈 지역 중 약 71군데에서 다양한 선교 활동이 진행되었고 풀까따 주위에 30여 개의 사역장이 설치되었다. BMS는 보리샬(Barisal), 디나즈뿌(Dinaipur), 다카(Dhaka), 그리고 치타공(Chittagon)에 사역장을 설치했다. 1833년부터 1857년까지는 풀까따에 힌두교도들의 인구 증가에 따라 선교사들은 시골 지역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또한 영어교육을 강조하던 것에서 자국의 교육을 더욱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응은 벵갈 사회의 상황 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반응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 된다.

- ①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반응,
- ② 기독교에 개종한 이들에 대한 반응,
- ③ 특별히 땅을 통해 얻은 지주들의 이익에 대한 반응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힌두 사회 내에서 나타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힌두이즘 변화에 대한 운동이며 이것은 Brahma Samaj와 연합한 Tattvabodhini Sabha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들은 기독교의 비판을 넘어서 힌두이즘을 더욱 일으켜 세우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 받은 힌두인 청년들의 이성적인 경향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공공여론과 성명 등을 통하여 시행함으로서 선교사들의 전도를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교육의 영역에서 시도된 것으로 기독교계 학교를 피하고, 한편으로는 정부가 정식 교육기관에서 정규적 교육과정에 성

경이나 기독교의 원리들이 편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에 대한 반응도 세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① 아주 자연스러운 시도로서 기독교인 개종자들을 힌두교로 교화시키는 것.

② 이것에 실패하면 카스트 제도에 의해 허가된 사회경제적 제한들을 개종에 대해 하여 강화시키는 것.

③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에서 반(反) 선교사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의 결과는 때때로 선교사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러나 더 자주 개종자들에 대한 억압을 통해서 나타났다. 다른 언급된 측면들은 시골지역에서 기독교의 전파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다시 부동산과 지주들, 인디고 농장주에 대한 반응과 관계가 있다. 풀까따에서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Nadia, Jessore 그리고 Barisal과 같은 시골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의도했던 사역의 효과들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지주 집단에 대한 시기와 적대감이 점차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이 토지소유시스템의 개혁에 대하여 옹호하였지만 점차 지주들과 인디고 농장주들의 불안을 일으켰으며 지주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하여 새로운 개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들이 도입되었다.

2) 파키스탄 시기(1947-1971)

약 200년간의 영국 식민지 기간이 1947년에 마감되고 인도는 분할되어 두 개의 새로운 나라가 성립되었으며 이는 전적으로 종교의 차이에 의한 분리였다. 즉 인도는 힌두교인 들이, 파키스탄은 무슬림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당시의 파키스탄의 동쪽에 위치한 일부인이었

다. 초기에 파키스탄은 새 나라의 국부의 선언을 통해 이 나라가 세속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 하였으나 머지않아 이슬람 국가임을 선포하고 모든 소수종교들 즉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등 국민으로서 대우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다양한 사회적, 종교적 압박이 시작되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리더들은 높은 힌두계급으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이었기에 인도 꼴까따에 남거나 동파키스탄 지역에서 인도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동파키스탄 지역의 기독교 리더십에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 큰 공백이 생겨나게 되었다. 선교사들은 여전히 기존의 설립된 교회들의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교회를 활성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히 사회의 대대수를 차지하는 이슬람 계층과 어울려 살아가며 여러 사역을 담당하는 것은 불편한 일임에 틀림 없었다.

기존에 설립된 교회들 외에도 새로운 일부 교회들이 동파키스탄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정치적으로 두터운 관계를 맺었던 파키스탄 정부였기에 미국의 교회들이 동파키스탄 지역에서 강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침례교회(Association of Baptist),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s),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가 대표적이다. 이슬람교를 기반으로 군사적 통치를 감행했던 파키스탄의 시기에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그 사역이 침체되었다. 위의 미국에서 온 3교단의 교회들은 집중적인 복음 사역을 진행하였고 일부 새로운 개종자를 얻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체 24년의 시간동안 파키스탄 정부는 군사적 통치를 지속했기에, 정치적인 위기는 항상 존재했으며 어떤 사회 개혁의 요소는 성취되지 못했다. 교회의 사역은 점점 침체되어갔고 말 그대로 그냥 진행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잘 교육받지도 못하고 가난했던 성도들이 강한 영

적인 삶과 실천을 해 나갔다는 점이다. 교회는 성도들이 충실한 교회 생활에 참여함을 통해 은혜를 받고 생기를 얻을 수 있었다. 파키스탄이 시작된 후 4년 뒤인 1951년의 인구 통계에서 동파키스탄의 기독교 인구는 약 106,507명으로 조사되었다. 1961년에는 149,000명으로 42,493명이 증가했고 이는 매년 4,249명씩 늘어난 것이다. 1981년에는 275,000명으로, 1991년에는 346,000명으로 집계되었다. 1991년에서 2001년까지는 단 50,000명의 성도가 늘어 다소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최근의 2011년의 조사에서는 약 496,700명이 기독교 인구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집계 결과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 기독교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소수민족으로서 이 집계가 진행될 시기에 그들은 불가지론자(회의론자 Agnostics)로 보여졌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난 무슬림 개종자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무슬림으로 자동적으로 계산되었다는 점이다.

3) C국 시기(1971부터 현재)

1971년이 되어 독립 전쟁이 발발하였고 약 9개월 동안 3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며 방글라데시는 새로운 나라로 탄생했다. 이 전쟁에서 약 7,000만 명 사람들의 삶이 황폐화되었고 이에 대한 서방세계의 다양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많은 교리와 기독교 원칙을 내세우며 들어온 수많은 외국의 선교단체들은 당시의 현지 기독교인들과 비(非)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였다. 사역을 위한 많은 재정이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나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들과 이 재정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준비는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잘 훈련되고 유능한 교수진들이 자리에서 서지 못했고 다양한 선교단체들은 서로 다른 교회들에서 온 사람들을 동원하여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다. 기독교 교회의 본질과 영성은

거의 상실되었고 양육된 이들을 서로 빼앗아 차지하는 것이 당시의 혼란 일이 되었다.

기독교 사역의 일부분으로서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시작했던 새로운 일은 바로 교회사역과 더불어 사회 개발 사역이었다. Holistic Mission 개념을 수용하였고 당시의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구제업무, 병원업무 등의 개발사역을 교회의 주요 업무로 여겼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교회들에서는 전도와 양육 사역이 차선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개념은 즉각적으로 지역교회에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던져 주었다.

① 개발사역이 갑작스럽게 교회의 주요 업무로 떠오르면서 이것은 고(高)수입자인 많은 전문가들을 끌어들이 수 있었다는 의견,

② 교회는 점점 중심을 잃고 전도는 뒤로 밀리게 되었으며 교회 내에서도 개발사역자들 보다 목회자들이 훨씬 적은 월급을 받게 되었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이러한 일은 교회의 불균형과 교회 내부에서도 불편함을 야기하였고 교회의 연합이나 하나됨, 형제애와 같은 가치들은 거의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교회의 개발사역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교회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교회는 미션을 잃고 단순히 하나의 자선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오늘날 C국에는 67개의 기독교 종파가 있다. 가장 큰 조직은 로마 가톨릭으로 전체 기독교 인구의 약 60%를 차지한다. 나머지 40%의 개신교는 66개의 종파로 다시 나누어진다. 지난 인구조사의 결과를 볼 때 현재 기독교인 수는 약 800,000명으로 추정되어지며, 이 수치는 목적과 여러 이유들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지난 200년 동안 기독교는 힌두교인 주요 지식인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모습이었지만, 가장 큰 종교 공동체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에서 일하는 많은 선교단체들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적인 결과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C국에서 지난 2세기의 선교사역 후에 이제는 C국 교회들의 영성과 질이 더욱 비추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내부적으로 능력과 비전, 가치와 열정을 키우며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확장해 갈 수 있는 더욱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미래적 필요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동시에 여전히 지배적인 세력이며 기독교에 배타적인 무슬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섬김과 적극적인 전도가 요구된다.

2. 선교사 소개

- 1) 사역 기간 : 1984.4—현재
- 2) 주요 경력 :
 - 1984년 4월 29일 방글라데시 선교사 파송.
 - 사단법인 한국방글라데시 개발협회(KDAB) 설립.
 -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언더우드 선교상 수상.
- 3) 기타 : 2010년 이후 자비량 사역 중, 협력선교사 2020년 현재 4명.

3. 선교사역

- 1) 사역 목표와 방향
 - (1) 중심 가치 : 지역주민, 지역교회, 자립공동체.

(2) 대상 : 찰마리 주민 20만 명, 올리뿔 주민 30만 명, 기독교 지도자, 대학생, 예술인, 다카시 풀란 뿔 지역 주민 등.

(3) 중점 분야 : ① 증거사역

② 교육사역

③ 의료사역

④ 지역개발사역

⑤ 직업훈련사역

⑥ 문화 및 스포츠사역

⑦ 장학사역

(4)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시작하였나?

① 1988년 C국 정부의 이슬람국교 선언, 반기독교 정서 팽창, 선교사 추방 등 사역환경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국제 NGO 기구들에게는 체류 비자와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기회가 마련되어 서구교회들은 NGO를 통한 개발 사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발 빠르게 전환하였지만, 당시 한국교회는 대안이나 기독교개발 NGO 사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서구선교의 세밀한 계획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위에 한국인의 열정과 끈기를 더한다면, 한국교회도 기독교 개발 NGO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시 방글라데시에 파송되어있던 장순호 민은주, 강원희, 장성희 선교사와 교민 서건이, 정용성 등 6명을 창립위원으로 방글라데시 개발협회(KDAB)를 설립하고 방글라데시와 한국 정부에 법인 등록하였다.

② 사역지 선택 : 최북단 찰마리와 올리뿔 주민 50만 명은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폐쇄적인 이슬람과 힌두교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01년 대홍수 후 찰마리 지역 브라마푸트라 강 안에 새로 생긴 모래섬으로 대책 없이 이주해 온 2만여 명의 주민들과 올리뿔 군내에 거주하는

1,000여 가구의 음, 양성나환자들과 다카의 빈민들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어 찢마리, 울리 뿔 군과 다카 미룻뿔 지역을 주 사역지로 선택하였다.

2) 실천 프로그램

(1) 증거사역 : 개인전도, 성경공부, 양육, 지역교회 사역 등을 통해서 회심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지켜 나갈 수 있게 지원하여 KDAB 사역의 직·간접 수혜자들인 지역의 무슬림들이 복음에 반응하도록 격려한다.

(2) 교육사역 : 유·초·중 고등학교, 칼리지 사역을 통한 전인교육

(3) 의료사역 : 병원, 섬 진료, 이동진료, 모자보건, 가족계획, 공중보건

(4) 지역개발사역 : 시범농장, 자립마을, 호스텔, 한센재활훈련, 신용조합

(5) 직업훈련사역 : 봉제 및 컴퓨터교육

(6) 문화 및 스포츠 사역 : 다카 국제음악아카데미, 찢마리 태권도아카데미

(7) 장학 사역 : 신학생 및 상급학교 진학자

3) 사역구현/ 세부시행방법

(1)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 :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많은 군중들을 다루고 5,000명을 먹이는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행동했던 것 같은 소수의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에 집중한다.

(2) 목표와 목적 : 목표(우리의 일)와 목적(어떻게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는지?)을 분명히 한다.

① 매 3개월마다 지역 지도자, 농촌 청년, 주민 초청 모임을 통해 외부 세계를 알리고 자립 의지를 격려 한다.

② 스텝들은 매월 지역 주민과 지역지도자 가정을 개인적으로 방문하며 스텝들의 집을 개방하고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격려한다.

③ 지역 지도자들과 청년들을 위한 집중훈련을 매해 2회 실시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알게 하고 노동과 협동의 유익함을 체험하게 한다.

④ 외국인 스텝들은 지역의 모스크 이맘을 초청하여 벵골어 코란 공부를 통해 소통한다.

⑤ 모든 스텝들은 매일 업무시작과 종료 시 간단한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여한다.

⑥ 모든 스텝들은 매주, 매월 분야별 업무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3) 목적에 집중 : 직접적으로 사회적 질병과 싸우며, 특정한 집단을 복음전도하려는 목적에 집중한다.

① 찢마리, 울리벨 지역의 가난하고 완고한 이슬람 주민들의 자립과 신생교회 설립을 자극하는 목표 아래 많은 작은 단계들, 즉 지역의 특정 주민들과 스텝들을 관리 하는 작은 단계들이 지역의 자립과 교회설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거대한 것을 다룰 수 있을 만하게 집중적인 활동 방향들을 제시한다.

② 목표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을 기록 점검한다. (지역 주민, 지도자, 청년초청 모임에 참여하는 남녀 수, 현지인 스텝들의 성경공부 참여도,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의 반응 등) - 해야 할 목록만 적지 않고 그 일들이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한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했다면 그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기꺼이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각각의 기록을 점검 한다.

(4) 반복 훈련

① 반복은 교류자의 헌신 도를 증가시킨다는 면을 적극 활용한다. -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은 그것을 행동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믿도록 만드셨다.”(롬 10:9-10)는 명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복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원리를 적용한다. (성구암송, 생활구호, 식탁구호, 식사찬송 등)

②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인지(인식) 방법을 적용한다. - 전체 현직인 직원들과 학생들의 국민의례, 집단체조, 공동청소, 줄 맞춰 이동, 기도모임과 성경공부 내용을 적용하고 발표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계속 말하게 하고 반복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헌신을 배우게 한다.

(5) 문제 발견 : 자신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필요를 알게됨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게 한다. (‘어떤 나라는 잘 살고 방글라데시는 왜 못사나?’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함으로 이슬람의 체념주의와 힌두교의 운명론에 반하는 기독교 개척정신과 주인정신을 갖도록 격려)

(6) 고용과 선발 : 출신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

(7) 기도모임과 성경공부 : 개종을 강요하지 않지만 사역장별 기도모임/성경공부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4. 사역 평가

1) 사역의 열매

(1) 재정 자립도

2019년도 방글라데시 사역의 재정 자립도 42%(2019년 방글라데시 사역 비 지출 계: \$146,866=171,539,488원 중 \$61,513=71,847,184원 현지인들의 현금과 방글라데시 사역장 수입<수업료, 진료비, 훈련비, 농장 수입 등>으로 충당됨)

(2) 주인의식

극렬 무슬림들이 몰려와 부수는 등 난장판을 만들거나 폐강도가 들어와 다 가져가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선교사만 남겨두고 도망가던 현지인 직원들이 시시각각 발생하는 문제들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본다.

(3) 반응

① 무슬림 지역에 와서 교회 건물부터 짓지 않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묵묵히 담당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② 선교사가 지나가면 돌을 던지며 빠골(미친놈), 빠그리(미친년)라고 놀리며 따라다니던 동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당신들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현지 주민들을 본다.

③ 기독교인을 만든다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피를 뽑아 외국에 판다며 환자들을 병원에 보내지 않던 지역주민들이 등록금을 내고 자녀들을 KDAB 학교에 보내고, 진료를 받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린다.

④ 성경을 만지거나 교회당에 발을 디디기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 믿어 온 무슬림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적용하는 등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4) 자립의지

재정이 바닥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현지인 직원들이 (2019년 12월 말 현재 방글라데시 직원들의 종교 분포 - 무슬림 90%, 힌두교 9%, 기독교 1%) 헌금에 참여하고 자체소득을 늘려가고 있다.

(5) 사역분담

현지인들이 KDAB가 운영하는 병원, 학교, 농장, 훈련원 등의 운영과 재정 관리를 전담하고 선교사들은 격려와 양육,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다.

2) 문제점, 또는 장애 사항 극복, 실패 교훈 등

(1) 기독교식 표현과 종교 언어

무슬림들은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불경한 문서이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기독교식 표현과 전달은 듣지 않고 마음을 굳게 닫는다. 따라서 현지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표현과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한 선교사의 완벽한 현지어 구사와 현지문화 동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2) 집단적 반대와 방해

지역의 모스크 이맘과 선교사가 코란을 뱅갈어로 공부함으로 완고한 무슬림들과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3) 만성적 의타심

10명 이상의 회심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의 힘이 생길 때 까지 공개적인 세례식을 거행 하지

않았으며 현지인 목회자의 생활비와 교회 운영비는 처음부터 현지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케 하였고 예배당 건축 등의 경우 전체 예산의 10%를 현지인 교인들이 마련할 때까지 기다려서 지원했다.

3) 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① 전문성과 지도력 강화

② 자국민 전도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자립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격려와 지원

5. 결론(제언)

1) 연함과 사역을 자랑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사가 한국교회보다 더 긴 선교지의 전통적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오랫동안 사역한다고 하지만 정작 복음 이 필요한 이교도들에게는 다가가지도, 전도하지도 않는다. 모슬렘들은 성경을 변질된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교도들은 서구식 기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데도 여전히 전통적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통적 신학교, 서구식 교회 건물을 지으며 모아 놓고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전도하거나 양육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선교의 목표는 현지인들이 스스로 서게 하는 자립선교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교지 교회들이 선교사들과 파송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갈수 없는 곳에 가주소요! 재정을 현지 교회에 넣고 투명하게 사용해 주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소요!’라고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2)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선교사가 그 지역의 문화, 역사, 환경, 종교, 사회,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개인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모든 종류의 선교사역들은 개인의 경험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도구는 수단이고 목적은 개인이다. 결코 수단이 목적이 되지 말게 하자! 한 개인의 변화는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개인적 접촉으로, 개인적 영접으로,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역의 문화, 역사, 환경, 종교, 사회, 경제 등의 사회구조를 고치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 개인의 중심의 변화에 집중하지 않고 각종 사업과 정책을 만드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 판에 쓴 것이라’(고후3:3) 우리의 표정, 언어, 삶으로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보게 하자!

3) 한국선교는 선교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건축했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자립하게 하는 일을 방치하여 회심자들이 선교사와 선교부에 대책 없이 의존하게 만들었다. 개종한 회심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기독교 개발 NGO 사역이다. 개인이나 교회와 교단이 아무리 훌륭해도 모두를 합한 것보다 우수하지 못하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전 4:9-10)”

고 하셨다. 오늘날 우리는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외롭고, 고독하며, 긴장으로 하지 않고, 협력과 동역으로 이루어가는 데에 힘을 모으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팀으로 일하자! 팀이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힘을 주시는 적극적인 사람들의 그룹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

1. 지역 상황

1) 국가 개관

D국은 공화국으로 면적은 한반도의 약 3.5배로 흑해, 에게해, 지중해로 둘러 싸여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반도 국가이다.

2) 사역 지역(본인이 사역하는 지역 중심으로)

(1) 일반 현황(인구, 소득, 교육 등)

인구는 2019년에 8,300만 명으로, 1인당 GDP는 8,960 달러이다.

인종상 D국인이 국민 대다수를 이루며, 그 다음으로는 쿠르드인이 있다. 공용어는 터키어다.

교육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이다. 학제는 초등 4년, 중학 4년, 고교 4년인데,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만이다. 이때까지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이며, 외국어 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어, 중학교부터는 영어뿐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필수 과목이다. 전 국민의 99.8%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국가이기에 초등 4년부터 종교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이슬람을 가르치지만 외국 학생에게는 강요하지 않는다.

(2) 종교 현황(분포, 선교 환경 등)

인구의 99.8%가 무슬림이다. 대부분이 수니파이지만 알레비파들을

비롯한 시아파들도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대부분 부모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자식들도 이슬람인 경우가 많다. 이 밖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유대교와 개신교 등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2019년 터키 개신교 통계를 보면, 개신교인은 약 7,000명 정도로 모임 공동체는 약 170개이다.

최근의 선교 환경은 점점 문이 닫히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2019년에만 100여 명에 가까운 외국 사역자가 비자 연장을 못하고 떠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비자 거부가 진행중이다.

2. 선교사 소개

1) 사역 기간

1992년 3월-1993년 2월: 필리핀 월드미션 선교사 훈련생으로 훈련을 함.

1993년 3월-1996년 10월: 필리핀 선교 사역.

필리핀의 중북부에 있는 블라칸 지방의 감리사들과 협력 사역을 하였다.

특별히 현지 감리사들의 요청으로 영적인 부흥 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하였다.

1996년 11월-현재까지: D국 앙카라에서 현지인 모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

1996년 필리핀의 블라칸 지방의 현지 목사들이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필리핀을 떠나 터키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처음 정착한 곳은 이스탄불로 약 2년 머물면서 언어와 정착, 그리고 사역할 지역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터키 남동쪽의 다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2005년 터키에서 믿는 자가 모슬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종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즈밀로 이동 후 2008년부터 앙카라에서 현지인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2) 은사, 경력

2008년-현재까지: 앙카라 코넛켄트 현지인 모임 공동체 담임.

2013년-2017년: 앙카라 하제테페 대학원 고고학 전공.

3. 선교 사역

1) 사역 목표(또는 방향)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마 28:19-20)에 순종하여 제자 삼는 일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사역 추진 중점(또는 정책, 전략, 방침 등)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 실천하였던 것처럼, 초대 교회의 사역 전략이 나의 전략이기도 하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이루기 위해 사도행전 5장 42절을 집중하여 실행하고 있다.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즉, 주일에는 교회에서 정규 예배와 모임을 하고, 주중에는 믿는 자들의 집에서 제자 양육 훈련을 한다.

주일 모임은 단체적인 미팅이지만 주중의 모임은 개별적으로, 또는 2-3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모임의 시간은 2시간 내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실천 프로그램

실천 교육 방법으로는

첫째, 소명과 사명을 강조한다.

둘째, 제자 양육을 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한다.

셋째, 보충 훈련을 매주 실시한다.

넷째, QT 훈련을 매일 한다.

(1) 소명과 사명을 강조한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믿는 자들이 실천해야 하는 명령이기 때문이다.

첫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소명),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사명)고 강조를 한다.

둘째,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전도법임을 설명한다.

셋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으로 건강한 교회란 양육 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말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제자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정리한다.

(2) 제자 양육을 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한다.

첫째,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를 아침마다 5번씩 반복하며 선포한다.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히 9:22)고 하기에,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가**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 나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과 친해,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 나는 건강할 수 있어, 나는 겸손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좋은 부모(자녀)가 될 수 있어, 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둘째, 기본 양육 책(2권)을 가르친다:

신앙의 기본: 구원, 새사람, 말씀, 기도, 교회생활.

8 확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 주 사랑의 확신, 그리고 상급의 확신.

셋째, 기본 양육 책을 마친 사람에게 한해서 사역자 훈련을 실시 한다
(한달 코스).

사역자 훈련은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를 암기한 사람에게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첫 주: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둘째 주: ‘신앙과 기본의 구원 과정’과 ‘8 확신’을 다시 정리하며 가르치는 훈련을 한다.

셋째 주: ‘8 확신’과 ‘스피드 제자 만들기’를 다시 정리하며 가르치는 훈련을 한다.

넷째 주: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

다섯째 주: 주일 모임때 사역자 임명식을 한다.

넷째, 사역자 훈련을 마친 자들과 함께 2달 후에 있을 전도 초청 모임을 준비한다.

(3) 훈련 받은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매주 보충 훈련을 받게 된다.

매주 주일 오후 또는 주중에 보충 훈련을 한다.

보충 훈련은,

첫째,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를 계속 반복해서 외치도록 한다.

둘째, ‘기본 양육 책’을 서로 가르치고, 각자 맡은 과를 발표하게 한다.

셋째, 주일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고 살았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넷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두손 모으는 훈련을 하게 한다.

(4) QT 훈련을 매일 아침에 한다.

아침마다 성경의 구절을 전화기로 보내서, 그 구절의 뜻을 묵상하게 하여 답장을 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매일 매일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제자 훈련은 매 1년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은 다른 1명을 제자 양육하도록 목표를 둔다.

4. 사역 평가

1) 사역의 열매

(1) 제자 훈련의 내용은 성령 충만과 전도하는 방법이다.

A.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를 사용한다.

‘복음’과 ‘예수님 때문에’를 반복할 때,

첫째, 선포를 반복하면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낀다.

(더 기도하게 되고, 삶의 예배와 가정 예배가 살아난다)

둘째,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셋째, 모르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복음을 나누게 된다.

넷째, 복음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교제하던 현지인이 복음에 대해 물어본다.

다섯째,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사단의 공격도 심해진다.

성도들의 변화

첫째, 우리의 영성이 회복된다(가정 예배 시작).

둘째, 복음을 쉽게 이해하고 배우려고 한다.

셋째, 복음을 가르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한다.

넷째, 자살하려고 한 분이 제자 양육을 받고 전도자가 되겠다고 한다.

다섯째, 60, 70세 된 노인들도 못 외우겠다고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외우고 가르치더라.

여섯째, 10여 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지 않던 성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사단의 공격이 나타남

첫째, 사역자가 복음을 외우면서 가위눌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둘째, 10여년 가까이 모임을 해오면서 이웃의 불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복음을 반복하면서 이웃의 불만이 발생했다.

셋째, 꿈에서 귀신이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

넷째, 잘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다: 반복은 바보짓이다. 지도자를 공격한다. 성도끼리 싸움이 난다.

다섯째, 성도의 재정문제와, 인간관계에 갑자기 문제가 일어난다.

여섯째, 교통 사고도 일어났다(차만 망가짐).

B. 전도하는 방법으로 2개의 책(신앙의 기본과 8 확신)을 사용한다.

2 개의 책을 사용할 때,

첫째, 신앙인의 기본적인 신앙과 신앙생활을 알게 됨과 동시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는지 방법을 배우게 된다.

둘째,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가?

성도들이 먼저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교리를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

성도들이 이전 보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도들이 항상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성도들이 실제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다.

2) 사역의 문제점 또는 장애 사항 극복, 실패 교훈 등

(1) 사역의 문제점

사역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포커스를 맞춘다. 즉,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에 의해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무엇을 했는지를 잘 정리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날마다 매일 반복하여 외치고 선포함으로, 성도들이 성령충만하게 되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는 훈련이다.

그런데 이 사역의 중심인 복음의 개념을 매일 외치고 선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즉, 의지가 없기에 매일 외치며 선포하려고 하지 않고, 현지인들의 문화 즉, 반복적인 선포와 암기에 대한 낮은 문화로 인해 쉽게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 10명중 6명이 포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 사역자들도 제자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외치면서도 정작 본인들도 외치며 선포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다.

(2) 장애 사항 극복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성경적인 설득과 합리적인 설득으로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성경적인 설득: 신명기 말씀(신 6:4-9), 예수님의 사역(눅 19:47)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행 5:42)을 설명한다.

둘째, 합리적인 설득: 반복하면, 생각이 행동으로 바뀐다.

반복해야, 인간의 뇌는 기억한다.

반복해야, 목표를 달성(임계치)할 수 있다.

반복해야, 공동체의 연속성을 이룬다.

반복해야, 창조를 만들어낸다.

3) 개선 및 발전시킬 사항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일군과 현지인들의 함께 하는 컨퍼런스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서로의 경험을 피드백하면서 더욱 개선되고 발전된 훈련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5. 결언(제언)

타 선교사에게 권면, 추천하는 사역 노하우 포함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명령들이 수십 개가 된다.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과 함께 위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유언의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뼈 속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 현지인들과의 짧은 만남에서 우리는 준비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가끔 현장에서 주객이 전도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현장에 파송되기 전에 주님의 일에 전문가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실제로 현장에 투입 되었어도 전문성을 다듬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문성을 다듬는 일보다는 현지에서 들어가는 재정을 생각하고, 자녀 교육을 생각하고, 정착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물론 재정, 자녀 교육, 정착 지역 등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일에 몰두하는 시간과 기간이 늘 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로 떠오른다.

현장에 침투하기 전 그리고 침투 후에도 우리는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무기’(weapon) 즉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